〈제127 호〉

1972년 1월 25일 인쇄 1972년 1월 31일 발행

김 종필 국무총리 공군 주요 부대 초대순시

김 종필 국무총리는 1월 8일, 옥 만호 공군참모총장의 안내로 공군 3593부대 · 3871부대 등 공군의 주요 부대를 초도순시, 공군 제반 작전에 대한 현황을 순시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위무 격려했다.

「공 군」제 127 호<1972년 1호>   차 례

권 두 언 ……… 훈 감 신 찬 (2)

(신)(년)(사) ……… 공군 참모총장 공군대장 옥 만 호 (4)

나와 군과 조국 ……… 덕성 대 교수 지 명 관 (6)

유엔에서의 한국 ……… 서울신문 논설위원 주 영 관 (17)

명사칼람

- ▷ 나의 좌우명 ……… 서울 학원장 이 숭 녕 (26)
- ▷ 군인 정신 ……… 기독교방송국 운영 이사장 오 재 경 (27)
- ▷ 교양 인으로 ……… 연세대 문 대학장 오 화 섭 (28)
- ▷ 용기의 미덕 ……… 경희대 대학장 양 병 택 (29)
- ▷ 네 발밑을 파라 ……… 숭전 교수 안 병 욱 (30)
- ▷ 쓰레기 인간이 안되려면 이대시청 교육원장 김 은 우 (31)

<앙케이드> 지휘관의 신년설계 ……… (33)

특집: 정예공군을 향한 우 의 자세

- **창의력을 발휘하자** ……… 이 창 록 (43)
- **정신 무장** ……… 마 욱 (52)
- **정신전력 강화의 당면문제** ……… 홍 종 도 (61)
- **명령과 복종의 올바른 인식** ……… 윤 영 춘 (68)

공군 연구개발에 관한 소고 ……… 김 도 식 (74)

(신)(해)(년)(유)(감)

- • 한 해를 보내면서 ……… 박 철 규 (84)
- • 나의 가정생활을 반성한다 ……… 문 무 길 (87)
- • 나의 군인생활을 돌아본다 ……… 차 순 도 (91)

북괴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 ……… 이 종 헌 (95)

군법회의 관할관의 확인조치 ……… 정 덕 장 (101)

소련의 대 북괴정책 변천과 한국안보 ……… 강 인 덕 (107)

우리나라 국기론 ……… 편 집 실 (116)

군의 정신교육 강화책 ……… 김 갑 태 (128)

【세계 위인 순례】 링 컨 ……… (134)

항공 군사 과학

- 과학하는 항공스포츠 진흥방안 ……… 항공 대학장 김 석 환 (141)
- 구라파의 항공공업 (파리•에어쇼 참관기) ……… 홍춘표(역) (160)
- 초음속시대에 있어서의 항공의학과 그 문제점 편 집 실 (173)
- 보잉 737의 새얼굴 ……… (184)

(군)(종)(코)(너)

- 미지의 그날과 그때 ……… 유 의 웅 (193)
- 도 박 ……… 박 순 재 (195)
- 군의 정신무장과 군목활동 ……… 최 제 경 (196)

<항공실화> 동체 비상 착륙수기 ……… 조셉·스톡커 작 (202)

명동야화 ……… 김 병 로 (220)

(축) 진 급

상 : 1월 1일부로 준장으로 영예의 진급을 한○명의 장성들에게 옥만호 참모총장이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옥 총장은 이들의 진급을 축하하고 중책완수에 더욱 정진해 줄것을 당부했다.

하 : ○명의 전역장교들이 1월 31일 옥 참모총장에게 합동전역신고를 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상 : 정 규섭 주 튜시니아 대사가 2월 7일, 부임인사차 공군본부로 옥 참모총장을 예방, 환담을 나누었다.

하 : 신임 주일 한국겸임 태국 공무관 Prasert 대령이 2월 3일 공군 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이 자리에서 옥 총장은 Prasert 대령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제 2 전력 개발」을 위해 고려할 점

최근 우리는 「제2전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군력의 증강은 장비, 시설 및 물자의 증가와 병행해서, 투철한 군인정신 아래 각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이를 묶어 하나의 총체로서 조직 운용하는 무형적 기능, 즉「제2전력」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제2전력」은 장병 각자의 정신무장과 잠재력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병들의 자각과 건전한 인간관계가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된 각자의 능력은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를 통해서 부대임무 수행에 총집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전력을「극대화」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정예화」의 길이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이와같은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우리의 여건으로 볼 때, 종전의 목표수준에 만족하지 않고「최대의 성과」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 도달했다. 예를 들어서 폭탄운반차량이 부족하던 손수레로 충당하며, 6시간의 일과는 일중 무용으로 열람되고, 잉여인원의 시간을 절약해서 전투시설에 전용하는 등, 기존 관념을 초월해서 새로운 수준의 목표를 수립하여 달성해 나가야 한다.

사병들의 올바른 인식은 먼저 공군의 사명과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음에 자기 부대의 임무를 숙지해서, 각자의 직책이

[illegible]

친애하는 공군장병 및 군관 여러분!

우리들은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정예공군"의 무궁한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던 신해년도 이제 다 저물고 새로운 희망과 알찬 결실을 기약하는 임자 신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경하하며, 본관은 먼저 그동안 각 기지에서 그리고 산간벽지와 고도에서 영공방위에 진력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회고하건대 지난 1년동안은 동서간의 접근과 중공의 유엔 가입 등으로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전장병이 합심단결하여 전력의 증강과 전투대비태세의 완벽을 기하였음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70년대의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북괴의 남침준비 현황과 최근의 국제정세로 보아 우리의 안전보장은 어느 때 보다도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긴박한 정세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연말에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이와같은 비상시국하에 72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본관은 먼저 우리의 임무와 사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함을 명심하면서, 안보중심의 올바른 시국관을 확립하고 비상경계태세를 항상 견지함으로써 언제나 싸울 수 있고 또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정예공군을 이룩할 비상한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휴전 후 19년의 역사는 실로 간난과 위기로 점철되어온 투쟁의 연속이었음에도 사회 일각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경제성장에서 이룩되는 제

인의 월남안정에 따라 준전시체제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망각하고 실제로 사치와 안일에 흘러가는 경향이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 자유와 행복의 향유는 모두 우리가 생존한 연후의 문제일 것이며, 우리의 민주적 사회질서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공산주의 흉계 앞에선 오로지 생존과 승리를 위한 투쟁이 있을 뿐임을 상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국방에 전념하는 안보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올바른 세계관, 그리고 국가의 보위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하며 여하한 고해와 희생도 무릅쓰겠다는 굳센 정신자세만이 민족의 장래를 영광되게 이끌 수 있는 가장 으뜸이 되는 요소임을 우리는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처한 이 시국을 타개하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실천적 행동이 긴요한 것이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난관을 외면하거나 남의 도움에만 의존하려는 의타적인 자세나, 심지어는 이를 은폐하기조차 두려워하는 식의 패배주의는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 공군의 장병들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개인보다 국가와 민족을 보위한다는 결의로서 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주공군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실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물량적인 전력의 부족은 보유전력을 운용하는 정신적 자세와 전술적 계발로써 이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력발휘나 전투태세 강화에 저해가 되는 종래의 모든 운영방식을 과감히 전환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전력증강에 기여하는 예리한 두뇌와 용기있는 결단, 그리고 힘찬 행동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70년대의 우리세대가 오늘 흘리는 피와 땀 그리고 거룩한 희생의 대가가 번영과 승공통일의 영광에 빛나는 조국의 앞날을 기약한다는 밝은 희망으로 각자 맡은바 임무완수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하며, 밝아온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영광과 행복이 한결같이 우리의 조국과 공군 그리고 친애하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기를 기원하며, 제관들의 분투와 건승을 비는 바입니다.

—나와 군과 조국—

지 명 관

<덕성여대 교수>

○ 나는 지금 군에서 보낸 그 어느 한 순간도 내 일생에 ○
○ 서 지워버리고 싶지 않다. 그것은 ────────── ○

미국의 한가운데로

나는 여기에서 6·25 사변을 통한 나의 경험에서 느낀 것을 더듬어 올리려고 한다. 벌써 몇 해가 지나갔는가 한 달에 쉬 지난다. 인간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어느 한 토막도 잊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경험을 할 때는 회피하려고 몸부림 칠 것이라고 하여도 만일 그것을 그 사람의 일생에서 들어낸다면 그 삶 전체가 허전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 있다.

나는 1950년 7월에서 55년 7월에 제대되기까지 만으로 만 세월을 군에서 보냈다. 나는 이대로 학원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슬픔에 사로잡히곤 하였다. 그러나 나는 지금 군에서 보낸 그 어느 한 순간도 내 일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지 않다. 그것이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순간들이 였기 때문에 더욱 나는 잊어버릴 수 없는 순간들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나는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나는 그후 어떠한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충실감을 느껴 본 적이 없다. 내 군대 생활이 곧 내 조국을 위한 것이 된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 나날을 안이하게 보낼 수가 없었다.

나는 처음에 상병으로서 작전과에 근무 하였다. 주로 육군본부에서 오는 통신을 기록 하였다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 때 통신연락이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어느날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공산군의 패잔병으로 남아 있으면서 양민을 괴롭혀 온 빨치산들을 처형하는 일이 있었다. 한 수복된 지구에서 지방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처형이 있게 되었다. 나는 이 때 육군본부에서 곧 처형하지 말고 후방으로 데려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다지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전화였다.

나는 그 전화를 받자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가지고 막 처형장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 때 어떻게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산 꼭대기까지 올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바로 처형 전에 육군의 명령을 전하고는 허둥지둥 쓰러지고 말았다.

상부의 명령을 전달하여 그대로 시행되게 하겠다는 생각, 비록 적이라도 인간의 생명은 구해야 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는 긍지. 이러한 것이 당시 자는 나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군인의 긍지를 몇번이고 되뇌었다.

나중에 나는 통역장교가 되었다. 주로 인사와 군수를 담당한 고문관과 함께 일하였다. 그 때 나에게는 한가지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것은 일선 고지에 부상당한 위급한 환자를 위하여 후근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헬리콥터를 부르는 일이었다.

연락해 오면 「빨리 올려야 한다. 빨리 보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분만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피가 흐를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자도 늘을 것이 아닌가. 연락을 끝내고 제안을 마치면 내가 말한 지점을 향해서 헬리콥터가 날아간다. 나는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나와 나의 동포 군인 그리고 나의 조국. 나는 그 사이에 거의 거리를 느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다가 나는 20일 휴가를 얻어 부산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군에 들어온지 일년이 넘었지만 나는 1950년 6월 27일, 바로 공산군이 서울에 침입해 오던 그날 홀어머니를 작별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번 휴가에서 무엇보다도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하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대학 졸업에 어떻게 되는가 확인 하여야만 하였다. 시험을 보고 졸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물론 대학을 찾아가서 나는 냉랭한 대접을 만났다. 철학 사무실 안에 앉아계셔 주저고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돌아와서 학점을 따라는 것이 었다.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전선에 보내고 그래도 철회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그들에 구국을 위로해 주기보다 멸시하고 경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렬모였다. 나는 이 때 다소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요령좋게 군을 피한 사람들은 남아서 공부하고 외국 유학의 길로 떠나다는 것이 아닌가. 정직한 사람들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말로 「나와 군과 조국」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 아닐까.

나는 어서 속히 최전방에 있는 내 부대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20일 휴가를 10일간으로 단축하고 부대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떠나는 인사차 찾아간 어떤 교수 앞에서 나는 울분을 늘어 놓았다. 그 교수는 모든 것을 다 긍정으로 받아드리면서 위로하여 주었다. 그러나 막 문을 나서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한 마디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나는 젊었으면 전선으로 가겠어. 남들이 싸우면서 괴로와 하는데 어떻게 나만 편히 있겠다고 하겠는가』

나는 눈보라 치는 전선으로 되돌아 오면서 몇번이고 이 말을 마음 속에서 되풀이 하였다.

『그렇다 역시 군으로, 조국을 위하는 젊은이들 속으로 가야 한다. 더욱이 피가 끓는 동산에 운명의 미숙히 못한 내 동료가 한리곱이 오랫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닌가. 그리하에 동료들의 피가 더 흘러 내리고 있을 것이 아닌가』

내가 부대에 도착하자 나와 함께 일하던 내 고문관이 뛰어 나왔다.

『나는 네가 이렇게 빨리 올줄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다시금 눈물겹게 감격하였다. 내가 떠날 때 학교 일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 빨리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그에게 이야기 한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전선 그 혈막 속에서 다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모습도 지금 내 눈에 생생하게 떠 오른다. 인간의 운명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비극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처절 나는 이 무렵부터 종교적인 상념에 깊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1953년에 아마 있던가 생각된다. 막 휴전이 되려고하자 적의 공세가 심해졌다. 우리 부대는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 때 가벼운 수술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으나 후퇴하는 트럭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이란 왜 싸워야 하는가」

「신이 있다면 왜 이러한 처참한 역사를 방치해 두는가」

이 무렵에 나는 마침 미국의 거대한 철학자 라인홀드·니이버의 명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원죄성(原罪性)에서 인간의 온갖 비극을 찾고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인간은 오만하여 죄를 범하고 인간의 역사를 어둡게 한다」

그 책에서 읽어둔 이러한 심각들이 생소롭게 일어나는 것이었다. 나는 후퇴를 하고 인간의 비극 속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사색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나 자신에게 타이를 때 무언가 인생이 장엄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 때 나는 괴로웠다. 그리고 주위에는 참으로 많은 모순이 가득차 있었다. 그것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못되었다. 나는 다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성실할 수 있는 최대의 가능성을 찾고 싶었다. 물론 많은 실패를 거듭하였지만 나는 비교적 대과없이 그 시기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젊음 속에서 지금보다도 더 의지력이 강했던 탓인지도 모른다.

이 때 나의 마음 속에는 민족의 비극 속에서 여러 가지 상념이 피어올랐다. 이것을 나는 라인홀드·니버 교수에게 써 보냈다. 그리하여 여러 통의 서신이 오고 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67년에 나는 오랫동안 그가 가르친 뉴욕 유니온신학교에서 1년간 공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의 사색은 글과 나라가 연결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후일에 어떤 한국신학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우리의 예술에는 계승정신과 창조정신이 흐르지요. 석굴암의 불상은 일본을 한 눈으로 노려 보는 것입니다. 동해에서 신라의 평화를 침범하는 적에게 저항하는 정신이 위대한 창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민족을 위한 염원, 그리고 외적에 대한 저항이 예술로 승화되는 곳에 우리의 국가운명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이러한 입장에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도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문화 속에서 우리 사상을 모색하고 거기에서 예술과 문화를 찾아간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는 나라와 조국의 은혜를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한국문단에 있어서 글에 몸을 담았다는 것이 나의 사색의 밑바탕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시절을 나는 빈약한 것이지만 나의 사상의 요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때 느낀 리토스를 오늘도 간직하려고 하고 있다.

봉사의 뜻에서

「나라를 위하여」일할 수 있는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이다. 미국이 위대한 건국의 역사를 담을 수 있었던 것

은 자유와 민주의 나라를 신대륙에 건설하겠다는 이상주의에 불탔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먼저 있고 국가 이념은 후에 부가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이념이 국가보다 먼저 있었다. 자유가 없고 억압에 짓눌리어 있는 유럽의 구대륙을 떠나온 그들은 자기들의 꿈을 미국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미국에서 그것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인류 역사에서는 그 꿈을 실현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까지 생각하였다. 오늘 미국의 고민은 이러한 건국의 정신을 잃어가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에서도 명칭은 달랐지만 나라를 위한다는 신념이 강하게 흘러내려 왔다. 그것이 시들었을 때 그들은 언제나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20세기 초에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패기없는 모험청년, 입신출세열에 들뜬 성공청년, 인생문제에 고민하는 번민청년, 그리고 무엇에나 무관심한 무력청년 등」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 때는 「국가적 몰리상」(國家的沒理想), 「국민적 몰리상」(國民的沒理想)의 시대라고 불리었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들은 신중히 노력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천황제로 그 기강을 확립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1945년 이후 그러한 숭고한 애국이 무너졌을 때 다시 그들은 정신적인 공동(空洞)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그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제하에서는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이 우리 사이에 하나의 정신적인 기둥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것이 1945년 이후에도 상당히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어쩐지 그러한 이념의 힘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이 느껴진

다. 지금 오늘 국제정세로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는 바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 나는 가끔 나 자신을 반성해 본다. 내 생활 속에서 참으로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일한다는 일이 있는 것일까. 나 말고 남을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일하는 것이 있을까. 나는 참으로 탐욕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따로 본다면 소시민적(小市民的)인 삶이라고 하여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정신과 생활 속에서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남을 위한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이 퇴폐해 버리고 만다고 하여야 한다. 20세기 초기에 국가적인 위기에서 독립운동이 되었을 때 일본의 침략자들에 무너져 버렸던 것 처럼. 우리는 남을 위하거나 국가를 위한 애정을 가질 때만 위대한 인간일 수 있다. 나만을 위해서 살 때 나는 퇴폐해지고 남을 위해 살 때 위대한 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고자 할 때 도리어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 진다고 본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래도 봉사의 생활은 가졌던 때라고 할 수 있는 때에 있던 그 무렵이 나에게 있어서 둘도 없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그 때는 언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한 때였으니까. 그리고 이 미미한 나도 나라를 생각하고 조국 앞에 서 있다는 긍지를 느꼈을 때니까. 어떤 의미에서 남은 역을 피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짐을 지고 있다는 긍지를 느꼈으니까.

나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 때 육이오 처참한 생활을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조국이 부르는 대로 묵묵히 총을 들었

떤 사람과의 사이에는 인생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도 나는 그 때 군에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해본 것 같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 보상을 모르게 됐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내 경력에 있어서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아드린 것이 아닐까. 봉사한다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언제 그렇게 나라를 위해 산다는 충족감을 가지고 살아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나를 희생하면서 산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인내심을 길러본 적이 있었는가. 지금도 눈 내리는 길을 올라가 헬리콥터를 찾고 내 고문관에게 우리 병사들의 생활을 보이면서 어서 속히 보급을 증가시켜 달라고 호소하던 내가 눈앞에 떠오른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새벽에 가슴이 떨렸던 것도 새삼스럽게 회상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그 때 나는 나와 군과 조국 사이에 깊은 인연을 느꼈었다.

<선현의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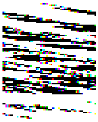
벗에 대해서는 그대를 더욱 더 사랑하도록 하게 하여서 선행하고 적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친구가 되도록 선행하여야 한다. <페올로규>

착하고 좋은 행위란 다른 사람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떠우게 하는 행위다. <마호메트>

한꺼번에 여러가지 일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하나도 착실히 일을 하지못할 것이다. <S·존슨>

유엔 에서의 한국

○ 앞으로 우리의 자주외교는 적지 않 ○
○ 은 시련을 겪어야 하며 그러한 사태 ○
○ 대비하는 적극적인 외교대책이 모색 ○
○ 되어야 할 것이다.………………… ○



주 영 관
(서울신문 논설위원)

지난 9월 22일(한국시간)에 막을 올린 제26차 「유엔」총회는 한국문제의 토의를 1년간 연기하기로 가결하였다. 금년에 한국문제를 토의해봤자 이렇다 할 해결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 이를 1년간 연기했다가 명년의 제27차 총회에서 다시 보자는 것이다. 1947년 한국문제가 처음으로 「유엔에서」 제기된 이래 그 토의가 1년간 연기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리하여 「유엔 한국 통일부흥위원단」(언커크)이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연례보고서와, 중공 등 북괴옹호세력이 제출한 두개의 결의안, 즉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안」과 「언커크해체안」은 올해 「유엔」에서 다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한국문제 토의를 1년간 연기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한 영국과 이에 동조한 우리 우방들은 한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찾기」를 위해 적십자회담을 막 개

<유엔에서의 한국>

특히 이 때 「유엔」에서의 부질없는 정쟁들은 그 뒤에 남북한의 평화의 기운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유엔」의 다수 국가들은 한반도사태에 직접의 요인이 없고 또 한국문제를 해결할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한국문제가 해마다 상정되어 냉전시대와 같은 논쟁을 벌이는데 대해 싫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한 때에 국내결에서 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고, 정국이 토의연기안을 내 놓았으니 「유엔」의 많은 나라들은 이에 동조하게 된 것이다.

「유엔」의 결과도 그러했거니와, 이 계획을 관철하는데 있어 우리 외교진의 활약도 눈부시었다. 김용식외무부장관이 이 결정을 보고 「우리 자주외교의 열매올시다」라고 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68년 이른바 「재량상정」방식, 그러니까 한국문제를 해마다 「유엔」에 자동적으로 상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재량」에 따라 상정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결했다. 그 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를 살려서 금년에는 아예 상정치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고 이 방향으로 우방국가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자주적인 판단과 끈기있는 외교활동을 통해 우리의 방침을 관철한 것이니, 가히 「자주외교의 승리」라고 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곁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 넘겨서 안 될 것이다.

「자발적 견」

68년 「자동상정」에서 「재량상정」으로 방침을 바꾼 정부는 69년과 70년의 총회가 열리기 전에도 한국문제 조속적 연기를 시도한 바 있다. 69년, 정부는 미국은 상태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워싱턴」 당국은 「아직 북괴 동조세력과의 대결에서 많은 표차로 우세할 수 있으므로 굳이하게 의제상정을 봉쇄하는 인상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의의를 표시했다. 70년에는 「유엔」의 여러대표부를 통해 한국문제 상정의 보류에 관해 소련의 의도를 타

진하였으나, 그들의 동조를 얻지 못하였다.

올해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중국의 대표권 문제, 즉 중공의 「유엔」가입문제가 「유엔」의 압도적인 관심거리로 등장하였다. 미국으로서는 「닉슨」대통령의 북경방문을 앞두고 중공문제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중공문제 토의가 한국문제토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고 염려도 했다. 한국문제에서는 공산측이 제안한 미군철수문제와 「언커크」의 해체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국으로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유엔」의 일각에서는 「유엔」의 보편주의원칙에 따라 한국·독일과 같은 분단국가의 쌍방을 다같이 「유엔」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유엔」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해 왔으므로, 한국과 북괴가 같은 자격으로 「유엔」에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의 명분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된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된다면, 일부 국가가 분단국가의 동시 가입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는데 한국과 미국은 뜻을 같이 하였다. 마침 판문점에서는 우리 적십자사의 8월 12일 제안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세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다가, 올해에도 한국문제토의에 진전이 이루어질 전망이 보이지 않자 「유엔」회원국가들 사이에는 금년에도 한국문제를 토의해야 하느냐는데 대해 회의를 갖는 경향이 보였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가 「계량설정」당위를 설득, 관철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정부는 한국문제토의의 연기를 위한 외교계획을 「가을작전」이라 이름 붙이고 이의 관철을 위한 일대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문제가 의제로 상정되려면 먼저 「유엔」운영위원회의 채택이 있어야 하고, 이어 「유엔」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외교활동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25개국을 상대로 전개되었다. 「가을작전」을 개시한 우리는 「유엔」에서 [illegible]되는 9월초순 전통적으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16개국가들과 긴밀회의를 열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 계획에 적

두 찬성이었고, 중국 대표권문제에서는 종전에 동조해 온 영국은 오래전부터 한국문제의 자동상정에 회의적인 나라였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참여국 중에서 「프랑스」가 다소 동요를 보였으나 막바지에 가서 우리에 동조하기로 돌아섰다. 우리의 설득공세는 우방국가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25개국, 나아가 제25차총회 개막당시의 「유엔」회원국인 12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토의·표결의 내용

정부가 이번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토의의 연기를 위해 은밀한 외교공작을 펴고 있는 동안, 한편에서는 한국문제 토의의 자료가 「유엔」에 제출되고 있었다. 「언커크」는 8월초 한반도정세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 이를 「우·탄트」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사무총장이 이를 총회에 보고하면 한국문제는 자동적으로 토의케 된다. 한편 북괴에 동조하는 몽고는 8월 23일 해마다 제출해 온 두 개의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하나는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과 그밖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며, 다른 하나는 「언커크」의 해체를 요구하는 결의안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한국문제토의의 연기를 추진하되, 뜻대로 안 될 때에는 총회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가 다루어질 때 이 자리에 북괴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한편 북괴는 9월 12일 외무성성명을 발표, 그들은 「유엔」의 헌장과 목적을 지지해 왔다면서 한국문제가 토의되는 자리에 그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초청되어야 한다고 우겨댔다.

예년 한국문제가 「유엔」에서 다루어지는 절차는 이러했다. 총회가 열리면 먼저 총회 운영위원회는 그해에 다루어질 의제를 채택한다. 70년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결의안은 106번째 의제로, 「언커크」해체결의안은 105번째 의제로, 그리고 「언커크」의 연례보고서는 107번째 의제로 채택되었다. 그 다음 이 3개의 의제는 모든 「유엔」회원국으로 구성된 정치위원회에서 토의된

다. 한국문제가 정치위원회에서 토의되기에 앞서서는 의례 이자리에 남북한 대표를 초청함에 관한 절차문제가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한국대표는 무조건 초청하되 북괴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 초청해야 한다는 서방측 주장이 번번히 관철되었고, 남북한 대표를 조건없이 다같이 초청하자는 북괴동조세력의 주장은 번번히 좌절되었다. 북괴를 초청하는데 그러한 조건을 붙인 것은 그들이 한국전쟁 때 「유엔」을 적대시하여서 싸웠기 때문이다. 정치위원회에서의 토의가 끝나면 한국문제는 총회로 넘겨진다. 여기서 북괴동조세력이 해마다 제출해 온 2개의 결의안은 부결되는 한편 「언커크」의 보고를 확인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유엔」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결의가 채택됨으로써 그 해의 한국문제토의가 종결되는 것이 연례행사 처럼 되어 왔다.

금년에는 총회운영위원회가 9월21일(한국시간) 한국문제의 의제상정문제를 다루었다. 우리의 전략대로 영국대표는 남북한적십자사간 회담에서 회담을 시작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회담의 성공을 위해 「유엔」에서의 부질없는 한국문제토의를 1년간 연기하자고 제안하였다.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우방국가들과 북괴에 동조하는 국가들간에 3시간에 걸친 격론이 있은 끝에 영국의 제안은 찬성 13, 반대 9, 기권 2로 통과되었다. 47년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제기된 이래, 한국문제의 토의가 연기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68년 우리가 채택한 「재량상정」방식이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며 동시에 우리 자주외교의 일대 승리라고 할만한 것이었다.

운영위원회의 이러한 건의는 26일(한국시간)「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북괴동조세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번복시키려고 반격을 시도했으나, 결국 총회는 이 건의를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하였다. 미군철수안은 찬성 68, 반대 58, 기권 22, 「언커크」해체안은 찬성 68, 반대 25, 기권 22, 그리고 「언커크」보고는 찬성 70, 반대 21, 기권 23으로 이번 총회에서 토의하지 않기로 최종적인 결정을 본 것이다. 예년같으면 한국문제가 12월까지 「유엔」에서 논의될 것이었지만, 금년에는 우리의 기습작전이 성공하여, 총회가

<유엔에서의 한국>

열린지 불과 4일만에 한국문제는 매듭이 지워진 것이다.

「유엔」과 한국의 역사

「유엔」에서 한국문제의 토의가 열리지 않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47년의 일이다. 우리가 해방을 맞은 45년의 연말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영국·소련의 3국외상회의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 한국정부의 수립을 돕게 하고 이에 한국을 최장 5년간 미국·영국·중국·소련 4개국의 신탁통치 밑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냉전 초기에 있어서의 미·소의 극심한 대립과 한국국민의 신탁통치반대 때문에 외상회의의 결정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래서 미국은 47년 한국문제를 「유엔」에 제기하여 그 해결을 꾀하게 되었다.

47년 「유엔」총회는 「유엔」에서 한국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반도 전역에서의 선거를 감시토록 했다. 그러나 북한정권과 그 배후의 소련이 이에 협력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엔」은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58년 5월 최초의 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유엔」은 곧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항해서 김일성은 곧 그들의 괴뢰정권을 선언하였다.

50년 6·25가 터지자, 「유엔」은 북괴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유엔」군을 한국에 파견. 우리와 「유엔」과의 관계는 한층 긴밀해 졌다. 그 덕분에 「유엔」은 북괴를 침략자로 낙인을 찍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침략으로부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직접 군사행동을 취해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유엔」군이 반격으로 나가고 있을 때 「유엔」총회는 10월 7일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를 통해 한반도를 통일하도록 다시금 결의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즉 「언커크」가 구성되었다. 동기의 배경으

로 「유엔」의 이 결의는 지금껏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언커크」는 해마다 한반도정세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해 왔다.

그 후 한국문제는 「유엔」에서 연례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유엔」은 해마다 채택하는 결의를 통해서 첫째, 「유엔」이 한국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음을 재확인 하고, 둘째, 민주적인 통일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유엔」감시하에 자유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북괴동조세력은 한국의 통일이 남북한의 직접 교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의 철수와 「언커크」의 해체를 요구해 왔다. 우리와 「유엔」과의 관계, 그리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기를 거부해 온 북괴의 태도에 비추어 금년 총회에서 우리가 한국문제토의의 연기를 추진한데 반해 북괴동조세력이 한국문제의 토의를 회피했다는 것은 역사의 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매년의 실질적인 문제보다도 남북한 초청이라는 절차상의 문제가 자주 중요시되어 왔다. 한국문제를 다루는 총회 정치위원회에 누구를 참석시키느냐는 문제이다. 59년의 14차 총회까지는 우리의 단독초청에 별문제없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60년의 15차총회에서 미국의 「유엔」대표 「스티븐슨」은 한국은 무조건 초청하되 북괴에 대해서만은 「유엔」이 한국문제를 다룰 권위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스티븐슨」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괴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를 지금껏 거부해 왔기 때문에 「유엔」에의 초청이 거부되었던 것이다. 「유엔」에서의 정세는 크게 변하여 이제는 남북한을 동시에 초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세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토의연기」를 추진케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유엔에서의 한국>

정세의 변화와 「유엔」대책

제26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봉쇄하고, 이를 1년간 연장토록 한 것은 그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자주적인 판단과 외교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자주외교의 일대 승리라고 할만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총회 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가 다루어지는 자리에 북괴가 초청될지도 모를 가능성을 미리 막을 수가 있었고 또한 세계가 냉전시대에서 탈피해 가고 있는 이때 한국문제가 「유엔」에서 냉전 논쟁의 재료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국 문제에 관해 「유엔」이 지금까지 채택한 여러가지 결의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우리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었다. 금년의 연기에 따라 내년에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국문제의 상정을 봉쇄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가 「유엔」에 있어서의 한국문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 보이므로 우리는 정세의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기에 신축성있게 대처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원고가 작성되고 있는 10월 25일 현재 중공의 「유엔」가입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중공의 「유엔」가입이 금년에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실현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인 바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중공의 수뇌들은 72년 5월안에 있을 「닉슨」미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한의 평화적인 분단상태를 동결함으로써 북괴의 정치적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유엔」의 일각에서는 최근 「유엔」의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독일과 같은 분단국가의 쌍방이 다같이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우·탄트」사무총장 자신 25차 총회에서는 분단국가 쌍방의 「유엔」동시가입이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같은 분단국가인 독일

의 경우, 서독은 서부「베를린」문제에 관해 동독과 타협되어 이루어지면 동·서독의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우리의 명분은 큰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한국과 독일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 특히 북괴는 6·25 때 침략을 자행하여 국제사회에서「침략자」의 낙인이 찍혀 있고 지금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여 북괴의「유엔」가입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명분을 살리느냐 현실과 타협하느냐는 중대한 결단에 직면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남북한의 동시 가입문제가 제기되기에 앞서 머지않아「유엔」에서 한국문제의 토의가 의외로 결정된다면 남북한 동시·무조건초청문제가 제기될지 모른다. 그러할 때에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그런 우리는「유엔」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되지 않도록 힘쓰자는 것은 결코 우리와「유엔」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문제에 관한「유엔」의 지금까지의 결의는 계속 유효하며 궁극적인 통일은「유엔」과의 협조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용식외무장관이 한국통일에 관한 3단계 조치 즉 제1단계에서 인도적인 교류를, 제2단계에서 비정치적인 경제·문화교류, 그리고 제3단계에서 정치적인 통일을 모색하는데 있어, 특히 제3단계는 북괴가「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북괴는「유엔」에서 한국문제가 다루어지는 자리에 그들이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통일문제는 남북한의 직접협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겨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적십자회담을 하루 속히 정치협상으로 끌고가서 한국문제를「유엔」과 단절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금년의「유엔」외교를 무난히 넘기는 데는 성공했으나, 앞으로 우리의 자주외교는 적지 않은 시련을 겪어야 하며 그러한 때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외교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값있는 삶을

—명사 칼럼—

1. 나의 좌우명
2. 군인 정신
3. 교양인으로
4. 용기의 미덕
5. 네 발밑을 파라
6. 쓰레기 인간이 안 되려면

나의 좌우명

이 숭 녕

<서울대학원장>

내가 일생 학문하는 세월에서 느낀 것은 「큰 눈을 갖게 하고 외길을 달려라」하는 좌우명이다. 젊어서 재주가 있다고 주위에서 칭찬을 받던 수재들이 그 일생의 업적을 돌이켜 가서. 거슬러 돼 보면 이렇다고 할 값있는 일은 못하고 일생을 허송하는 예를 많이 보게 됐다.

재주가 있으니, 처음에 공부를 해도 우등을 하고 무엇을 손대어 보아도 남보다 쉽게 보람을 낸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게 되는데, 어느 것이 없는듯이 느껴서, 여구 먹지는 대로 해본다. 그러다가 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평범한 일꾼이 그리고 마는

뿐이다.

학도에게 이런 과제를 주려는 학생 때에 「성과향상」이라고 하였다. 이런 「성과향상」에 있어서 학자에게는 어느 것도 잘 하는 듯하나, 따지고 보면 하나도 뛰어남이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무식한 제습을 복하게 하는 백과사전 편자가 되는 것에서서. 못했는 자의 운명은 벗게 못하고 만다. 철학도, 문학도, 어학도, 미술도, 음악도 안다고 외치더라. 하나도 무엇한 학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젊어서부터 이것을 경계해 온 터이다. 한 학문만 가지고 일생.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외고 눈떴. 세상에는 운명을 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좋다 가서 성공한다고 믿어 왔 일생 이러한 외시정을 가지고 살아온 셈이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자식은 가지고 권한다. 「한 눈을 팔지 말고 외길을 걸어라」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재주보다 근기와 성실에 이긴다」라고.

나도 재주가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믿고 있기는 하나, 그 재주라는 것이 때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기 쉬운 것이다. 나는 재주가 도리어 화근이 되고, 신세를 망치는 경우를 보아 왔다. 재주보다는 「근기와 성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아니랴. 재주를 믿지 말고 일생 근기와 성실로 노력하면 누구나가 다 성공할 것이다.

「한 눈을 팔지 말고 외길을 걸어라」

「재주보다 근기와 성실에 이긴다.」

이것이 내 좌우명인데, 내 일생의 체험과 노력에서 얻은 것이다.

군 인 정 신

오 재 경

<기독교방송국 운영이사장>

나는 군인생활을 못해 보았다. 그러나 나의 학창시절의 철저한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정신에 어떠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만은 가를 절실하게 생각한다.

국의 고개를 넘기 위한 훈계할 충격의 모습을 연상한다. 적은 전투수기 뒤

해 눈알의 고구를 경험해야만 했다. 적의 총알은 비내리는 듯 심하다. 이를 공략하기 위해 분대원은 서로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유리한 자세를 찾아 총신에 몸을 던지고 있다. 분대장은 조의 행렬을 살핀다. 그리고 분대원에 이름을 불러 적당한 지점마다 개별적인 전진을 하도록 명령을 한다. 그래 가까이 도달했다. 동료 장교의 세가 온 것이다. 분대장은 분대원 전원에게 일제히 일어나 공격하라고 호령한다. 그리고 일어 나간다. 함성의 물결이다. 그리고 목표점이 열어진다. 우리에게도 희생자는 있었다. 그러나 적의 고지는 이제 우리의 것이다. 이제서도 다시 새로운 전투에 대한 준비가 따르게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다시 보다 많은 적을 무찌르기 위해 전진하는 것이다.

학창시절의 군사훈련은 나에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의 삶의 한계를 배우게 주었다. 사회에 이제 나는, 그리고 오늘도를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그리고 군사훈련에서는 이러한 삶이 결집 구체 모두의 것이 된 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것이 되는 것에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해는 나의 삶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나는 내가 맡은 일 그 일에 모든 것을 다해 나의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신조가 나로 하여금 하루에서 살아 남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오히려 맡은 다 일, 그것이 어려운 것이든 간에 그것을 최선의 것으로 가꾸어 놓을 때 우리의 삶은 확실히 보람된 것이 되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은 고된 일이 되었다. 그 누구나 오늘의 삶을 곧바로 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행조를 마련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독수는 견디어라도 하고, 해서 안 될 일은 죽음을 준다해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군인정신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 양 인 으로

조 화 섭
<군사학 문과대학장>

우리는 이제금 모든 일을 다 혼자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아주 조그마한 일 하나에 할 능력이 없다고 생

파하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이 두 연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적어도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개그 멀은 충실히 하되 교양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장교들입니다. 장교는 지도적 위치에 놓여 있읍니다. 군인은 일반 사회인과는 달리 투철한 정신력이 요청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장교는 더 한층 강력한 정신력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총기를 다루고 작전을 하고 규칙을 엄수하는 것은 군인에게 져야 할 기본 임무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장교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것은 교양일 것입니다. 교양은 인격이라는 말로 고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인격이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협의의 뜻과 다르게 쓰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교양이라는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교양은 무엇이겠읍니까? 한 마디로 사람됨을 말한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항용 지식과 교양을 구별지어 봅니다만 장교로서의 지식이란 군인이 알아야 할 여러가지 일들일 것입니다. 장교로서의 교양이란 지도력이라고나 할까요? 지도는 지식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 교양이 따를 때 인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토방위를 맡고 계신 여러분은 장교로서의 교양(인격)으로 부하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역량을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은 군사기술 이외에 광범위한 인문과학의 지식을 토대로 한 인격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로써 풍부한 정서를 지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메마르고 편견된 지식을 벗어서 폭넓고 멋이 있는 교양(인격)을 지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보다 인간적인 사람으로 성장되고 단련될 때 조국은 든든히 다져진 대지 위에 서는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용 기 의 미 덕

양 병 택
<경희대 사대학장>

미국 작가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은 노어부(老漁夫) 「샌티아고」인데 그는 영웅적인 위대성을 지니고 있다. 그도 84일 동안이나 고기 한 마

리 낚지 못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끝내 바다로 나간다. 같이 배를 타고 다니던 소년도 그의 양친의 반대로 가끔 도와주기는 하나, 다른 배에 옮겨가고 만다. 아내와도 예전에 사별하여 이제는 정말 고독한 몸이다. 몸에는 노쇠의 모습이 뚜렷하다. 그러나 눈만은 바다와 같은 색으로 생생하며 불굴의 빛을 발하고 있다.

「오늘은 운이 좋다」고 중얼거리며 그는 혼자서 바다로 나가자 큰 고기를 낚는다. 그는 특별한 기교와 초인적(超人的)인 인내력으로 용감무쌍하게 그 큰 고기와 사흘 동안의 사투(死鬪)를 전개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과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끈질긴 정신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싸운다. 이처럼 노인은 지난 날의 자신(自信)과 용기를 되찾아 일으키면서 마침내 드디어 그 대어(大魚)를 정복한다.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의 습격을 받는다. 아무리 격퇴하여도 무리를 지어 덤벼든다. 노인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은 육체가 멸망하는 수가 있어도 패배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믿기에 노인은 칼이며 곤봉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운다. 결국 상어떼에 다 뜯긴 채 항구로 되돌아 온다.

노인은 이 처절한 속에서 인간 최고(最高)의 도덕가치인 용기를 발견하고 나아가서도 사랑·협동·상호의존(相互依存) 등의 실제적 윤리가치를 확인한다. 노인은 단단한 자신과 굳은 신념에서 불굴, 불요의 정신을 발휘하여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 줌에 우리에게 결핍되고 있는 「용기의 미덕」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이 아쉽다.

네 할 말을 하라

안 병 욱

<숭전대 교수>

「네 할 일을 하라. 저기에 밝은 별들이 있으리라.」 시인(詩人) 괴테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밝은 빛이 솟게 하라. 네가 서 있는 자리

해서 많은 얼굴에 나서 보라. 네가 세웠는 탑을 축복과 장엄의 몫으로 만들라. 사람은 저마다 자기다운 얼굴이 있고 제다운 빛이 있고, 저다운 노래가 있다. 저마다 정성껏 제 천분을 드러내자. 저다운 표현을 풍부하고 자기다운 노래를 부르자. 사람은 각각 제 천분을 지닌다.

우리는 제 천분을 바로 알고 정성껏 키우자. 산 속의 풀 틈에서 웃는 일년초은 생물에 보태고 향기서 큰 세계를 부수는 밀림 목표가 되듯이 나의 천분을 날마다 기르고 달마다 키워서 저마다 얼굴과 빛을 완하게 하자. 저마다 가슴 속에 높은 뜻을 지니자. 빛을 구해서 높은 곳을 찾아서, 깊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전진하는 생명이 되자. 생명(生命)은 젊을수록 아름답고 힘차다.

젊은 생명일수록 성장(成長)하고 비약하고 전진한다. 미래를 꿈꾸고 창조(創造)를 노래하고 전진을 맹세하고 노력(努力)을 고장에로 의지하는 젊은 생명이 되자. 마음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여 역사(歷史)의 소리를 들어라.

한국의 역사는 사람을 부르고 있다.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 총명(聰明)하고 책임감(責任感) 있는 창조적(創造的) 엘리트를 부르고 있다. 무능은 물러가도 정말 훌륭한 사람은 오라 소리쳐 부른다.

우리의 역사는 인물을 찾고 있다. 역사의 찬란한 부르짖음에 응답(應答)해 응답할 수 있는 창조적 인물이 되자! 위하여 목표를 힘을 기르고 실력을 쌓자. 하루하루를 새로운 하루, 전진하는 하루, 보람 있는 하루로 만들자.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 한국사람으로 한국에 태어난 이상, 한국사회의 보람과 보람을 주는 자국을 남겨놓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마다 높은 뜻을 간직하고 정성껏 전진하는 젊은이가 되자.

쓰레기 인간이 안 되려면

김 은 우

<이대 사범대교육원장>

요즘 학생들은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같은 사람이 되기 쉽다. 인문과 같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기 쉽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요사이의 흔한 인물이 되면

나서 급하게 많아지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지식이나 기술정보나 모든 생활정보, 그리고 아카데믹한 학문지식까지도 인플레이션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바뀌며 갈수록 더 새로 발전된 기술과 지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한눈을 팔게 되면 벌써 그 사람은 구식화되고 진부한 인물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는 오랜 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됐었는데 오늘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일체 몰라 새롭게 젊은이들에게 역정이나 놓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경험을 가졌더라도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새 방법으로 새 공부를 한 소학생은 묵은 방법으로 그 전의 지식을 배운 중학생을 구식인이라고 놀려 놓는 시대가 됐다.

아무리 「컴퓨터」가 새로운 좋고 정밀한 최신 전자 기계라 하더라도 자꾸 새로와지는 계산과 창작과 판단을 해 나르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늙은 「데이터」나 묵은 「엔포메이션」등은 쓰레기가 「컴퓨터」속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사이에서는 「컴퓨터」에도 쓰레기를 넣으면 게서 나오는 것은 쓰레기 밖에 없다고 해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너무 자기가 과거에 배운 지식만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사람의 Life Cycle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 번 배운 것으로 10년은 써먹고 살았지만 이제와서는 3년, 아니 1년도 못간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교육(終身敎育)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게 되었다.

배우는 일이 이제는 교양이나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생존을 계속해 나가는데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일생 배우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앞날은 배운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세상이 오지만 배우기를 중단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설문

지휘관의 신년 설계

◆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발전을 기약하는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 보다 정예한 군이 되게 위한 각 부대 지휘관들의 신년 포부를 들어본다. ◆

(1) 신년도 부대운영 계획은?

(2) 공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하고싶은 말

(3) 군민 유대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은?

(4)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군 기강 쇄신을 위한 계획

3967부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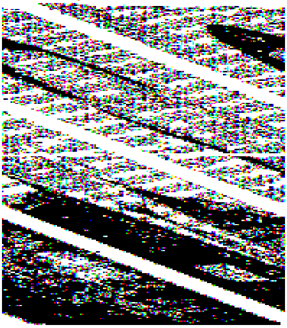
1) 인화단결을 구심점으로 체질을 다지는 해(?)에 목표를 위한 정신전력을 배양하여 정예공군으로서 전력의 극대화를 이룩해서 조종사 양성에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2) 전력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정비사의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나 결과에만 힘 쓸 것이 아니라 정비사 자기에게 맡겨진 조그마한 것 사소한 업무도 착실히 해나가며 해결해 나가는 의욕적인 자세, 역시 임무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임무수행을 해야 능력을 키우는데 좋은 성과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확신합니다.

3) 현대전은 총력전이라 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제지의 협조없이는 전쟁의 승리는 생각할 수도 없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금 같은 작년도에 이어 신년도에는 대민 계몽활동을 더욱 강화하

의 해안지구 주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이 지역 각 기관장 및 원로인사들과 비공식 민 관 협동 체제 상호 지원협조를 실시하여 대민 봉사와 대민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4) 복지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청결한 풍토를 조성하여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3000부대장

1. 가.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여 각종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1) 실전 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원 전투요원으로 정예화 시킨다.

(2) 항공기 및 지원장비의 가동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출격능력을 증가시킨다.

(3) 각종 지원시설을 신속 보수 및 개량화하여 적 기습으로부터의 생존능력을 보장한다.

(4) 위반 취약지역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전력 손실을 억제한다.

(5) 기지 자력갱을 모두 활용하여 효과적인 사태지원활동을 위한 강화훈련을 실시한다.

나. 정신전력을 강화하여 정병강군의 기틀을 조성한다.

다. 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고도의 전력효율을 기한다.

2. 가. 모든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 전투력화하여 전투태세의 완전을 기한다.

나. 승공이념의 철저로 자부심 있는 군인정신과 군 기본자세의

정립.

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인상을 정착 시키고 장병 상호간 일치단결과 군 기강을 확립

라. 기술군으로서 기술연마와 전문성을 길러 국민의 군대로서 책임을 다한다.

3. 가. 대민 지원활동 강화 및 지원사업의 증대

나. 지역사회 개발과 불우이웃 선도등 위한 기관 운영 및 지원

다. 홍보 및 정훈활동의 강화로 군민 상호간에 신뢰도 증진

4. 가. 장병 상호간의 이해도 증진

나. 군기순찰 강화와 계급선도로 군 기본자세 확립

다. 여가 선용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보와 선용

라. 하사관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3763부대장

1) 목표달성에 좋은 계획보다도 하나하나의 계획자체는 큰 빛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큰 힘을 얻 수 있고 실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계획을 중심으로 부대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2) 전력증강이라고 하면 흔히 장비의 현대화나 병력의 증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런것은 보다 고차원인 면에서 정책적으로 다룰 문제이고 오히려 현재 보유하는 장비와 모든 인원 및 장비를 최고도로 훈련하고 정비하여 질적으로 강인하고 우수하며 어떤 상황에 대처하더라도 이를 능히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고도로 정예화된 정신전력을 확보함으로서 전력증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3) 올해 지지결연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종래 예방에 의한 피동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성 있게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공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각 단 보유의 [illegible] 최대로 활용하여 지지결연 대상자도 저명층의 다수 인사를 위주로 하여 폭 넓게 공군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게 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단일종목 체육경기를 자체로 생각합니다. 배구 또는 탁구 종목 체육대회로 인한 경비의 낭비와 커다란 임무수행상의 지장을 배제하여 보다 효과적인 군인 [illegible]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장병들의 체력 향상과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illegible]을 구성하여 친선과 [illegible]를 목표로 중요 [illegible] 계획입니다.

3) 두려운 선물과 독직, 그리고 강제 기부금인데 이러한 것만으로 사기를 진작시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두 나라 실정으로는 예산 부족의 사기진작은 [illegible] 수 없이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며 그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illegible]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사기진작과 동시 군기강 확립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병영생활에서의 고질적인 [illegible] 거리든가 [illegible] 의한 부당한 사적 제재 등을 철저히 시정, 명랑한 병영생활의 분위기 [illegible] 나가게 할 계획입니다.

5692부대장

1) 가. 자체 파악되고 있는 애로 및 문제점의 해결주 해결

나. 임무의 수행에서 문제에 대한 [illegible]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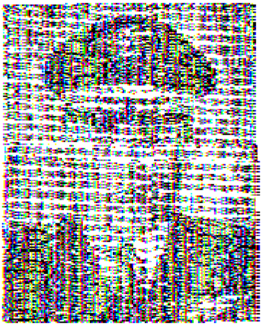
다. 부하의 애로를 해결하는 [illegible] 강구

2) 장병 각자가 같은 [illegible] 이해를 바랄 뿐 아니라 조금이

다스 계속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가 처해있는 시대적 사명감과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하여는 원활한 상하 의사전달로 일체감이 형성되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하여는 상관이 부하의 고충, 고뇌를 자기의 고락, 고통과 같이 느끼며 솔선 수범하여야 할 것임.

3) 군인은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우대를 강화하는 길이라 생각하여 그 위에 더 좋은 계획은 없음.

4) 계획과 자신이 결심의 현장에 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쉬는데 몸담아 되는 일을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개선이 안되는 것은 그 이유를 밝혀주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재향군인회의 계획임.



비행대교장

1) 조종 비행훈련에 만전을 기하여 작전 비례관계에 있는 조종사 인력 보강과 강화 개선할 것이다. 특히 비행훈련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지휘관 여러분의 진지한 협조 계시는 물론 지휘관이 솔선하여 정직한 힘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부대운영을 도모할 것이다.

2) 공군이 핵심전력인 조종사 양성에 있어서 결여 현 양성체계를 해야하기 보다 실제 중점을 둔 교육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있어서는 오직 전시대비를 위한 교육훈련이 가장 귀중한 만큼 총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3) 주에촌에 대한 대민 무료진료와 순회 영화상영 농번기에 따른 노동력 지원 등 그 대민 지원사업과 장군 주최에 대한 각종 친목경공으로서 군 민간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4) 장병들의 자율 체육활동을 널리 권장 장려하고 각종 영농사업을 통한 사병들의 부식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정기적인 휴문공연을 개최하고 면회 장병의 가족을 위한 가족면회소를 운영해서 장병들의 복지 및 사기진작을 도모할 것이다.

군기교육대를 계속 운영하여 신상필벌로서 다스리되 처벌위주인 징벌이나 단속보다는 계몽적이고 반복적으로 생활화, 습성화되도록 현실적인 군기확립을 위한 루트들을 조성토록 할 것이다.

특히 분대장, 소대장급 요원에 대한 집중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군기확립은 물론 지휘통솔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8305부대장

1) 임자(壬子)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30에 노력해서 공군 제1의 부대를 건설"하겠다.

특히 작전면에서 예상되는 어떠한 적기의 침투도 추적이 이를 불허, 격파할 수 있는 동시 작전능력의 향상과 장비의 완전가동 및 훈련, 탄약, 식량 등 기본재원분야를 확보함으로써 작전지원체제를 확립하겠다.

또한 장병들의 과학적인 인사관리와 적절한 배치를 도모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지역적으로 분산된 각 단위 특수성에 비추어 보다 복지 전투능력 기반에 의거한 각 기지의 요새화와 복지시설을 확장 및 활용하여 사기드의 가족화를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우리 지도적인 면에서 연사 유사시에 자동적으로 전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기반성 있는 완벽한 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최고도 전투 능력을 조직하는

G/P 사이트의 통제와 운영 및 확장과 각 계처의 기타시설확장과 시공하다.

3) 당 단의 인근 학교에 후원에 대한,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물건의 지원과 학교, 영화, 이발, 장비지원 등을 계속할 것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백령도 및 제주도의 친선학원, 외삼학원, 그리고 광주의 동호학원에 이어 각 사이트마다 한 개의 학원을 운영토록 추진하여 불우아동에 대한 학업기회의 제공 및 실업교육의 시행에 의한 애국심 고취로서 조국근대화의 방공전선 구축에 전력하겠다.

4) 우리 장병들의 급식개선 및 내무반 환경을 향상시켜 어떠한 격무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건전한 정신자세를 갖게 하며 이러한 일에서는 어떠한 제도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체질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군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정신교육 및 군기순찰을 강화하며 소규모의 세부적 순시 및 정훈교육으로 사고의 미연방지에 힘써야 하겠다.

기술교육단장

1) 올바른 정신과 실질적인 능력을 기르는 동시 능동적인 임무수행의 원칙과 요령을 체득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즉 교육훈련계획은 정비 보강하여 우선 기본군사훈련 중, 유격훈련, 수색훈련 등을 강화하는 한편 현대화 공군에 부응하는 각종 실정에 대한 기술 지식에 박차를 가하고 기지방어 훈련과 태권도무술 훈련 등 정예 공군이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지금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교내 유일한 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실력을 제고시켜 배출키 하며 공군의 기술역군을 배출하는데 전력할 것이다.

2) 공군의 기간요원은 체력적인 지력(강의, 문자 등)과 능력적인

관리(정신, 체중 등)에 더욱더 유념해야 되는데 유형적인 전력증강은 예산 및 군원의 제한으로 생각 같은 배양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예숙 정신 및 기량에 강력한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전력증강에 기여해야 하며 교육훈련의 목표와 방침도 여기에 집중되야 할 것이다.

3) 국민의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교육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군대가 되도록 하며 일체의 민폐를 근절하여 장병 모두가 예의 바르고 친절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노력하는 한편 모든 가호가족성인 군 일원들을 위해서 민간기관과 단위부대가 적극 협조하는 대민지원과 각종 대민봉사활동, 위문활동 등은 적극 지원하겠다.

4) 올바른 군인상은 올바른 사회생활과 개인발전으로 이룩되어 나간다는 것을 예서 체득시켜 실천케 함으로써 군생활과 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풍을 조성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계속적으로 교도훈련 및 부대시설을 추진하고 각종 오락시설, 운동시설과 독서시설을 또한 구비하겠다. 그리고 엄정한 군기확립책으로서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고예방책으로서 군기확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관련 참모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여 사건을 철저 조치하는 본 계획을 계속 시행하겠으며 또한 자체 검열활동을 강화하여 지휘관님 군기 관계 관련을 이 계획 확인하고 지켜나도록 하겠다.

5436부대장

1) 급변하는 정세, 발전되어 가고 있는 사회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일도 하여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결여공군은 우리의 지상목표로 하는 만큼 세계상황에 부응하는 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체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기술군으로서 손색없는 인적 요소의 자질 계발과 그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보다는 질적인 우수성을 견지하여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신년에는 통신전자 능력의 극대화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2) 자주국방을 위한 공군력 증강의 필요성은 많이 논의되어 왔고 계속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제는 우리 공군에도 확충(擴充)된 지휘통제 체제(Positive Command and Control)를 위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군 민 상호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있어서 첫째, 적극적인 입장으로서는 대민지원, 새마을운동 참여, 기타 생활환경의 정화 및 민간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군에 대한 인식을 항상 새롭게 하여 주어야 하겠고 둘째, 소극적인 방법으로서는 군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4) 병영생활에서 비록 주어진 여건이 만족스러운 상태라고는 할 수 없으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 등의 의, 식, 주 문제를 최선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고 제반 복지시설을 개선하여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 바탕을 마련해주는 한편 장병 각자에게는 주어진 임무를 강조하여 나아가겠다.

G52부대장

1) 수도권 방위의 일환으로 전 병력 전투화

가. 전장병에 대한 각개 및 집단 전투훈련을 일일 일과로 편성 운영하고

나. 각 형태별 기지방어 훈련의 주기적인 실시로 도심지에서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정신적 이완

을 방지하고 항상 본인의 궁극의 사명인 전투태세를 유지, 적의 도발에 대비한다.

2) 중대 일체감의 형성은 곧 전군생활에서의 필연 우선을 원칙으로 한 생의 하고에 정확한 전달과 업적으로 이어져 실천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상부장교의 지원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구성원은 사병에 대하여는 항상 정확히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설계 및 인적관리를 수립 운영한다.

3) 서울시와 협조하여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구도인 교가 [illegible]의 공공시설을 미관화고 서로 하여금 아파트등 건립토록 추진함과 동시에 영외생활의 불편거주로 유사시의 긴급동원과 부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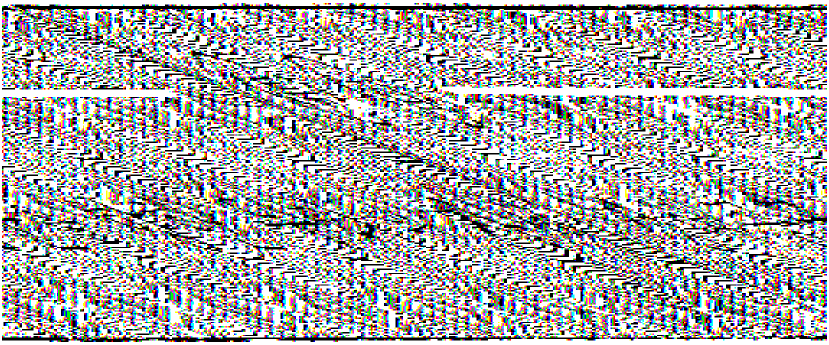
4) 인접 전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조경 미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명랑하고 효율적인 병영생활을 이뤄토록 하며 현재 실천중인 군 기강 확립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Time Table에 의거한 목표를 설정 운영하여 전장병으로 하여금 투철한 군인정신 아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군인이 되게 한다.

<생활의 교훈>

그날 그날의 일과중에 무엇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라. <에머슨>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영국 속담>

그대가 친절하다면 남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고 그대가 법률에 있다면 그 행동이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톨스토이>



창의력을 발휘하자

이 창 록
<전우신문 논설위원>

…세계 각국의 공군 현대화 경쟁은 치열하다. 이…
…대열에서 우리만이 낙오자가 될 수 없다. 남보다…
…먼저 창의력을 발휘해서 앞장서야 하겠다. …

한 시대의 군사정세를 좌우하는 큰 요소 중에서 군사기술(軍事技術)의 변천을 소외할 수가 없다. 어느 면에서 보면 군사기술의 진전에 따라 그 시대의 군사 정세가 판결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 가장 두드러진 예가 핵무기(核武器)의 실전단계와 더우기 극대화(極大化)되고 있는 현하의 군사정세라고 하겠다.

최근 중공(中共)이 유엔총회의 표결에서 회원국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자유중국대신 유엔 가입이 가능해진 것도 따지고 보면 핵력(核力)에 의존함이 절대적이었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중공이 중거리 탄도탄(中距離彈道彈)의 실전단계까지 핵무기 보유가 불가능했다면 그만한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8억

의 인적자원과 그 훈련상 미흡 및 지휘자원 등 무시못할 국력 요소가 비결될 것도 사실이겠으나 무엇보다도 《핵 이빨》을 갖추고 「아시아」및 세계권에서 반란봉만을 노리고 있다고 하여 원에서 고립이 들이던 중공으로 인한 흔쟁이 솟구 않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저자의 근본 이유였다고 한다. 이를 뒤집어, 중공에 보유하는 정도의 《핵력(核力)》을 자유중국에 보유했던들 탈출력으로 충실한 회원을 몰아낸다는 불행한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군사력(군사기술을 포함한)은 일국의 국운(國運)을 좌우하는 것이니 군인된 우리들은 국군의 군사적 충실에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군(空軍)의 전력은 현대전에 주축이며 중동(中東)4차 《10월전쟁》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공군력의 우열(優劣)이 곧 전세를 결정짓는 것임을 볼 때에 이 군의 주체가 된 《창의력을 발휘하여 정예공군 육성에 이바지하자》는 명소의 구호는 곧 우리의 자주국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는 것이라고 보겠다.

I. 공군전력 격차와 전쟁심리

전의력(戰意力)인 전쟁심리는 국민 전체의 전쟁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을 말하는 것이며 일의력(戰意力)인 전쟁심리는 전장(戰場)에서의 전투요원에 겪는 심리적 영향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여러 요인중에서도 무기의 질차(質差)가 가져오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사실 전투간에 있어서의 무기의 우열은 곧 사기(士氣)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이 사실은 공중전(空中戰)을 위주로 하는 공군의 경우는 거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 즉, 항공기의 성능이 적보다 우수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자신(自信)과 여유, 그 반대로 적보다 성능 나쁜 항공기로 싸워야 하는 경우의 불안감 및 초조감과의 차이에는 전장의 승부를 미리 평가할 수 있는 마력이 숨어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 공히 항공기 개발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우린 이유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 노력의 성과는 곧 제2차 세계대전에

서 한 톤어치의 어느 누구도 없이 평가되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전쟁은 진주만(眞珠灣)의 공중기습에서 시작되어 히로시마(廣島)의 원자탄 투하로 막을 내린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항공세력의 소장(消長)이 승패의 분류를 가름한 일전이었다.

일본 해군의 전설적인 명제독(名提督)으로 기록된 「야마모또소이로꾸」(山本五十六) 제독은 그 자신이 해군출신이면서도 당시 일본 해군 전략을 대표했던 거함거포(巨艦巨砲)주의를 배격하고 해전(海戰)에서도 항공세력을 주구 주장했었다. 이 주장이 일본 대본영(日本大本營)에 먹어들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해사평론가도 있다. 사실, 일본은 미국의 공군력에 패전하였다. 해상에서, 섬에서, 일본군의 수 많은 장병이 항공기를 목마르게 기다리며 백골이 되었다. 공군력을 가볍게 보았던 군국주의(軍國主義)의 처참한 말로가 바로 일본의 패전이었다.

일본 본토의 국민들은 신성불가침이라고 자랑하던 후지산(富士山)을 턱에 걸고 제비처럼 난무하는 미공제기(美空製機)의 B29의 공습을 당하면서부터 패전을 의식하게 시작했다. 「루손」군도(群島)와 「마샬」군도의 상공 부대들도 하늘을 덮는 대공군기를 보면 머리부터 처박고 두내지 꼴이 되었다. 이른바 무적황군(無敵皇軍)도 무기의 열세하에서는 어쩌없이 자결(自決)으로 시세가 덮어지게 했다.

1967년 6월의 중동 <6일 전쟁>에서 「아랍」연합군이 참패를 당한 최대 원인도 「아랍」공군의 기술 미숙과 파괴소홀이었으며 「이스라엘」군의 승리 역시 그 절에 공군의 뛰어난 기술과 치밀한 기습작전의 경이적인 성공에 의한 것이었다. 숫적으로 우세한 「아랍」제 육군은 유리한 조건하에 있으면서도 「시나이」반도를 제주해 갔던 것이다. 이 <6일 전쟁>은 현대전에서 공군 우세가 전세 전반을 결정짓는다는 생생한 교훈을 우리의 뇌리에 새겨 둔다.

2. 우리공군과 북괴공군.

<6일 전쟁>은 결코 허술하게 보아넘길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오랜 숙적을 대치하여 서로를 노리고 있듯이 우리의 숙적인 북괴공군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괴군이 <6·25>와 같은 재침으로 나올 때, 그 기습의 양상은 1950년 당시와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는 추리는 군인 아닌 일반시민들 간에도 회자되고 있다.

즉, 휴전 후 재군비강화에 광분해 온 북괴군은 우선 공군기습을 가해 올 것이라는 추측이다. <6·25>당시는 <탱크>를 앞세운 지상군의 전면공세로 나온 북괴군이었으나 재침의 경우는 우리의 주요 군사시설, 주요 산업시설 주요 교통망 등을 강타하는 공중기습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 추측은 오늘날 공공연한 상식으로 되어 번지고 있으며, 군 또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터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측이 나올만큼 북괴공군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전략연구소(戰略研究所)의 71년도 군사「밸런스」 보고에 따르면 북괴공군의 현 유세력은 다음과 같다.

◇ 북괴공군 총병력 ······ 3만명
◇ 전투용 항공기 ······ 5백30대
◇ 「일류신」 경폭격기 ······ 70대
◇ 「미그」 15형전투폭격기 ······ 60대
◇ 「미그」 21형요격기 ······ 90대
◇ 「미그」 19형요격기 ······ 20대
◇ 각종 수송기 ······ 약 30
◇ 「야크」 연습기 등 ······ 70대
◇ 「헬리콥터」 ······ 20대

이밖에 미공식 확인이긴 하지만 최신형으로 알려진 「미그」23등의 일부가 도입되어 있다고 한다. <6·25>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규모공군에다 최근의 빈번한 군사정보는 북괴공군의 전진기지가 휴전선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교묘하게 위장된 공군기지는 거의가 지하격납고(地下格納庫) 및 수리공장 등 부속시설을 지하화하는 등 북괴공군의 현유세력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비하는 우리 공군의 현유세력은 F-4「팬텀」비행단 창설 등 점차 과히 박차를 가할 수 있지만 그 대수에 있어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어서 공군 증강은 비단 공군자체만의 숙제가 아니라 자주국방실현 최대 과제이자 전 국민의 절실한 염원이 아닐 수 없다.

필자 자신도 우리 공군의 시급한 증강을 염원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일천한 군사상식 정도로 정책론을 운운함은 주제넘어 보일지 모르나 얼마전(前) 어떤 기회가 있어 제○○전투비행단을 부대방문 했을 때, 비행단장에게 평소부터 알고 싶었던 몇가지를 물어본 일이 있었다. 그 때의 대화 일부를 소개해 본다.

필자 「우리 공군만으로 전쟁억제는 가능합니까?」

단장 「대개 ○○% 정도라고 봐야 할겁니다.」

필자 「그 공백은 어떻게 보충하려는 겁니까?」

단장 「일본에 기지를 둔 미 제5공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필자 「공군은 24시간의 출격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단장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만피트 상공에 출입하는 초계비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자 「서울은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운데 <5분전쟁>식으로 공군기습 받을 염려는 없습니까?」

단장 「레이다가 한반도 뿐 아니라 중국 동북일부까지 커버하고 있으니 기습은 불가능합니다.」

필자「우리공군과 북괴공군을 비교하면 전투기술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지요?」
안장「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비행기술과 전투기술은 세계 톱입니다.」
필자「북괴공군은 기지가 지하로 들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군사시설은 대부분 지상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안장「별로 걱정은 없습니다.」

배정단장의 답변은 자신만만했다. 미 제5공군의 지원하에 섬멸작전에는 문제들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의 마음은 흐뭇하며,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장과의 대화내용을 어디엔가 발표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두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그 하나는 언제까지 미 제5공군의 비호하에 안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미 제5공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괴공군 배후에도 소련과 중공의 공군지원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과 더불어 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일본의 항공자위대 세력이 국산전투기(國産戰鬪機)에 의해 증강되고 있으며, 이미「아시아」최강의 성능과 대수를 자랑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우리의 현실정과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로 증강되고 있는<일본>에 비해, 목하 추진중인 제5차 경제개획으로 인식 공군 현대화에 치중하고 있다는 바 우리는 이 동안의 비호에서 하루 속히 탈피하여 독자적인 공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금석을 통과해야만 한다.

앞서 인용한 ○○비행단장과의 대화를 좀더 보충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도 있었다.

즉, 미 제5공군과의 연합작전을 하게 되는 우리 공군의 주임무는 북괴공군의 지상 레이다를 격파하는 것이며, 반격은 미 제5공군이 맡게 된다는 것이었다. 북괴공군측에는 전폭격기 등 공격용 항공기가 있는데 우리공군에는 왜 폭격기 같은 공격기가 없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말하자면 북괴 공군기지를 습격해서 그 기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주요 군사 시설면,

산업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물론 이 제5공군이 견제하는 한 우리와의 협동관계 자체에 흠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지원>이라는 테두리에서의 도와주는 협동관계와 <우리의 힘>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력 수행과의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 <지원>은 영구불변성을 보장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우리 자신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수요의 충족도 기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자주국방의 내실적(內實的)인 충실을 기하는 피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가 예산에 부족하여, 연구개발이 미비하여, 자주조건이 불충분하여 안도 못한다면 감나무 밑에 앉아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愚)에 불과하다.

우리 공군의 활로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내는 의욕과 연구개발의 역점부문을 갈망해 마지 않는다.

<정예공군을 발전하자>는 논제도 이 의욕과 연구개발의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원하는 뜻에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불행히도 필자는 항공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해 편집자의 의도에 충분히 보답 할 수가 없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3. 우리만 처질 수 없다

다만 세계각국의 치열한 공군현대화 경쟁 속에서 우리 공군만 처질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을 남못지 않게 느끼고 있다.

이 안타까움을 무엇으로 풀 수 있게 할 것인가. 나 뿐 아니라 국민전체의 염원이며, 특히 공군관계관들의 심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은 짐작한다.

각국의 공군세력은 제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신기원을 긋게 되었다. 전쟁중은 물론 전후 2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공기의 신예화 및 연구개발은 조금도 <템포>를 늦추지 않고 있다.

또, 운반 수단(運搬手段) 및 크기(範囲)의 <미사일>화(化), 탑재수단의 다변화(多變化)등에 대응하는 항공기의 성능 향상은 그 자체의 임무수행을 무시 할 수 없는 연구개발을 필요로 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시 「유럽」상공의 패권을 다투었던 두 개의 기종(機種), 영국의 <스핏트파이어>기와 독일의 <멧사슈미트>기의 불꽃튀는 대결은 현대 항공기성능의 효시적(嚆矢的)인 실례였다.

<멧사슈미트>기가 속력과 상승력(上昇力)이 우세한가 하면 <스핏트파이어>기는 선회력(旋回力)과 상대조작의 우세로 맞섰다. 항공과학의 경쟁이었다.

<6·25>당시의 <세이버>기와 <미그>15형도 그와 다를 바 없는 경우였다. 우리의 F-86기가 등장하자 공산측은 <미그>17형기를 내놓았고, 그후 <미그>및 19 및 21형기가 만주기지에 집결하게 되자 우리는 <팬텀>기의 한국 기지 진출을 서둘러야 했다.

몇 가지의 실례에 지나지 않으나 항공기의 성능은 이처럼 전쟁의 귀추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전력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공중공격 능력의 비약적인 증대는 공군에 독자적인 작전수행을 보장했다. 공군이 육군과 해군에 우선하여 현대 군비의 중심체로 중요시 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공군작전의 제1목표는 제공권(制空權)장악에 있다. 상대방의 공군세력을 완전 제압하고 임의로 공중공격을 가할 수 있는 이 제공권 장악은 비단 공군 자체 뿐 아니라 육군 및 해군의 작전수행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힘>이 된다. 지상작전 및 해상작전에 제공권 보장없이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음은 군사 상식의 초보에 속한다.

현존 국내외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북괴의 군사적 도발이 전면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때 우리의 자주국방체제는 물샐틈도 없이 완벽해야한다.

그 중에서도 국방의 핵심으로서의 공군의 강대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

며 따라서 공군 관계활동의 총본부야말로 국방에 귀추를 좌우하는 <국가의 얼>에 되는 것임을 한주여 강조하고 싶다. 우리 공군이 여러가지의 악조건을 벗지 못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예산의 뒷받침도 충분치 못하고, 연구시설도 미비하고, 자원 또한 부족한 가운데서나마 오히려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그 노고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으로는 그러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정예공군 육성에 온갖 정열과 창의력을 쏟아넣는 <보라매>의 모습을 기원하는 마음도 간절하다.

「아시아」에 불사신(不死身)으로 꿋꿋하게 나래를 펴가는 우리 <보라매>에게 무(無)에서 유(有)가 창조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행의 교훈>

① 그대에게 착한 일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예외한 것이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대에게 악한 것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더욱 등한해서는 안 된다. <톨스토이>

② 너는 모든 좋은 방법을 다하여 언제나 또는 어느 때라든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행을 하라. <요한·웨슬레>

정 신 무 장

마 욱

<전우신문 편집부 편집>

◇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고 남북적십자 회담이 횟수를 ◇
◇ 거듭하고 있다. 이렇듯 다변하는 정세에서 무엇보다 ◇
◇ 요청되는 것이 우리의 정신무장이라 하겠다. ◇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고 자유중국이 축출됐다.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7차에 걸쳐 열렸다.

「닉슨」 미국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다. 동서 세계는 급진적으로 변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을 대화의 세대 또는 해빙시대(解氷時代)라고들 한다.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갈구하는 것은 인류의 궁극적인 소원이요 당연한 열망이기도 하리라.

긴 세월을 두고 서로 으르렁대던 세계는 이제 대화와 협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같은 민족으로 대화의 길을 닫은채,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가 대화를 통해 민족의 아픔을 풀어 보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대한적십자사가 주도한 인도적인 견지에서의 「남북 가족찾기」 운동이다.

단절되었던 과거에서 희생된 이산가족 들이 대화할 수 있게 그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민족적인 염원이요 인간으로서의 도리인 것이다.

그러나 북괴는 이러한 대화와 화해의 「무드」 속에서도 그 고질적인 침략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처럼의 자세를 흐리게 하거나 몽롱케 하는 저의가 있었다.

또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국민은 물론 영공을 방위하는 우리 공군장병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전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이되기 쉬운 우리의 정신전력에 허를 주는 화해「무드」에 서있을 때 지금껏 계속되는 북괴의 도발이 또 그 어떤 큰 과오를 저지를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 이러한 국내, 국외의 여건에서 우리가 더욱 필요로 하고 또 가다듬어야 할 정신전력 배양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로 한다.

해빙 「무드」와 남북대화, 계속되는 북괴침투의 저의

[illegible] 최근의 동·서접근「무드」가 국제적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고 민족의 염원인 남북 이산가족찾기운동이 세계의 주시 속에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도 북괴는 무장공비를 계속 침투시키고 있으며, 특히 남북 가족찾기운동 제의 직후인 8월 16일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된 대규모 양상을 보였고 어선 강제납치 등의 만행이 있었다.

이와 병행하여 과거보다 현저히 증가된 심리전 활동을 통하여 정부비난, 국제 자본, 한·미 이간 등의 선전 선동활동에, 평화통일을 가장, 혁신선동 선전이 5배 내지 10배로 각각 증가되었다.

이러한 북괴의 만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들의 정신전력을 더욱 연마하기 위하여 보다 굳건한 승공의 의지와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겠다.

더욱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북괴의 이러한 대남공작 활동의 저의는 대내적으로 저들 현 체제로 부터의 조직 및 체제로 군중들의 우발을 위한 선동과

제를 구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대 북괴관을 오도하여 국민의 여론을 비등시키려는데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주한 미군의 철수와 국제사회에서의 북괴의 지위향상 내지는 한국 문제의 고립화 등으로 소위 「연방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적화통일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그들은 가족찾기 운동 제의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척 하면서 뒤로는 대남공작의 전술적 여건 조성을 기도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하겠다.

또한 가족찾기 운동을 통하여 북괴는 이산가족 및 연고자를 대남공작에 이용코자 할 것이며, 합법을 가장한 간첩침투와 통일논의를 가장한 여론 용공세력의 합법적 진출 등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민족주의의 가면을 쓰고 위장 평화공세로 대내외적 선전과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에 이용할 우려가 없지 않다.

동시 최근 「무드」는 이제 중공이 「유엔」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함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국지적인 세력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북괴의 무력 남침의 기본전략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으므로 우리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침략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임전태세를 재 정비하여 새로운 정신자세를 확립해야 하겠다.

그럼 여기서 지난 8월 13일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 가족찾기운동 이틀만인 14일 정오 북한 적십자사가 이를 수락한 후 그들의 도발상을 하나 하나 살펴 보기로 한다.

△ 8월 16일. 이날 중동부전선에 무장공비 5명이 침투한 것을 우리 아군 초병과 매복하는 수색조가 발견, 이들을 모두 사살했다.

△ 8월 18일. 이날 아침 강화도에 5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한 것을 군·경 예비군의 합동작전으로 섬멸.

△ 8월 13일. 이날 밤 중동부 전선에 2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한 것을 아군 수색조가 격퇴했다.

이 교전에서 아군은 기관단총 1정, 수류탄 2발, 실탄 28발을 노획했다.

△ 8월 22일. 이날 저녁 서부전선 임진강에 북괴 무장공비 2명이 침투한 것을 우리 해병대 초소들이 사살했다.

또한 이날 밤, 중부전선의 아군 접적지역에 출현한 무장공비 3명을 모두 사살했다.

△ 8월 27일. 아침 6시 30분 서부전선 임진강 하류에 침투해 온 무장공비 3명을 아군 잠복초가 발견, 사살했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3종의 「아까보」소총과 3개의 탄창, 권총 2정 등을 노획했다.

또한 바로 이날 하오 1시부터 5시 사이에 임진강 하류인 정거도 파주군 탄현면 오금리 아군초소에 북괴병들이 기관포 약 1만여발을, 또 하오 8시부터 28일 새벽 사이에 5만여발 등 모두 6만여발을 난사했다.

이는 번번히 침투해 온 무장공비가 모조리 소탕되는데 대한 앙갚음인지는 몰라도 거의 매일처럼 전방지역에서는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8월 30일 6시 32분 어로저지선 남쪽 근해서 조기잡이를 하던 여수항 소속 「광성호」(선장 외 선주)가 선원 30명을 태운채 북괴 고속정에 납치되어 끌려 가려는 것을 우리 해군함정이 발견, 이 시각 해치 곧에 납북을 막아낸 것이다.

이렇듯 그들은 남북대화와 병행하여 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더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경계에 임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서해빙이라는 국제조류를 맹목에 편승하여 해이되기 쉬운 우리의 정신자세에 새로운 경종이 아닐 수 없다.

모처럼의 대화가 지속되는 이 마당에 계속적인 공비의 침투는 회담에 장래를 무실케 하며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한수의 큰 의문을 던져주는 것이라 해도 좋으리라.

정신전력 강화하는 길이
승공통일의 지름길이다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 놓고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괴의 그 고질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임전태세나 정신전력은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오히려 보다 강력한 승공정신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이 대화의 시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이다. 또 그래서 오늘까지 공군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변천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단결해야 하겠다.

하급자는 상급자를 친 형제나 어버이 모시듯 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친동생이나 귀여운 자식으로 생각하는 상경하애의 군대가정을 이룩해야 하겠다.

상경하애의 참 사랑이 없이는 제아무리 현대화된 무기로 장비하고 있다 한들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또 복종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개개인은 한낱 약체지군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더욱 투철한 승공정신으로 굳게 뭉쳐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상급자는 하급자의 불평이나 불만이 없는가를 잘 살피고 해결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정신전력의 밑바탕은 안심하고 근무에 충실하면서 군기를 지키며 명령을 완수하는 자세, 바로 그것을 말한다.

훈련이 없고 명령이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이다.

일사불란한 임전태세란 바로 명령에 복종하고 투쟁 의식에 투철한 과감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대가정으로서의 화목단결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과거 유행하던 구호나 외치고, 「소」리의 경향에 흐르던

대인관계의 화합을 위해서 원만하게 주변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들어 해결하는 포용력과 더불어 협동하는 자세를 추구해야 하겠다.

결국 우리는 변전하는 시대를 직시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다시 말해서 때와 이 장소에서 국군의 1개 구성원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군 기강을 확립한 스스로 임전태세를 갖춘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태세가 스스로의 것이 되고 확립되었을 때, 우리의 정신전력은 보다 강력해지고 나아가서는 필승의 저력으로 승화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일반 사회나 군대 사회에서도 당연한 것을 당연히 않게 하고 사실을 왜곡시켜서 행동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근무시간을 지켜야 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며, 또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다의 편의주의나 주체의 확신이나 실리하는 타성 때문에 헤매어서 근무시간을 어기가면서까지 출퇴근하고 또 버젓이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뛰어 넘어가는가 하면 길가에 가래나 침을 함부로 뱉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도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예외 가운데로 군대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다.

한 예를 들면 상관을 대하면 경례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군대에서는「군기 엄정」은 경례로부터라는 등으로 그 당연한 일을 다시 강조한다는 것은 모두가 자신을 위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받들어 움직이는 군인이 되자는 뜻에서 나오는 교훈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기본 질서의식, 그것이 곧 단결된 정신전력을 계발하는 근원이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밑바탕의 힘의 승화로 뭉쳤을 때 그 힘의 의지는 임전무퇴의 기

량이 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백전불굴의 전력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신전력의 강화는 그 어느 순간에 보다 중요하고 군의 모든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정신전력의 강화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필승의 멸공정신 자세 일상생활서 닦아야

우리는 현대전의 특수성을 인식하면서 그에 합당한 올바른 정신자세를 견지해나가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일임을 재인식 해야 하겠다.

현대전이라는 높은 차원에서 볼 때는 단지 과학전을 믿고 나아갈 주력자로서의 정신적 전력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시야를 우리의 현실면에 돌려 본다면 우리는 방관할 정도로 무관의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소 양대국을 주축으로 한 동서 양대 진영의 고착적인 대결 형태와는 달리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는 아직도 「아시아」적인 전술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 올바른 승공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무력 남침이라는 광적인 도발행위를 일삼고 있는 북괴의 만행을 분쇄하고 또한 우리를 주위에서 사회의 안전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갖은 침투방법을 자행하고 있는 공산「분자」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안정을 고장해 가며 우리가 지향해 나아갈 조국 근대화 과업에 차질없는 전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잠깐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도 북괴의 망동이 비록 계속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다 냉철한 자세로 필승의 대결 태세를 완비하여 그들의 만행을 여지없이 분쇄해 나갈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 인류의 자유와 안전을 수호하고 국제 평화를 지키게 되

하여 세계 조화의 탄막지구인 한반도전선에서 공화군으로서의 면목을 갖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북괴 공산도당들의 불장난을 일삼은 1억 55만의 휴전선과 9억「미일」의 해안선을 지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양면적인 방위 수호태세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정신자세 면에 있어서도 현대전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어 나아가는 한편 북괴의 적도 여지없이 섬멸시킬 수 있는 필승의 정신자세와 근무 체계를 더욱 드높여야 하겠다.

그러한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국의 군대로 되는 모습을 알고 공산당의 침략전에 대응할 때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견지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산주의와 싸워서는 반드시 이긴다는 정신적 자주가 우리에게 견지되지 않으면 필승은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자세는 일상생활에서부터 닦아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의 타의로 보다는 자신의 생활에서 길러지는 정신자세야 말로 실전에서 우리의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각자의 정신 자세가 확립되었을 때 그 전력은 결코 그 누구도 넘어다 보지 못할 것이다.

1억의 「아랍」국이 1천만의 「이스라엘」을 넘나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저하는 것은 그 정신전력 면에서 「이스라엘」을 당해 낼 수 없다는 소치이다.

같은 조건, 같은 장비로서 대응한다면 현대전의 승리는 역시 정신전력에 승한 쪽의 승리란 것 두 말할 여지도 없으리라.

끝으로 그럼 군 정신전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로, 군인의 정서. 내가 조국과 민족의 부름에 이 군복을 입고 나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군인으로서의 영예심을 지닌다면 스스로 느끼게는 의무

같이 그 행동에 성실하고 희생적인 것이 되리라.

다음 두번째로, 충성심이다. 자신이 국가의 주권에 대하여 진심으로 헌신하려는 통념에 불과한데 이는 국가에 대한 애의 앞에서 자아의식을 초월하는 마음 가짐이다.

세째로, 군인으로서의 필승의 신념이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 가짐을 의심없이 굳게 믿는 정신이다.

그러한 신념은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 하지 않은 높은 차원에서 그 태도를 지배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네째로, 책임이다. 안으로는 양심에 대한 충의요, 밖으로는 사회에 대한 봉사적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로, 군인의 용기이다. 군인의 용기는 위험이나 곤란에 직면하였을 때 그를 피하고 혐오하는 심리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자기의 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용기에는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양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굳은 정신에는 강건한 육체적인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는 행동으로의 발현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섯째로, 인격수양의 지식이다. 군인으로서 체득한 불요 불굴의 기질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문자그대로써 이와 같은 기본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내재적 요건이 철저히 갖추어져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정신력의 기본방향은 이 여섯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겠다.

그 체계의 올바른 자세는 곧 우리를 구성하는 집단의 단합으로 보다 강력한 정신전력 구성원이 되어 나라의 방패로서 손색이 없으리라.

× × × ×

정신 전력 강화의 당면 문제

—사기 저해 요소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홍 종 도

◇ 오늘 우리 나라는 군의 현대화와 전력의 정예화를 부르 ◇
◇ 짖고 있다 ◇
◇ 그런데 현대화나 정예화를 이루어야 할 군인 한 사람 ◇
◇ 한 사람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

서 론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역사와 전통과 조국의 강토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유지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군대를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은 세계가 다극적 다원화해 나가고, 국제 정세가 다변화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산 침략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나라로서의 체제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군사력은 보다 증강해야 하고, 정예화 해야 하고, 현대화 하여 충분한 자주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군대의 현대화와 전력의 정예화를 부르짖고 있는 현금에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첫째로, 민족 주체성에 의한 정신 전력의 강화와, 둘째로,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의 현대화를 들 수 있겠다.

정신 전력의 강화로서는 국토 방위의 최전단에 서 있는 군인들의 확고한 국가관과 사생관이 정립되어야 하고, 군인 정신에 투철한 장병 상호간의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인화단결로서의 군기 확립과 현대전은 무력전만 아니라 사상전과 심리전을 주의할 때, 군민 유대 강화를 통한 군민 총화에 의한 민족 전체의 전력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장비의 현대화에 있어서도 최종 신예 장비의 도입과 개발로 시간을 다투는 현대전에 대응해야 하지만 그 보다 앞서서 가능한 한 전력화 할 수 있는 모든 인력자원의 전력화와 동시 재원의 전력화를 도모해야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본 론

——정신 전력 강화에 장애가 된 요소——

그러나 우리가 장비의 현대화 보다도 더 당면한 문제는 정신 전력의 강화 문제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군인들의 용모가 단정하고, 제식동작이 바르고, 사무실에나 내무반에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며, 과다한 업무량이라 할지라도 지정된 시간안에 이루어 놓고, 씩씩한 군가를 부르며 발을 맞춰 행군하면 그 부대는 사기가 충천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 얼마나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인가?

군인의 사명과 책임은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과 국민을 지켜 평안히 삶을 누리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봉사와 희생을 다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모두가 충실한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전 장병들의 근무 태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다.

일부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해서 불만과 회의를 느끼고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조사된 결과로 보더라도 군대의 사기는 얼마나 침체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장병들의 사기가 침체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지휘관의 편견과 주관성에 기인하고 있다.

많은 지휘관들은 자기의 직속 부하들에 대한 철저한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사고시에 대처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하여 사고의 유발과 사기 저하의 요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휘관의 사병들에 대한 자세는 과연 사병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해답과 불만의 소지를 파악하고 인간적인 유대와 대화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의 권위와 명령과 지시의 한쪽 길로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어진 임무수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사고의 방지 보다는 사고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또는 일어난 사고에 대한 매듭적인 문제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병들의 사고는 발생 후 문책과 처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이해를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이다.

사고는 주로 한번이라도 과거있던 사고자들이 재발시키는 경향이 가장 많은데, 이 점은 지휘관의 관점이 의외의 더욱 재발할 가능성을 많이 주고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서 휴가나 외출 중 사고자나 또는 영내에서 사고를 낸 사병은 문제 사병으로 간주하여 휴가 및 외출, 외박 등을 철저히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그 당사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사고를 만들 심리적 현상이 부득불 발생이 거절이 적고, 자기의 동료들에게는 그 불만을 나열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문제 사병의 선도와 관리 측면에 보다 세심한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다.

둘째는 휴가, 외출, 특박 등에 대한 불공정한 실시에 있다.

기자가 대구한 순회 특별 정훈교육을 실시하면서 사병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의 하나, 휴가, 외출, 특박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이었다.

심지어 어떤 사병들은 부대에서 일주일 동안의 고된 근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바라고 생활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그들이 외출을 하려 하는 뚜렷한 일들이 없이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영외에서 일반 근무자들로부터의 감시(?)를 받는다해도 영외로 탈출(?)한 것만 해도 커다란 홀가분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그들이 주장한다고 한다.

그들은 또 휴무일이라고 해서 외출을 나가지 못하고 남은 사병들이 영내에 머무러 그동안 보고 싶은 책이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사역이다, 집합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주말은 피곤하고 지루하고, 근무에 있어서도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illegible]

[illegible]

고질적인 실정이다. 출신 학교의 선후배를 따져서 군대의 기강을 흐리고, 모 병과 출신 사람에게 계속 신세가 지는 하사관들은 자기의 소신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러한 관계가 있게 되면 병과 동기생들은 그 하사관을 족벌이 우위 위협하려는 우려가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병과 출신 사람들이 하사관 출신보다 개성적인 의견이나 사회적인 체조건이나, 군 밀어진 계통 등을 보아도 월등한 차이가 있어서 병과 출신들은 하사관보다 짧은 복무 기간을 마치고 곧 학교를 떠나든가, 직장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자에게 비해, 하사관들은 사회에서 진학되지 못해 이런 학교라도 취학하고자하나 근무에 쫓겨 배움의 길이 공군에로 되지도 않아 장기 복무라는 것에 열등을 느끼고 심리적인 압박 관념에 잡혀있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근무 이탈이나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되고, 상대적으로 병과 출신 엘리트들은 계급의 그 압박을 가하는데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 자연히 내부 상황이 그릇되게 되고, 또 근무의 염증을 느껴 군에 불만은 물론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사회적인 물의와 정신 전력 강화에도 큰 장해 요소가 생기는 것이다.

넷째 : 하급 지휘관들의 지나친 결벽으로 말미암아 사병들이 지내기에 혹은 당하는 점도 사병들의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다.

다소의 결벽의식은 장병 각자에게 긍지와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것이나, 지나친 결벽은 도리어 반중과 사기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벽은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치열한 것이다.

즉 매우 결벽을 고수한 군기 속에, 일상 생활에 있어서 다른 예에 조금이라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만이 정의다」하는 말을 실감케 해 주는 것이나 외군과의 접전이 아니고 평상시에 지나친 근무였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고, 검사해서 될 것을 미루었다가 점검 또는 검사시에 꼭 준비하고, 잘 정돈하고 미화시키려는 이념에 너무나도 지나쳐 일과 후에도 계속 야근을 실시하고, 외출을 통제하고, 피로한 생신에 휴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근무 능률의 향상에는 물론, 병

부당한 구타와 기합 등의 행위를 근절시키며, 하급자와 병사의 입장에 있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찾아 대화와 이해를 통한 전우애를 함양시키며, 군대의 특수성을 인식시켜 사명감 투철한 훌륭한 군인 정신으로써 인화 단결 토록 해야 할 것이다. 별관 아니면 휴무 등 휴식 시간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오락시설이나 내무반 기타 휴게실을 마련하여 건전한 오락 시설을 설치하고, 정서 순화를 도와야 한다.

또한 젊은 이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구의 불만이 크다.

그러므로 적당한 선도에 힘을 기울이고, 건전하게 욕구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여가 시간에 스포츠 활동이나 건전한 취미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끝으로 : 개인 면담과 상담을 통하여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의 해결을 찾아주고, 도와주며 개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개인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해 주며 자발적으로 모든 업무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즉 면담을 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이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상호간 믿고, 믿을 수 있다는 상호의 신뢰도를 말하는 것이니만큼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충분한 인간성과 포용력을 가지고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 문제들이 선행되지 아니하고, 말로만 군기 확립을 부르짖고, 사기 앙양을 외쳐봐도 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공군의 목표인 정병강군과 전투태세 완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분투 노력하고 있다.

우리들의 노력이 보다 알차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장병 군인, 즉 간부 일체가 되어 인화단결하고, 굳은 사명감을 인식하여 자기 충실한 생태로 군기를 확립하여 스스로 질서를 찾게 될 때 우리 공군은 정예화 할 수 있고, 평화시에 전진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병들에게 무조건 명령에만 복종하지 말고, 군기와 사기의 저해 요소를 제거해 가면서 확고한 군인 정신과 국가관과 사명감을 주입시킬 때 군의 사기는 앙양되고 건실하고 명랑한 병영 생활은 이루어지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명령과 복종의 올바른 인식

윤 영 춘
<경희대 문리대학장 · 영문학>

명령계통에 서지 못하면 무법천지가 되어 살벌과 부패가 속출되지만 명령계통이 똑 바로 선 나라엔 향상과 번영이 따르게 마련이다.

1. 법은 양약이다

한 나라에 있어서 명령을 내리는 이는 국가의 최고원수인 대통령이다. 군대에 있어서는 사령관, 재판소에 있어서는 재판관이며, 한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이다. 명령을 내리는 이는 주체(主體)지만 복종하는 이는 객체(客體)이다. 꼭 해야 할 일을 시달하거나 해서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라고 시달하는 말들을 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복종하고 안 하는 것은 객체자신(客體自身)의 자유에 달려 있다. 이 자유가 한계와 법규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다.

복종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은 첫째로 한 국가를 통치하는 명령에 복종하는 일이다. 준법정신(遵法精神)은 그 나라를 질서정연한 나라로 만들지만 법을 무시하고 사는 나라는 야만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한다. 명령계통이 서지 못하면 무법천지가 되어 살벌과 부패가 속출되지만 명령계통이 똑 바로 선 나라엔 향상과 번영이 따르게 마련이다. 법은 공평하기 때문에 어떤 계급이나 어떤 족속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며 어떤 조직의 구애를 받지 않는 만인의 공유(共有)이다. 법

[illegible]

<특집: 정예공군을 위한 우리의 자세>

의사가 주는 약을 먹는 것이 병을 고치는 비결인데 이를 거부했으니 병이 나아질 리 만무다. 명을 순종하는 것은 명약을 먹는 것에나 다름 없다. 명령하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복종보다 불신복종은 더욱 나쁜 일이다. 명령과 지시사항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곧 이를 시정하기 쉽지만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복종치 않는 근본적인 원칙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믿지 않는데서 긍정이나 협력이 나올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극진히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 누웠다. 날이 지날 수록 병세는 악화일로였다. 그래서 남편되는 사람은 의사와 거짓 공모하여 아내의 병은 대단치 않으니 절대로 안심하라고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 위로를 주도록 했다. 환자는 의사의 말을 먹던 그대로 받고 안심할 대신 병은 곧 나았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남편이 꼭 같은 병에 걸렸다. 아내는 자기 병을 고쳐준 그 의사를 청해다가 남편의 병을 진찰시켰다. 대단치 않으니 안심하라고 의사가 거듭 타일렀으나 남편은 자기가 과연 수혜를 단순히 아내가 의사와 거짓 공모로 위로를 주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도무지 의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결과의 심리적 작용은 병환자체보다 더 소중한 줄 안다. 한 사람은 의사의 말을 신임하는 데서 쾌차 되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은데서 죽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의사가 병자를 치료할 때 혀바닥을 보고 맥증을 살펴 귀중히 사람의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말을 믿고 또 순종하는 데서 사회상태는 명랑해진다.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당신이 말하면 내가 들려요 당신 말에서 나는 당신의 사람됨을 알아 낼 수 있습니다」 했다.

오늘날 군대에 있어서 불신태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상명하(上命下)의 상태에서 쓰는 말투가 거칠고 독하면 구미를 준다. 옛 어른들은 남을 칭찬할 때는 큰 소리로 하고 책망할 때는 낮은 소리로 하라고 했는데 군대생활은 이와는 정반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하기야 군대는 계급장을 소중히 하므로 계급이 높은 장성은 지도력과 통솔력이 강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나라 군인들을 지나서 구분해 엄격함은 모를리 없

지했다.

말보다 실용적이며 학술적이기보다 체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곤 한다. 말보다 실천이요 계획보다 연구며, 명령보다 개방적인 것이 낫다.

아무런 권력으로 지배하여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감동되어 순종하는 힘이 제일 효과적이다.

어떤 사람이 상대성원리(相對性原理)의 연구자인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미소로 박사는 붓을 들어 무슨 수학공식같은 것을 써서 질문한 사람에게 주었다.

X+Y+Z=성공

X는 열심히 노력하는 일

Y는 일을 끝낸 다음에 실컷 쉬는 일. 그러면 Z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질문을 하니까 박사는 대답하는 말이

「당신의 입을 다물고 있는 능력」이 말은 역시 깊은 현명한 철인의 대답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입을 자주 벌려서 이래라 저래라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일이 없다고 한다. 그의 인격에 고양되어 사소한 일에 간섭하지 않고 오로지 위대한 발명을 위해서 일생 전력했다. 그는 문학을 존중하여 소박하고 간결하여 늘 말을 내세우기를 좋아하여 부하에게 머리를 주무러 가며 겸양의 미덕을 보여 주었다. 위대한 과학자는 말보다 실증적인 이론을 내세우기를 좋아 하여 돈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그의 머리에는 언제나 그가 연구하는 공부에 매달려 있었다. 이 말은 과학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나 문학이나 종교도 매일반이다. 그렇게 많은 에피소우드를 남긴 「나폴레옹」은 병영계통이 화려한 군인생활을 한평생 즐기면서도 부하 군인에게 명령보다 동료로서의 또는 전우로서의 자세로 대하는데서 그의 부하들은 도리어 다소곳 예의를 수그려 그에게 순종했던 것이다. 이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에게 역사공부를 시키겠다고 했다. 왜냐 하면 역사만이 정확한 심리학이기 때문이다.

공군에 새로 수립된 연구개발관련은 이 영어의 RESEARCH AND DEVEL-OPMENT를 번역한 개념을 발전으로 옮겨 놓았을 뿐이며 기본개념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군 연구발전관련의 기본업무 방향은 과거 업무의 발전연구에 대한 기본업무의 연구개발과 신정된 업무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미래 운영상의 기술적 연구개발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개발 업무의 필요성

가. 효과적인 적의 전쟁 의지 억제를 위하여

군에 있어서 연구개발 업무의 필요성은 우선 군의 존재 목적부터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클라우제비츠(Clausewitz)는 그의 전쟁론에서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며 적으로 하여금 굴복케 하여 자기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폭력행위」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다시 전쟁의 목적은 「적에게 자기의 의지를 강제하여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전쟁의 목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의 저항력을 상실케 하여 그를 굴복케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수단으로는 「폭력 즉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군은 국가의 수단인 전쟁의 목적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이 수단을 직접 행사하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군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업무의 필요성은 국가정책의 요구에 대한 방위목표로써의 적의 전쟁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총력전력(總力戰力)의 일부로서

전쟁의 수단인 무력은 옛날에는 칼, 창, 활, 포화 등으로 구성되는 병기와 그 병기를 사용하는 병력을 주로 뜻하였으나 근일에 있어서는 총력전력이라 하여 무력, 즉 군사력 외에도 한 국가의 경제력, 정치력 및 사상력 등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군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는 물론 외에도 한 국가에 총괄된 연구개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은 군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관련 학계의 연구개발 능력을 선도하고 협력하여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전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그 의의와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다. 자주국방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있어서도 연구개발 외에 공군은 외국에서 제공하여 준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고 있

거나 혹으로 사용할 경비에 이르기 까지 독자적인 우리의 요구에 의하여 장비를 선정하고 저렴하게 제조해온적은 없었다고 본다. 군원으로 지급된 장비를 그들의 기술지시서에 의거하여 존보의 여유도 없이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하기에 앞서 제시된 내용을 이행하기에 급급해 왔음이 사실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기술면에 의하지 수리작업을 군원으로 스스로 발견하기를 어느해에 제작회사의 기술진을 초빙할 때가 허다했다. 하나의 부속품을 교환하는 데도 고장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 전에 고장부속의 교환으로써 모든 작업은 끝났고 그 예방은 요구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성이 검토되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 만큼 공군의 무기체계가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과 요원을 요구하는 설곡에 속하고 다행으로 과거 선제에서 우리는 이대로한 지속된 경험가 군에 이다. 그러나 해나을 것은 의존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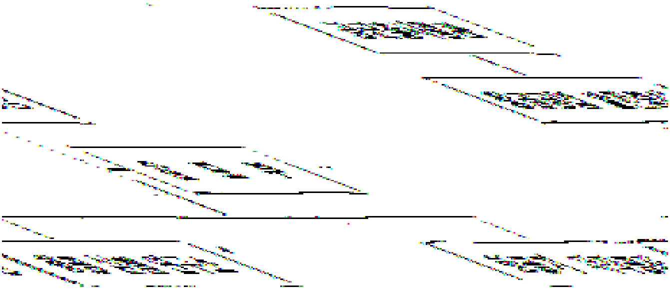
자주국방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인 지식의 축적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과밀할 수 있는 험과 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경제적인 군 운영을 위한 참가 의욕이 있어야 하며 여러한 기술적 의욕에 의하여 자주적인 군으로서의 정신적인 독립성이 부여되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계획면에 독자적으로 부여된 때 비로소 우리는 자주국방이란 단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와 같은 기반조성의 지름길로서 독자적인 연구개발 업무의 운영체계의 필요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연구개발업무 체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에도 언급되었듯이 군 업무 수행의 효과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연구개발 업무가 공군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도 항공기와 관련장비의 구성품 개조나 국산화 육성에 관한 업무는 부분적이나마 군수본부의 계획처와 정비처에서 각각 처리되어 왔고 그 밖의 장비 물자 개선을 위한 제반의 종합은 인사참모부 근무처에서 관장되어 왔으며 교리 연구는 기획관리 참모부, 편성과 전략 전술은 작전참모부, 교육훈련은 인사관리참모부 통신전자 계통 관할로 부서에서 각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각각 처리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잡무계통은 군의 연구개발분으로 한편과 연구개발 자체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 참모부를 부서하여 전담시키고도 집중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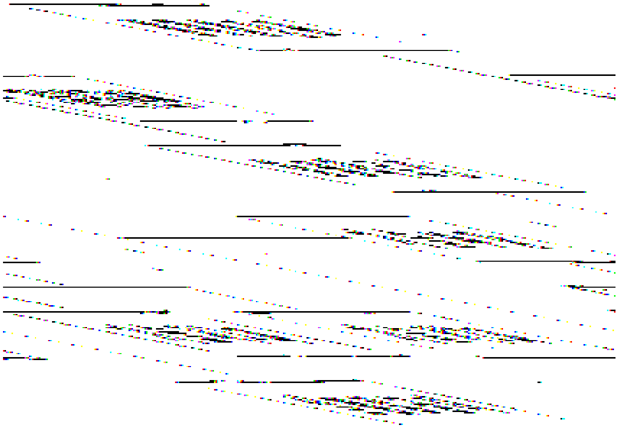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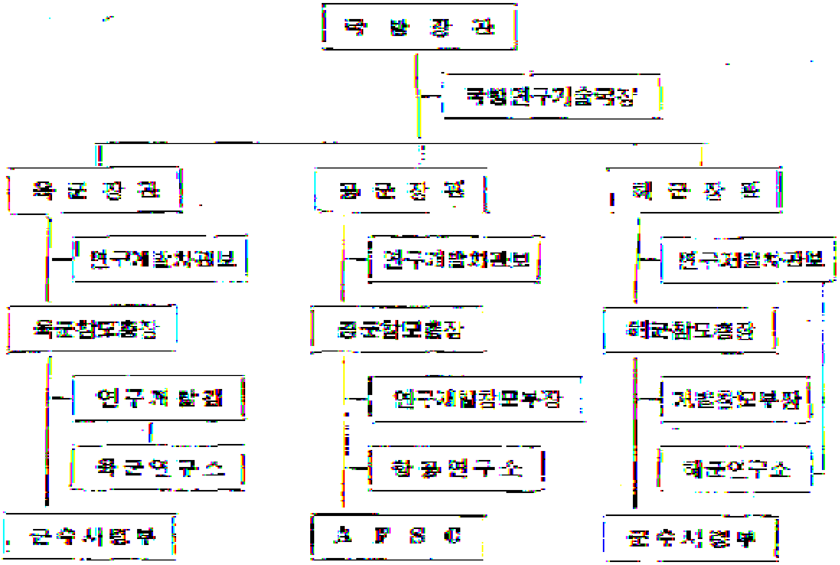
[illegible]

★ 공군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소고 ★

일본 공군의 연구개발 조직



미국의 연구개발 조직



★ 공군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소고 ★

우리 공군도 언제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려면 어떠한 종류의 기능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시하려는 것이다. 일본, 서독공군 등 연구소와 연구개발 기구를 갖는 국가와 같은 나라들이 각 군에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항공공업발전중심(AERO INDUSTRIAL DEVELOPMENT CENTER)에는 사령관에 중장에서 이하에 장교 150명, 사병 131명, 민간인 152, 계 433명이 있고 앞으로 [illegible]명으로 증가될 예정으로 있음.

상기 표 2에서와 같이 국방부장관 예하에 별도의 기구로 국방과학 기술연구소가 있고 또 이외에는 별도로 군수지원조 산하에 당위성을 인정받은 실이 있어 각 군의 연구개발업무를 주제하고 국방부 산하의 제연구기관과의 협조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수지원조와 국방과학 기술연구소장으로부터 각각으로 정규적인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연구는 현재 군내 기관에서 진행중이므로 자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하고 주로 공군의 현황에 대하여 언급코자 한다. 현재 공군의 연구개발 관계업무는 군수참모부장 산하에 1개의 실로서 발족하였으나 현실은 1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실 주어진 기능에는 (1) 공군 연구개발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예산 운영계획 지도 감독업무

(2)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장비 및 물자의 연구개발 업무

(3)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 종합 계획 예산편성 및 관리업무

(4) 무기, 장비, 물자의 국산화 판단 관리계획 및 군수산업의 육성업무

(5) 신 전력을 위한 외국 과학 기술 연구 개발 관련 기술교류 및 협동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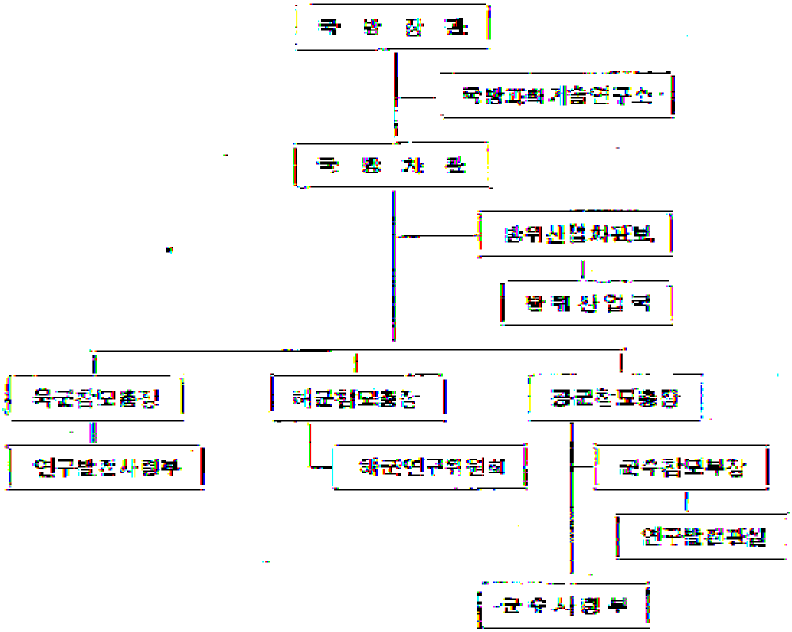
(6) 군 제안제도의 관장 운영업무

(7) 군 계획사무 위원회 운영업무 등이다. 이를 다시 요약해 보면 공군의 전략 전술, 교리 편성, 훈련방법 및 무기의 설정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임무부서에서 종전과 같이 수행하고 단만 기술과 장비 및 제안제도 등에 관한 일부만 수행하도록 주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업무란 하나의 흐름을 설정하여 체증화 하기까지 숱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더우기 연구개발에 관한 실무조직을 갖고 있지 않는 현 체계에서 이 현실은 업무처리의 성격으로 보아 너무나 미미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 설정마저도 흐려는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치닫을 위험성마저도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에

참고 한국군의 연구개발 조직을 보면(표 외)

한국의 연구개발 조직



한계를 초과하는 일은 결코 정당하게 설명될 수 없거니와 용허될 수 없는 일은 주장하므로 오로지 현지 여론이다. 공연히 새로 연구발전국실 신설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군 중점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공군항공 기능의 통합에서 주어지지 않고 여전히 분산되어 있게 하여 기존체계와 일시적으로 증가될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기구 같은 느낌마저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5. 공군 연구개발 업무의 방향과 전망

물자 수령의 일선으로 이러한 복잡한 업무를 당장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며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나 「속담에 한술에 배를 채울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주어질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성취시키고자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업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이고 서

끝에 얻어지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점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를 보건대 1946년부터 1966년까지의 20년 동안에 군의 연구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100억불에 달하였는데 그 결과 군의 장비 및 물자의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을 종합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을 군당국의 85%가 연구기관이 아닌 실무부서에서 제시하였고 연구기관 내부에서 제시된 것은 15%였다고 한다. 한편에 이러한 개선적 필요성이 일단 받아 들여진 다음에는 연구기관에서 해결한 것이 68%에 달하고 나머지 32%는 실무부대와 상호협조하여 해결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의 열쇠는 실무부대와의 협조가 얼마나 잘 이루어 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히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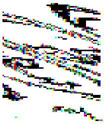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매사에 있어 시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 되고 반면에 일단 시작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는 하겠지마는 그런대로 해 나갈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우리는 현재 국가적으로나 군의 입장에서나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며 미미한 어려운 재원에서도 연구개발 우리가 비록 소규모나마 실시 되었다는 사실은 연구개발 업무의 필요성이 그만큼 요청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필요성에 과연 부응하여 현재 우리 공군의 실정은 어떠하고 앞으로의 연구개발 동향과 전망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우리 공군은 현재 또는 장차에 있어서 예상되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새롭고 훈련되고 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또는 유지하여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 발전시켜야 하며 이러기 위하여는 연구부서나 실무부서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진취적인 창의력을 발휘하여 상호 협동함으로써 만이 공군의 장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　　×　　×　　×

한 해를 보내면서



박 철 규

신해년 한해가 저문다.…… 저마다 한 해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오래도록 잊을 수 없게 되어 됨은 인지상정이라고나 할 수 있을런지.

☆ ☆ ☆

—— 누구나 결혼 초기부터 맞이하던 새 두었던지 가슴 깊이 간직해 보온 (?) 기억과 희망을 돌이켜 보려고.

새해를 맞던 첫날에 나도 어디가 될 수 없었지만 차분한 마음 자세로 한해 예술 한 날의 생활설계를 짜여 보았다. 물론 군인의 신분으로서 구상할 수 있는 설계 또는 엄격한 범주 내에서 맞도는 것이 되어 버리기도 하겠지만 그 범주 내에서 한이라도 알찬 결실을 맺어 보아야 하겠다는 나의 솔직한 욕망 같은게 있었던 것이다.

신해년……하면 우선 생각하는 것이 좀 많은 복, 행운의 상징이라고 흔히들 이야기 한다. 옛부터 우리네 조상들도 돼지라면 매우 좋은 동물로서 길의 동물이 왔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돼지라면 막연히 한층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게 되었다.

☆ ☆ ☆

나는 우선 신해년 한 해를 결정지었다. 건강과 가정, 건강과 군인, 그리고 건강과 사회, 아니 건강과 유관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의욕의 해, 건강의 발전으로 기억할 수가 있겠다.

또 3년전까지만 해도 건강을 남 한테도 둘러 오기 배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우연히 병을 얻고 날개 아니는 3개월 동안 병원에 눕게 되자 보다 건강

능력과 얼마나 좋으신 정인가를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더고나 할까. 더욱기 한 가정의 기관으로서 건강해야겠다는 것, 아니, 군인신분으로서의 건강문제는 더욱 해야겠은 것이라고 하여야겠다.

옛말에 건전한 육체는 건전한 정신을 낳는다는 말처럼 건강하지 못한 가정,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 건강하지 못한 군인은 우리들 주변을 암담하고 혼탁하게 한다. 개인의 건강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을 꾸며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야기이지 우리 모두들 별로 주의하지 않고 건강할때 지나쳐 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모두들 한 번쯤은 자기 건강에 대한 바른 테스트가 필요할 것이 아닐까.

명랑한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즐거운 희망의 역정을 갖추하게 하고 한 가정의 행복한 근원, 군에는 그 나라의 운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한다면 우리 모두 건강해져야 하겠다.

이렇게 자리에서 눈을 뜨면 일어서, 오늘도 출근에 지장없는 기분좋은 하루가 될 것인지 헤아리며 가슴조리며 지도 하는 과제가 건실한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 ☆ ☆

이제껏 14년여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부대, 여러 보직을 거쳤지만 적어 연말, 에너 곱빼기로 바쁘다는 것이 정확하겠다. 우리나라에 최남단 ○○항에 자리잡은 우리 공군의 최후방 보급부대, ——부대구조가 그렇다 하더라도 부대에서 취하는 책임과 요구는 더욱 가중되었고 연례 업에 많은 수입만과 행군적들을 빨리하느라 부대 일에 쫓기다보면 가정도, 개인 나대 대한 의식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신없이 보내버리고 지루하고 피로했던 날들.—— 가정을 지키는 아내에게 한가닥 미안한 마음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흐느적거리는 축 처진 나의 건강문제가 남아나지만 생각게 하루에 일선에서 오는 나만의 부듯한 자긍과 만족감.…… 특히 이번 겨울철에 찾아온 가족과 부대 인근주민을 초청하여 부대 초유의 친목군 대회건은 물론 우리 영내 사병들이 가장 행렬하지 한 기대적인 추석 체육대회와 경향 20여명으로 된 토요행군훈련 등 어렵고 괴로웠던 새로운 업적에도 한 은근무중에도 늘 이때 에서 더나지 않던 우리 모두 주은이의 한 달간 가슴앓이는 나를 몸과 마음이 같이 고달게 스리게 하였고 지금의 즐거운 부하 장병들에 함께 이결을 떼나서 모두가 행운의 회가를에 쳐든 나 나름의 인간제인 영보(?)했다고나 할까.

☆ ☆ ☆

<신해년 유감>

아무튼 신해년 한 해여. 성공과 교훈을 함께 가져다준 회억의 해여! 잘 가거라.—— 이 한 해는 나에게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해주었고 군인된 입장으로서는 그 나름의 분명한 책임의식, 큰 의무, 체험감으로 주어진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조용한(?), 따뜻한 해였다고나 해야겠지. 지나간 세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세월 그 이야기는 지금 생각하면 모두가 추억에도 아름다운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가닥 마음 걸치못할 아쉬움, 앞뚤한 미로간에 남는 한해의 계획중 미진했던 실천항목은 언제 다시 빛어 터뜨리고 싶고 두 번 다시 거듭나는 뜻없이 번거로운 사연을 경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나대로의 다부진 결의.——

새로운 한 해. 다가오는 임자년은 좀 더 열정과 희망찬으로 긴장된 한 해를 보내야지. 모든 새로운 추억은 무엇보다 쓰고는 날씨 따라서 귀엽 보이고 열심히 충실한 삶을 살아야겠다.

<생활의 교훈>

급한 것도 나쁘지만 느린 것도 또한 나쁘다. 모든 일은 알맞는 때에 하는 사람이 현명한 것이다. <오 비 드>

남에게 존중되려는 욕심은 벌써 죄악이 될지 모르고, 자기가 자신을 존중한다고 생각할 수 있게 살라. <톨스토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 것이다. <예 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예 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촉들은 어길 수 없어 련속에 책할 회혜의 문제를 운명처럼 안고 지낸 것 같다.

나는 나의 가정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요 아내는 무조건복종이다. 아이들은 절대한 통치에 속한다. 나는 무조건한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권력에 합리적인 원칙을 주장하고 졸자들의 의지를 통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늘 어그럽고 포용력 있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긍지를 받아야 할 것 같다. 혹 들어서 지난 아이들 자랑스럽 돌린지 모르겠으나 자격없는 지도자로서 내 오랜 책임을 자꾸하여 본 것은 아내라는 충신과 아이들이라는 애국자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내가 살짝 과장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나의 심리와 나의 백성은 나를 우습게 볼 것 같다. 우습게 보는 것은 괜찮은데 어쩌면 되면 질서가 없어진다. 내가 어린 정석을 위해 진상을 좀 보았겠지 더 우습게 보여져 될 것 같다. 무제한한 자랑과 늘어난 한데, 버릇없는 아이들! 이것은 가장 모험적이 다난 자질의 혁명이다. 전혀 않고 통솔력할 것에게는 좋은데 자기에 꿈결을 안고 있는 것은 정말 딱하다. 몹시 순해진 사랑모일 사람은 똑바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열사람이 보기에는 희찰한 것이다.

나는 억지로 쇄거든 들에서 혹, 배 절음이 저잔한 것은 아니었나 되씹어 본다. 떠들거든 여기 왜 없었든 것같다. 독선과 에고는 아이들을 조금은 불편케 했든 것 같다. 많은 날친들에 그렇듯이 마음에서 묵묵하고 절절했든 적이 꼭 많았든 것처지는 들은데 아이들에게 꿈은 가르쳐준다 한 모른다고 이런 아이들은 속였던 말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에 아프다. 왜 그리 답답하고 실감결이 났든지, 할말, 좋아하기 할것 없이 결별순이 저자할 정도로 날려 다녔다. 그러는 주제에 좀 저가 아이들에게 오래적던 아이들 건강해서 공생세다느니 조롱그렇지 되어르하느니 짤낭거 하였다. 아내는 제 어려선 나에게 제발 아이들 정에서 떠나들 말아달라고 간청도 해 봤으나 나는 그것을 콘결 일곤 하였다. 확실히 가는 사이권력 체계도, 체통도, 위엄도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부하들(아이들)에게는 무사람권이 더 인기였고 존경을 받았을 것 같다. 혹 괴곤면의 호덕이라도 풀에걸려, 지금 수리없이 주는 용돈이라도 끊길세라. 못생긴 손을 쏙 뜨십드러나 쓸쓸하 두어줬서 아이들은 나를 더 좋아하는 척 하였을는지도 모른다.

우리집 아이들은 누나와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하면 내가 곁에 있으면 틀림없이 "아빠요!" 한다. 나는 이것을 두가지로 분석한다. 하나는 나를 정말 나를 좋아해서이고 또하나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신해년 유감

나의 군인생활을 돌아본다

차 순 도

하늘이 높아지고 온 누리가 황금빛으로 물들 때면 항공기의 성능도 훨씬 좋아진 것처럼 느끼면서, 한결 상쾌한 기분으로 비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앙상한 고목 밑의 낙엽을 밟으면서 쓸쓸한 세계를 자기나름의 독특한 상념과 고독 같은 것을 느끼는 계절이기도 하다.

목전에 다가온 겨울 다음엔 반드시 다시 생동하는 봄이 오는 자연의 순환 법칙은 변함없이 되풀이 되겠지만, 인간 각 개인이 맞이하는 세대의 흐름은 1971년의 그것과는 전혀 색다른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신해년 365일이 지평선에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국회선거, 그리고 닉슨 독트린에 의하여 주한 미군 일부 철수에 따르는 지난 해 국군의 국군 정비 전략, 그리고 실미도 군 대원의 사건 등 예년과 다름없이 무척 다난하였던 한 해였다고 기억된다. 신성한 국토방위의 중임을 지닌 60만 한국군의 일원으로서, 하늘을 지키는 무적의 공군의 일원으로서의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 본다.

일년지계 재어춘(一年之計 在於春)이란 말이 있듯이 매년 정초가 되면 그 중에 이루어져야 안되는 사업이나 계획 등 몇 가지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상례이다.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군인들은 일과 속에 ... 느끼는 겨를

(Zero Defect)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철두철미한 준비에 의하여 일단 실제 임무비행을 위하여 조종석에 앉으면, 그동안의 경험과 조언으로서의 신념을 조절하여 승시동안 그 임무가 끝마치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러한 습성은 본인 뿐 아니라 관계되는 상관, 그리고 정비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때로는 악천후에서, 때로는 급박한 상황, 혹독한 여건 환경에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해야만 되는 어려움에 있다. 특별히 조종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언급된바와 같이 하늘 끝에서 땅끝까지 동의 안정은 물론, 지휘관계까지 고려해야 되며, 더 중요한 것은 기관승무원으로서의 매너(Manner)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중에서, 지상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어떤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조종사들도 그러하겠지만 비행임무를 무사히 끝마치고 보게될때 안도하며, 귀환 착륙때 흐뭇해지기 전에는 잠시도 긴장에서 헤어진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본인이 보수적으로 얻은 수 있었던 커다란 소득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군련하고 강인한 국제적 영도자에 의하여 우리 국가가 어떠한 어려운 여건하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전진하고 있으며,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찬란한 역사의 제조 현장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금년 정초 일찍이 언급되었던 영동고속도로 공사 당시 비행을 하였을 때만해도 조종사들이 소지한 지도 예측에는 아무런 표적조차 없었던 그 루트로 몇 달 뒤(7월 13일) 재비행 하였을 때는 이미 굉장한 도로에 포장공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국토는 지나간 짧은 기간 내에 수없이 지도를 변경해야만 되는 개척속이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곳곳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건물과 굴뚝이 세워진 것을 수시로 목격하게 된다. 물론 내가 본 일부일뿐이나 오고가며 둘러보는 데 제한되더라도, 그러나 여기의 광활한 일대에 오늘 웅장한 공업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을 수시로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은 우리의 비약하는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러한 조국을 위한 투쟁과 불굴의 의지는 우리의 앞날에 크나큰 영광을 안겨어 줄 것임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공군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휘관 및 일선 공중근무자들이 그러한 경험을, 나의 생활 주변도 역시 "비행"으로써 연결되었

북괴정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

이 종 헌

괴수 김일성 역도일파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를 괴수들의 유일한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피의 숙청으로 얻은 일인 독재체제를 근래 강력히 굳혀 북괴땅을 군사기지화하고 북한주민을 무장시켜 전쟁력 시기가 조성되면 무력적 수단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려는 책동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또한 괴수 김일성은 한반도를 적화하는데는 3가지 역량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 3가지 역량이란?

첫째, 북한땅을 대남침략의 정치, 경제, 군사적 기지로 만들어서 소위 혁명의 대사변을 맞이할 사회주의 역량을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 남한 내의 공산주의 혁명조직을 구성 확대하는 일면 무장세력과 연합하여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소위 남조선 혁명 역량의 조성이며.

세째, 그들이 무력으로 남한적화를 획책할 때 국제공산진영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될 「국제혁명 지원역량」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북괴의 모든 정치, 외교 그리고 대남침투공작 등은 모두 이 같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즉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책임으로 맡기고 자신의 군사적 역할을 줄이려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놓고 북괴는 이를 소위 국제혁명역량이 성숙될 것으로 오판하여 무모한 불장난을 저지르게 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호전적이고 경솔하기 이를데 없는 김일성의 입장에서 볼 때 닉슨독트린에 따라 한국의 한국화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에 전쟁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미국의 지상군이 결코 참전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군사력을 사용

리 재발시킬 수는 더욱 없을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 패주의 중공군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은 자체 멋대로 내릴 수 있는 것 일뿐인 것이다. 사실상 김일성 7명 독재되는 군대 놓고 지난 18년 동안 줄곧 전쟁준비에만 전념해 되어온 북괴는 지금에 극동 정세가 자기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점에 를 강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괴의 침략적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어떠한 돌발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항시 갖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북괴가 남침을 위한 전쟁준비를 계속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1962년 12월 노동당 4기 5차전원회의에서 소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비롯됐다. 4대 노선이란 소위 전 인민의 무장화, 전 지역의 요새화, 군의 간부화, 군의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 4대 군사노선만은 1968년 4월 북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독고한로의 보고를 한번쯤 전개해 감행하고 있다. 그러면 6·25 재침을 노리는 전 인민의 전쟁시대라고 볼 수 있는 이 4대 군사노선에 따라 북괴가 어떻게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었는가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전 인민의 무장화란?

북괴는 군사대체상 정규군 이외로 예비군사력으로서 140만 노농적위대를 편성하여 이를 소위 인민 무력의 중요요소로서 강화하고 있다. 남자 18세부터 45세까지 전 주민을 강제 편입시켜 편성한 노농적위대는 내무원 계급을 가진자들로서 지휘하고 그 규모에 따라 소대와 중대로 편성되고 시범단위로는 이따라 대대가 있으며, 공장 기업소 학교에는 중대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의 기본무기는 자동소총이며, 대학노농적위대와 중요한 철별 이상의 공장 기업소 노농적위대에서는 아포, 박격포, 고사기관총 등 경구경포 같은 중화기를 제공하여 훈련을 지켜시키고 있다. 이들은 예할 낙하산 보병 항공기 격추 등 특수훈련과 게릴라 전법을 가르켜 줌으로써 전쟁시에는 그들을 후방에 투입하여 게릴라전을 하게 한다는 것을 내면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노농적위대 중에서도 특히 시력이 될 수 없는 소위 "현상분자"들을 골라 붉은 근위 청년대라는 조직체를 하나 더 만들어 노농적위대의 역할을 대폭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농적위대의 전투능력을 강화해 가면서 이들의 가족은 물론 노인들에게까지 사격과 총검술을 시키고 있다. 특히 북괴는 소위 국가지정대상을 계속하여 수류탄 던지기, 중에 구보, 등반, 길찾기, 야시행군, 탐지법

키 등 군사훈련을 전주민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전 어린이들을 소구방위 기부클럽에 가입시켜 모의 사격훈련을 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괴는 모든 사람은 군이다 라는 모택동의 슬로건을 그대로 본받아 시대의 사격원수라 매달리면 그의 수십년 적화를 남한에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 지역의 요새화란?

북괴는 6·25동란 때에 우리 공군의 제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모든 군사 시설 생산 공장은 파괴 당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하고 있다. 사변 휴전 후 그들의 발표한 것만 해도 공장 기업소를 포함한 중요한 공공 건물들이 [illegible] 지하동굴에 넣었으니 그 피해를 가히 알만 합니다. 휴전 후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제 발광준비에 혈안이 된 괴수 김 일성은 제차 도발하는 전쟁에서도 유엔군이나 한국군의 공군력을 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모든 체제 시설에 전주민들을 총동원하여 공장을 지하로 옮겨가고 휴전지대에는 항공 수정에 대응할 지하 요새를 만들었는가 하면 가령마다 국강까지 트럭도로 복판에다가 배치로 길 파는 등 그들의 멋대로 전 북한 지역을 두더지처럼 파헤쳤으며, 지금도 계속 파헤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새화 정책은 무모한 전쟁을 도발하여 쓰라린 피해를 겪었던 6·25동란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의 침략전쟁에서는 어떤 피해라도 막아보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셋째, 군의 간부화란?

군의 간부화란 하급군의 자격 군인들을 자기 계급보다 한 계급 더 높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계획을 말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괴의 소위 인민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적화정책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북괴노동당 규약 8장 56조와 57조에 조선 인민군대는 조선노동당의 무장력이다. 따라서 조선인민군대 내에 노동당 위원회를 조직하여 동 인민군당 상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대군 장병 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당원들이 배정된 군인들을 감시, 밀고함으로써 군대를 당에 순종토록 하도록 무력을 조직으로 묶어놓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공산당원에 군을 지배하기란 매우 힘이 드는데 더구나 전쟁을 도발하여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을 때 간부 부족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와 당의 지배체제가 흔들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산당에 충실할 수 있는 간부를 미리 훈련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의 간부화는 유사시 계급

★ 북괴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 ★

군의 당위원회는 정치사업들에 입각한 사상교육 전투훈련에 중점을 두고 붉은기부대의 칭호를 주는 칭호쟁취 운동의 수법을 쓰고 있다. 붉은기부대가 되려면 부대원 모두가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조직원리를 철저히 관철함은 물론 김 일성 사상교양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학습하고 무기와 조직기술에 능통하여 어떠한 환경조건하에서도 능숙한 군사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공사와 노력동원에서 매사가 모범이 되도록 노동성과를 초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대장은 소대장의 직책을, 소대장은 중대장, 중대장은 대대장의 직책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훈련해 두었다가 전투시에 지휘자가 전사하면 곧 바로 그 직무를 대리시키라는 것이다. 다시 언급할 것도 없이 괴뢰군의 간부화 정책은 예비군도 삽시에 이동하는 정규군으로 됐을 때 동요없이 군대 내의 당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노농적위대의 대부분을 정규군에 신속히 편입시켜 당의 무장력으로서의 구실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세째, 군의 현대화인데

군을 현대화한다는 노동당의 노선은 현대전투에 적합하게 훈련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괴수 김 일성은 한국전쟁을 회고하여 6·25의 경험을 살려 현대의 전쟁을 갈이 가지고 단숨에 남쪽을 집어삼켜야 된다고 되뇌면서 해군은 몰라서라도 비행기와 탱크는 가졌어야 했다고 통탄적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남한적화에만 눈이 어두운 김 일성은 해외에는 주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아랑곳 없이 그들의 고혈을 착취하여 병기도입에 쏟아넣고 있다. 그러나 북괴의 장비현대화는 1965년 2월 소련의 「코시긴」이 북괴를 방문한 후 북괴와 소련 정부가 맺은 소련의 대북괴 경제원조의 제기에 도래해서 본격화되었다. 그리하여 67년 이후 현재까지 T-54형 전차, 유도미사일 코만 MIG-21형 초음속 전투기, AN-2 수송기, SA-2 제공 유도탄 등 장비를 계속 도입하여 전투력을 월등히 증강시켜 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들의 훈련도 67년 후반기부터는 주로 공격훈련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서 북괴의 대남침략야욕의 기본이 되는 4대군사 노선을 단계로 보아 갈이 북괴는 전쟁인 구상과 전략에 오래와를 강행하여 전쟁준비를 고도로 배양하고 당의 군사지휘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간부와 전투능력을 계속적으로 보강하여 무력 적화야욕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예와 같

에 북괴가 평화통일을 원한다고 하지만 김일성의 과거를 볼 때 그런 일 해서도 무모한 남침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지적했거니와 이에 대처하는 데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적보다 우세한 힘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힘이 부족할 때는 시간을 벌기 위해 평화협상을 애걸하다가 힘이 강할 때는 반드시 무력을 앞세우는 것이 공산당의 정략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무력적화를 노리는 그들의 침략야욕을 포기하도록 하자면 그들보다 우세한 국력을 배양해서 힘에는 보다 큰 힘으로 응징한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력의 비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온 국민의 고귀한 땀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국민에게 땀을 흘려 이를 실천해온 것도 우리의 국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계 같은 이 계획을 성실하게 완수하고 땀흘리는 성과만이 불원간 닥쳐올 우리의 경제는 자립되고 번영을 누릴 수 우리의 국방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게 되며, 비하한 괴뢰의 무력침략에 대해서도 격멸시킬 수 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에서 하는 말이다. 또한 경제문제가 되려면 우리의 경제를 현대화하고 부족되는 물자를 보충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과거 우리는 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부터 피복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원조로써 충당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주는 물건이라는 생각으로 물자를 우리 물건처럼 아껴써야 한다는 생각이 희박했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됨에 따라 미국의 무상원조는 1973년도로 종결되고 군원도 머잖아 줄어들 것을 예상할 때 국방비도 스스로가 부담해야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한 정서에 대비하여 총포, 탄약, 통신기재 등 우리나라의 생산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군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착착 추진 중이거니와 우리는 우리의 장비가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련한 비용을 절약하여서도 소기의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보다 인력과 물자와 예산을 절약하고 부족되는 물건을 선용하는 습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물자 절약만 아니라 우리 정신 훈련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평소보다 더 가지 문리한

조건하에서도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술을 발전시키고 철저히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적보다 항상 유리한 상황하에서 적보다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싸운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전쟁에서는 숫자의 우열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적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적을 물리친 전례는 역사상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가까운 예로써 최근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을 들 수 있다. 2백 70만의 인구와 8만의 상비군 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병력이나 장비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세한 아랍제국을 단시일에 무찔러 세계를 놀라게 했던 6일전쟁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내가 죽어 해도 내 조국을 지켜냈다는 배짱과 각오로 평소 훈련을 철저히 한다면 공산도배들이 아무리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침략해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유와 국토를 한치라도 침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쟁에는 휴전이 없다. 적은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려놓고 침략해오지 않는다. 따라서 항상 긴장된 분위기에서 적을 경계해야 하겠지만 후방에 침투하는 적을 더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전 장병은 3천만의 눈과 귀가 되어 간첩들이 침투할 틈을 주지 않는다면 승공통일의 길을 단축하게 될 것이다. 군인 모두가 최악의 경우 자폭할지언정 공산침략에는 굴복할 수 없다는 불사조같은 승공정신에 투철하고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위정신으로 굳게 철저히 군사의 실력을 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산당을 물리치고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박대통령 문언록>

◇ 훌륭한 헌법은 그 형식과 체제보다도 이를 수호하고 준수하려는 국민의 의지와 합리적인 운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다.

◇ 법에 없는 곳에 질서가 있을 수 없으며, 질서가 없는 곳에 참다운 자유와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군법회의 관할관의 확인조치

정 덕 장

1. 서 론

군법회의법은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달리 관할관 제도를 두어(동법 제7조, 제8조) 당해 군법회의의 재판사무에 지휘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군사법 사무도 군사작전체제(The Framework of Military Operation)라는 군조직목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현행 군법회의는 보통군법회의, 고등군법회의 및 그 상고심으로서의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법원에서와 같이 3심제로 되어 있다. 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와 각 군본부(해병대 사령부 포함) 및 예하부대 중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그 책임지휘관으로 하나 국방부 및 각 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국방부 장관 및 당해 각 군본부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포함)이 된다. 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 및 각 군본부(해병대 사령부 포함)에 설치하며 그 관할권은 국방부 장관 및 각 군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포함)이 된다. 이러한 각 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각 군법회의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재판관을 임명 지정하며 심판관을 임명 지정하고 재판 감독하며, 관할 구

[illegible]

(3) 확인권의 법적성질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현행 군법회의법상 관할관의 확인권은 구 국방경비법상의 승인권 및 재심허가권이 수반하는 실질적 권한이 아니고 다만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사후적인 형식상의 서명, 날인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4) 확인의 해태

군법회의법 제369조 제2항은 관할관에 의한 판결의 확인조치는 판결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확인조치 기간을 도과하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바, 이를 확인의 해태라 하며 이는 피고인에게 판결이 선고된 후 소정기간 내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불확정 상태에 놓여 피고인은 불안이나 공포에 빠지게 되고 인권에 대한 침해가 심할 것이므로 10일의 법정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인기간이 도과한 후, 관할관이 원판결대로 확인하였다면 별 문제는 없으나 판결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였다면 그 효력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관할관이 확인하지 아니 하고 소정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군법무관 또는 그 대리를 거쳐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통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군법회의 규칙 제20조)

3. 관할관의 은사권

(1) 은사권의 의의

관할관은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를 참작하여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군법회의법 제369조 제1항 후단). 즉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판결에 대한 실질적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 이를 일반적으로 관할관의 은사권이라고 하며, 이는 실제적인 중요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2) 은사권의 법적성질

이러한 은사권이 사법적 행위(Judicial acts)냐 또는 집행권(Executive acts)의 행사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일설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판결에 실질적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은사권의 발동은 권력분립의 원리상 사면 특권 등에 대통령에 의하여서만이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관할관의 확

인조치는 사법행위인 재판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 변경을 가할 수 있음은 국민의 실체적 기본권인 재판권의 문제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군법회의법상 관할관은 헌법상 법관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의 권한을 소송단계에서 담당하며, 판결의 실질적 변경을 가함은 그 성질상 사법권에 관한 것이고, 관할관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 관할관은 결과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감형권은 대통령만이 가지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그 성격상 특수한 관할관 직능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견해에 대한 반대적 견해는 헌법상 법관의 자격을 필요로서 정한다는 것은 관할관의 성격을 포함할 수 없는 바, 관할관은 군법회의와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 구 국방경비법상의 설치장관의 승인조치와 달리 관할관은 형벌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조치할 수 있다는 점, 연혁적으로 보아 군지휘관에게 비례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것뿐만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하여 은사권의 일종으로 부여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판결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군지휘관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휘관에 부여한 은사권의 일종으로 집행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관할관은 사법기관이 아니며, 확인조치권을 관할관에 부여한 목적, 근거 등을 고려하면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은사권의 행사는 관할관의 재량행위로 간주된다.

(3) 은사권의 내용

은사권의 행사기준으로 형법 제51조를 참작하는 바,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위 양형의 조건은 판결시에도 참작된 것이나 일단 참작된 정상을 다시 참작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단 참작된 정상이라 할지라도 관할관의 확인조치시에 다시 참작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다시 참작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실제적인 문제로도 어떠한 정상을 어느 정도로 참작하였는가 명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별하는 실익은 별로 없다고 본다. 또한 은사권은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이며, 양형의 부당성 여부의 판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관이나 관할관의 필

면서 철회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은사권은 판결의 양형에 관련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확인조치시에 이러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관할관은 다만 군지휘관의 지위로서 검찰관으로 하여금 상소제기 혹은 상소심 절차에서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은사권은 형법상 실형의 조건을 충족하고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발동하는 것이다 그 행사는 무제한이 아니고 형은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데 한정된다. 형을 감경하는 것이라 함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형기를 단축시키든가 벌금형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 등 동일한 종류의 형벌을 감경하는 것에 한하고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형식으로 은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본다.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함은 마치 형에 대한 일체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다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형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관할관이 감형 또는 형의 집행면제를 할 때에는 판결은 이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며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으로서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적용이 있다. 은사권의 행사시한은 기간으로 판결

되어 있는 점 기타 확인조치의 의제 등은 전술한 확인의 의제 등의 경우와 동일하다. 구 국방경비법하에서는 복역 중에도 은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현행 군법회의법에는 명문규정이 없고, 다만 군형법 제5조는 은사권의 발동형식인 가석방의 허가는 국방부장관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관은 복역 중에는 은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전시, 사변시의 특례

전시, 사변 등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군인, 군속 및 일정한 범죄를 범한 민간인 등 군형법 적용대상자(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군법회의는 단심제를 채택하여 상소심 절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헌법 제108조 제3항, 군법회의법 제525조). 이 때에는 상소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결과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확정되게 된다.

군법회의법 제526조는 이 경우 사형을 집행함에는 당해 군법회의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얻어야 하며, 이와 같은 관할관의 확인조치는 당해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형량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소련의 대북괴정책변천과 한국안보

강인덕 〈국제문제전문가〉

1. 서 언

제 2차 대전 후 소련은 그들의 전략제1선으로서의 한반도의 위치를 고려, 철저한 스탈린 주의에 입각한 유례적 소위 위성국가를 육성한 다음 강력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북괴를 소련의 극동전초기지로 만드는 한편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유지하도록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이 북괴 지역을 소련의 영향권에 고착시키려는 스탈린의 의도는 중·소가 「한 덩어리의 결속」을 다짐하던 중·소 밀월시기에는 절대적으로 관철되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1956년 제 20차 당대회에서 비롯한 중·소의 대립,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분열, 북괴의 자주 노선 등의 일련의 사태는 북괴에 대한 소련의 지배권을 약화시키었고 더더욱 「북괴를 둘러싼 중공과 소련의 각축은 노골화 되었으며 결과로 관계의 삼각성을 노출한 이른바 「특일 삼각관계」의 복잡성을 형성해 나갔다.

북괴로서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인 관계에서 중공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경제적 이해관계 면에서 중공보다 소

[illegible]

[illegible]

북괴정권 수립 후 소련은 1949년 3월 북괴와 10여년 경제·문화협조 협정을 체결, 북괴에 대한 경제원조를 강화하면서 북괴 지도층 내에 소련 공산당에 의하여 교육된 소련계 요인을 등용시켰다. 동시에 김일성 일파와 소련파 요인에 의한 통제를 기해왔었다.

더우기 점령군의 철수와 함께 북괴내 조직 소련 계의 부수망을 배치하고 소련 고문관을 두어 북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다. 결국 스탈린의 대북괴정책은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해방한다는 인상을 강력히 내세우고 국제적으로는 국가로서는 자주적으로 운영케 한다고 선전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동구라파에서와 같이 점령국으로서의 소위 「인민민주주의 혁명완성」을 실시하여 북괴를 완전히 위성국화하여 그의 지배권 확립을 기도하는 것이었다. 한편 북괴는 1949년 3월 소련으로부터 2억 2천만 루블(盧布)의 차관을 받아 경제건설과 군사력의 정비에 전념하면서 대남침략의 군사력 확보, 동원단계의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던 것이다.

1945년 초부터 1950년 말까지 소련의 대북괴 경제원조의 총액은 약 5억 4천 6백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었다.

북괴의 남침(50. 6. 25.)으로 야기된 한국동란이 발생하자 소련은 처음부터 「공격은 남조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때문에 북조선이 그의 공격을 격퇴하도록 계획을 반대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라고 북괴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한국동란 중 소련은 북괴와 중공에 전략물자를 지원하였으나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던 관계로 막대한 중공군을 투입한 중공의 영향력이 북괴 내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더우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일파는 소련파 요인을 제거하려는 공작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소련이 1961년 6월 중립회담을 제안한 이래 더욱 노골화 되었다. 다시 말해서 북괴는 소련에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특별치 않은 지원만을 바라서 받았던 소련의 제재에 대하여 불만의 의사를 표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후일 북괴의 자주노선 표방의 직접적인 구실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53년 7월 한국동란의 휴전이 성립되자 동년 9월 소련은 북괴의 전후복구를 원조한다는 명목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과 대북괴 10억루블 원조 협정은 체결되었다. 동시에 소련은 이전에 제공한 소련 차관의 상환을 면제 연기해 주었고 각종 물자와 기술지원으로서 북괴의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을 적극 도와주었다.

어 1962년 10월 이후 소련의 대북경제 원조는 중지되었다.

반면으로 북괴는 알바니아에 대한 비판을 배제코 중·소간 이동하고 1962년 10월 쿠바 사태, 1962년 11월 중·인 국경분쟁, 1962년 9월 소련·유고 간의 관계개선 등의 제문제가 누적되자 본격적으로 중공편에 서서 중공의 대소 비난공격에 합세하였다.

북괴는 쿠바사태와 관련하여 「쿠바혁명의 반미투쟁에 투쟁적 연대성」을 표시하고 중공측에 동조하였으며 중·인 국경분쟁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소련의 입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소련·유고의 관계개선에 대하여는 유고를 강력히 비난, 소련의 유고정책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과 더불어 자체안보에서 대소의존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낀 북괴는 「국방에 있어서의 자위」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인민의 무장화」「전국토의 요새화」라는 자구적 방위태세를 갖추어 대미투쟁과 민족해방투쟁 지원에서 혁명적이라고 본 중공에 접착하게 되었다.

이렇듯 1962년부터 북괴의 대외정책은 소련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탈피하면서 중공과의 이데올로기 관계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더 중공 일변도였다.

③ 북괴의 대소 관계 개선기 (1965~)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 실각 후 등장한 신 「브레즈네프·코시긴」 체제는 그의 대외정책에서 흐루시초프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이데올로기 논쟁과 국가간의 관계는 가급적 구별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소련의 권위를 회복하고 소련권 이탈경향이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소련 지도층의 노력은 우선 중공의 주변국가이며, 중공의 영향하에 있던 월맹, 북괴, 인도네시아 등의 친중공계국에 대하여 특히 신중하고도 능동적으로 실행되었다. 다시 말하여 소련은 공산권 내에서의 친중공계 정권을 적극적으로 중공으로부터 이탈시켜 나가는 이른바 대아시아정책의 기본목표인 「중공의 고립화정책」을 적극화 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의 구체적 실천으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1965년 2월 소련수상 코시긴의 북괴·중공·월맹의 3국 방문이었다. 당시 북괴는 중·소분쟁에서 중공과 완전히 동일보조를 취하고 있었으며, 월맹도 한편으로 중립을 계속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공측에 기울어진 입장을 취하였다.

[illegible]

완전이탈은 그들 나름대로 합리화 시키면서 중·소 사이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북괴에는 친소 외교노선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갔다. 장기적으로 북괴에 대한 소련의 협조는 경제, 과학, 기술, 군사 각 부문에서 더 활동 강화되어 1967년 3월 체결된 군사 및 기술원조협정에 의거하여 소련은 북괴에 1억 7천 6백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5천 9백만 달러를 1967년~70년도 사이에 공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1968년 8월 체코 사태시 북괴는 재빨리 소련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고 소련도 1·21사태 푸에블로호사건에 대하여 북괴를 측면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3. 최근의 소련 북괴관계

(1) 70년대 이전의 관계

북괴는 2번 연장되어 71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는 7개년 계획의 목표달성과 차기 경제계획 추진에 따른 소련의 실제적인 원조획득을 위해서 대소관계강화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북괴는 위태로운 경제사정의 개선과 군사력 증강이라는 양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련의 원조가 불가피했던 것이며 따라서 소련은 중공의 고립화라는 전체하에 중공 등의 정면으로부터의 압력에 접근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9년 4월 9전대회 이후 중공의 혼란기를 수습한 중공이 대북괴관계만을 적극으로 대외관계를 차례로 정상화시키고 철저한 이익외교로서 당시의 양국관계의 외교는 균형외교로서 북괴는 근 4년 동안의 친소일변도를 지양하면서 대중공 관계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69년 5월 14일 포드고르니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 의장이 1주일간 북괴를 방문하였다. 그의 방문 때에 소련 수뇌로서 처음이었고 당시 중·소 국경의 무력충돌(69. 3.)로 중·소의 사이가 극한적 요소를 지니었던 만큼 더욱 그의 방문은 크게 주목되었던 것이다.

포드고르니의 북괴 방문 목적에 ① 모스크바 세계공산당 대회에 북괴대표의 참석 종용 ② 미정찰기(EC-121) 추락 사건에서 드러난 소련 북괴간의 이견조정 및 북괴 설득공작 ③ 소련의 대북괴 지원확약 등으로 요약되었으나 쌍방의 공동성명에서 「친선협조의 강화」만을 다짐했을 뿐 본래의 대북괴 설득목적은 실제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북괴는 소련에 고대하던 세계공산당대회의 참석을 거부하였고 그후 중·소 대립

관계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면서도 1965년 9월 11일 민보상 회담, 12월 8일 외무상 박성철 등이 연이어 소련을 방문하여 북괴의 7개년 경제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소련과의 합의를 보았다. 이렇듯 북괴는 소련과의 친밀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공과의 유대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2) 70년대 이후의 관계

북괴는 소련과의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1971년부터 시작되는 6개년 계획에 대한 소련의 지지와 원조를 기대하면서 대중공 친밀화와 구별한 현실외교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1970년 4월 중공수상 주은래의 돌연한 평양 방문에서 이룩한 중공의 인민 제대로도 긍정적인 태도에 접근은 소련 북괴 관계에 미묘한 국면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북괴의 양면적인 대중·소 관계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중공과 국가관계만에서라도 정상화한다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북괴의 대중공 접근 추세를 최대한으로 저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군사적인 관계에서 소련과 북괴는 1970년 4월 23일 소련군 총참모장 자하로프, 5월 7일 북괴군 총참모장 오진우의 상호 방문으로 ① 군사동맹조약 연장에 대한 구체적 문제 ② 소련의 최신예 군사지원문제 등에 합의 유대강화를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괴는 3월 9일 소련이 주관하는 공동해양조사사업에 일본이 참가한다는 것을 구실로 불참한 것은 일면 소련의 극동정책에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소련 제1부수상 마주로프는 1970년 8월 14일과 1971년 7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북괴를 방문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구상」에 대해 역설하는가 하면 소련·북괴 우호친선조약 10주년에 참석하여 행한 군중대회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엄중한 정세」하에 북괴를 전적 지원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특히 북괴 제 5차 당대회(70. 11. 3)에 보내는 축전에서 소련은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세계 인민이 깊은 우의를 품고 있다」고 강조, 북괴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전 폐쇄는 이와는 달리 「일본군국주의 재무장을 보지 않는 이 아시아에서 평화 위협은 증대하는 것이다」라고 일본으로서 조건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

4. 소련 북괴와 한국 안보

소련은 중공에 우위의 경쟁을 견제하

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중공의 고립화를 기한데는 외교에서의 대중공 정책과 [illegible] 대일본 관계의 상호관계로 미루어 볼 때 결코 북괴와의 관계를 소홀히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북괴로서는 국가적 이해관계에 유일목표라는 관점에서 소련과의 현상유지를 원치로 중·소대립 관계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자주 노선을 주장한 였거나 70년대 [illegible] 체제에서 북괴의 독립정책 및 전략을 모두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중공과의 관계를 보다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1962년 이후와 같이 북괴 중공관계가 긴밀해지면 질수록 소련 북괴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북괴가 아무리 자주국방 [illegible] 정책을 외치도 중공의 [illegible] 군의 현대화 계획은 일대 차질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괴는 70년대 초반에 대중공 일변도로 인한 대소 관계의 악화가 북괴의 안보 및 경제개발계획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괴에 대한 중공의 지원은 항상 물질적이기 보다는 이념적이었기 때문에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성이 있는 것이었으며, 북괴의 공산화 통일의 요구, 공업화 추진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괴로서는 자신의 안전보장 경제발전 문제를 중공보다는 항상 소련에 의지하려는 경향에 충실한 것이었다.

북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중공 접근추세에 냉담한 반응과 함께 경계하여 미·중공 접근의 한계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특히 미·중공 접근에 따른 한반도 긴장완화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북괴는 앞으로 아세아의 집단안보에 의한 긴장완화가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도전행동보다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새로운 도발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북괴가 소련·중공의 지원 없이 남한과의 1대1의 무력적 방식을 자행한다면 소련은 과연 이를 방관할 것인가 [illegible] [illegible] 답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북괴가 제고하는 노선과 함께 소련의 동향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야 할 것이며, 보다 더한 강력한 총체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괴의 대중공노선전향을 최대한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정력을 다 할 것이 분명하다.

국군장병에 우리나라 국기의 의의를 터득하고 그 존엄성을 파악 인식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우리 나라 국기 제정의 유래와 그 역사적 의의 및 태극국기 도안이 내포한 뜻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틀리기 쉬운 국기의 게양법 등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만 할 국기 상식적인 문제 몇 가지를 다루어 기술한다.

2. 국기 제정의 유래와 사적 의의

우리나라 태극국기는 이조말엽 임오년 임오군란에 있은 후 그 뒷처리를 하게 위하여 일본정부와 제물포조약을 체결하고 그 조약에 의해서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박 영효 정사(正使)가 일본의 기선 명치환을 타고 도일하는 선 중에서 창안, 제정한 것이다.

이제 왕조 건국 이래 병자수호조약이 일본정부와 체결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사대주의 사상의 노예가 된 채 극단의 쇄국주의를 고수함으로써 근대적인 자주독립이라는 개념은 눈에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며, 자주가 무엇인지 또한 국기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이다.

군기(軍旗)나 수기(帥旗) 혹은 제왕기(帝王旗) 정도는 그 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국기에 관해서는 그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선조가 국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병자년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일본선 운양호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에 있은 후의 일이었다.

즉 우리나라 대표와 일본 대표간 운양호 사건을 도상에 놓고 담판을 하는 도중 일본측 대표가 말하는 가운데서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 운운……」하는 말에 나오자 우리나라 대표는 국기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던 것이며, 일본 대표의 설명을 듣고나서야 비로소 국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강화도 담판이 끝나자 일본 대표는 우리 대표에 대하여 「귀국이

자주독립국인 이상 하루 빨리 국기를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청국인 황준헌이 「조선이 국기를 제정 사용하되 용기(龍旗)를 택하라」는 권고도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임오군란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국기에 대한 논의만이 분분하였을 뿐 확실한 결정은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임오군란이 마무리되어 일본 공사관에 손해를 입히고 우리나라의 군사제도 개혁안으로 설치되었던 별기군교련소에서 교련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일본인이 피살되자 일본 정부는 그를 문제삼아 제물포조약 체결을 강요해 왔으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못이겨 그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에 의하여 수신사로 박 영효, 김 만식, 서 광범, 김 옥균 등이 일본에 파견되게 되었다.

그래 박영효 사절단의 출발절차에 국기문제가 시급한 요청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확실하게 제정된 국기도안이 없었기 때문에 박 영효 일행은 조국을 출발할 때까지 국기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국왕은 수신사 일행에게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새 국기를 적당히 제정하여 사용토록 하라고 명하였던 것이다.

일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제정하는데 있어 국가적인 아무런 절차도 없이 외교사절단의 일행 인사에게 그것도 여행중 제정하여 본국 아닌 외국에 가서 본국에서는 논의도 되지도 못한 국기를 제공으로 사용하게끔 하였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태극국기도 창안자인 박 영효 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연을 본국에 보내어 국기 제정 사용의 경위를 밝혔다.

「국기 도안에 대하여 협의할 선중에서 영국 영사 애스톤에게 상의한즉 그의 의견이 이 배의 선장인 영국인은 주행사해(周行四海)하여 각국의 기호(旗號)를 알고 있으며, 각색 분별과 원근 배좋도 모두 능통하고 있으니 그와 더불어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

였다.

이에 태극팔괘(太極八卦)의 도식을 베어놓고 고쳐서 설명인즉 팔괘도식의 흑백(黑白)이 구별하여 우선 중렬은 으뜸 광채의 분포란 은 조잡불명한 감이 있고 더구나 각국에서 이를 모방 제작하는 데도 매우 불편한 것이니 사괘만을 사용키로 하되 사각(四角)에 배치하는 것이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 하였다……

중략…… 이에 국기의 소일건(小一件)을 상송한다」 또한 국기 를 알리어 할 적의 영효 특사는 다음과 같이 국기의 성질과 그 사용일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애디 각국과 더불어 통상수호한 후 사절을 파견할 때마다 매회장 국기가 없어서 아니 된다.

그러하여 각국의 항구에서 외국의 선박(船舶)을 만나게 될 경우라 든 특갈 이상의 방세트를 가진자는 반드시 투호의 예로 대하는 것인데 이러한 때에는 각국의 사절에 제각기 국기를 게양하여 서로 공경하는 법이요, 각국의 여러가지 경절(慶節)이 있을 때에도 국기를 달아 서로 치하하는 것이며, 각국 공사들에 서로 회합할 때에도 국기로서 각각의 지위를 표시하는 법이다. 이 까닭에 모든 경우를 생각하여 어느 나라이고 국기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영국,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는 모두 우리 국기를 그려 갔으니 이로써 천하에 널리 표명된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국기가 한 영효 정사 일행이 우리나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국기를 창안 제정하여 사용하게 된 동기를 알 수 있다.

우리 사절단 일행은 일본의 신호(神戶)에 상륙한 때 처음으로 국기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사절단이 묵는 숙소에도 비로소 태극기가 휘날리게 되고 동경에 도착하여서는 임오년 10월 3일이 일본왕의 탄신을 축하하는 연회장에서도 각국 기와 함께 국기를 사용하여 위신도 높이고 국위도 표시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일은 국기의 창안자인 박

◇우리나라 국기론◇

우리나라 국기가 중국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태극도안에 사대부들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대원군 재정 당시에 벌써 청국인 황준헌같은 인물이 「자기나라의 용기(龍旗)」를 본따서 제정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이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당의태극([illegible])을 국기도안으로 채택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기 도안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겨레의 손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다.

다음에 국기 도안의 내용을 세분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가. 태극의의

태극은 우주만물의 근원이 되고 그 본체가 됨을 말하는 것이며, 지구 생성설의 근원을 뜻하는 것이다.

중국철학에서는 태극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며, 한 쌍의 사람, 한 마리의 동물, 한 마리의 곤충, 일개 물체의 미립자까지도 태극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태극은 음양의 2기를 말하고, 음양 2기는 서로 좌으로 우으로 교류 작용을 일으키고, 양기가 「양」이 돌아 극하게 되면 다시 「음」이 돌고 「음」이 돌아 극하게 되면 다시 「양」이 돌아서 천태만상의 변화를 일으키며, 수, 화, 목, 금, 토의 5행이 생긴다는 것이다.

5행이 생겨난 뒤에서 상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각각 순서에 따라 화생됨으로 동물, 식물, 광물, 기체 등 여러한 물질은 물론하고, 음양의 2기가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천지의 지기를 받게 생성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극의 원(○)은 태극의 통체와 개성을 표정한 부호이며, 원의 가운데가 곡선 「S」을 그려 위를 빨간색, 아래를 푸른색으로 나눈 것은 홍(紅) 즉 양이요, 청(靑) 즉 음의 양의(兩儀)의 뜻이 있는 것이고, 홍은 존([illegible]), 일(日), 수([illegible]), 동([illegible]), 열([illegible])을 뜻

◇우리나라 국기론◇

곳에서 빈틈없는 다함이 없는 정신으로 인도(人道)를 위해서 건(乾), 진(震), 이(離)로 발전하여 여천지(與天地)로 합기덕(合其德)하여 선(善)을 지향하고 있다는 뜻이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평화를 애호하고 일소(一笑)의 생활을 영위하며, 도의와 윤리를 숭상하고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며, 인(仁)과 의(義)를 배움에 세계만방의 인류를 널리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라. 무궁화의 의의

우리나라 국기의 깃대 꼭대기는 무궁화인 것이다. 무궁화는 백화(百花) 중에서 가장 인내하고 또 가장 장시간을 두고 끈임없이 피였다 지고 지었다 피고 하여 무궁무진한 향락(享樂)을 느끼는 것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기는 앞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국가와 민족이 영원무궁(永遠無窮)하게 영화를 누리며 세계와 더불어 무궁하다는 상서(祥瑞)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마. 오색(五色)의 의의

태극기는 오색 즉 청, 홍, 황, 백, 흑의 다섯 가지 색으로 제작되고 있다. 태극의 적색, 청색의 상하좌우 태극의 청색, 흑색 또 괘효(卦爻)의 흑색의 다섯 가지 색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천지가 오성(五星)과 오행(五行)으로 서로 호응하며 오방(五方) 즉 동, 서, 남, 북과 중앙에 오기(五氣) 즉 한(寒), 열(熱), 풍(風), 조(燥), 습(濕)의 다섯 가지 이기(理氣)가 고루고루 퍼져서 만물의 생리를 운행하는 계상(計象)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부터도 오상지덕(五常之德)이니 오륜(五倫), 오복(五福) 등을 들어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불하여 효는 각각 한 분으로 하고 효와 효 사이는 각각 반 분으로 하여 검은 빛으로 한다.

그 위치는 「건」을 좌편상, 「곤」을 우하, 「감」을 우상, 「리」를 좌하로 한다.

나. 깃봉과 깃대

1) 깃봉은 대체로 구형(그 지름이 태극지름의 5분지 1)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를 상징하며 그 밑받침에 꽃받침을 뚜렷이 표시하며 전부 금색으로 한다.

2) 깃대는 대(竹)로 하되 색칠은 하지 않고 대(竹)의 순색으로 한다.

3) 깃대는 「건」과 「감」에 닿게 한다.

다. 기의 대소

1) 옥상에 높이 걸거나 의전용의 기는 넓이 150센치와 1백센치의 두 가지로 한다.

2) 일반 가정용의 공기는 넓이 1미터와 70센치의 두 가지로 한다.

3) 손에 들 소기는 넓이 30센치와 20센치의 두 가지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임의로 치수를 만들어도 무방하나 그 길이와 넓이의 비례는 반드시 3과 2로 해야 한다.

5. 국기 게양 방법

우리가 국기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이를 정중히 해야 하며, 이를 게양하는데 있어서도 그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기론◇

그러나 한일합방과 동시에 한국민의 독립정신의 발현은 더욱 크게 시작했던 것이다.

일제 관헌의 삼엄한 총칼 아래서도 조국애에 불타는 안 중근 열사의 의거, 이 준열사의 헤이그분사, 윤 봉길열사, 이 봉창열사 등의 피어린 의거를 비롯하여 전국의 남녀노소가 총궐기하여 일으킨 기미년 3·1 독립운동 등 민족의 분노가 폭발할 때마다 우리 선열들은 태극기를 내들고 싸웠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 태극기는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피로 물들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기는 국민의 애국심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애국선열들의 피어린 독립투쟁과 3·1의 위대한 독립정신의 결정으로 조국이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세계에 우리 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하고 악몽 같았던 주권과 국토를 회복하였을 때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구겨진 태극기를 다시 내들고 울긋불긋이 휘날리며 환호에 만세소리를 천지가 진동하도록 외쳤던 것이다.

이와 같이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민족의 피눈물로 지켜서 온 존엄하고도 영광스러운 우리 국기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같이 태극기 아래 굳게 뭉쳐 공산침략을 이 국토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국기가 지닌 바 심원한 애국사상은 널리 사해에 선양될 것이며, 우리 민족과 더불어 영원무궁토록 길이 빛나야 할 것을 강조해 둔다.

군의 정신교육 강화책

군목 김 갑 대

정신교육 강화의 필요성

세계의 고금(古今)이나 동서(東西)를 막론하고 군의 정신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옛날 중국의 병서(兵書)인 손자병법이나 육도·삼략(六韜·三略)과 제이차 대전(大戰)시의 유명한 전략가 「칼·폰 클라우제비치(Karl Von Clausewitz—1780~1831)」의 전쟁론(戰爭論)에 강조되어 군의 정신교육 강화가 장군(將軍)의 지휘하는 요소임을 더 치유고 있을 뿐 아니라 영국의 사회철학자 「토인비」(Arnold Toynbee—1852~1953)는 "나라의 흥망은 외적의 무력에 의해서 보다 더 내부적인 정신력에 의한 것"이라고 정신적인 요소가 중요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군의 정신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이 정신교육을 강화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로 군에 있어서 모든 물리적인 자원이 우선하며, 장비와 물자를 관리 운영하는 인적 요소인 군인정신의 여하는 전쟁의 승패나 강약에 좌우되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중요한 군인정신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그의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오늘날과 같이 전쟁 양상이 세분화되어서, 국지전쟁, 동란전쟁, 부족전쟁, 제한전쟁 등으로 다양화 되었고 혹은 혼합전쟁(베트남전쟁 게릴라전)과 정규전(국지 무기전)의 형태를 띄고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현대전에 있어서는 더욱 더 군의 정신력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이다.

군인정신 개념과 그 형성요소

군의 정신교육 강화책을 논하기에 앞서 군인정신의 개념과 그 형성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 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이며 이 저해요소들을 제거한 후 군의 정신교육 강화책의 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논리라고 보고 아래와 같이 약술하는 바이다.

먼저, 군인 정신이란 공군대학 학술연구부의 정신무장에 관한 연구논(1965. 7.)에서 발췌해 보면 "군인으로서의 필요한 올바른 도덕 의식과 올바른 행위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 군인정신의 형성요소는 국토와 국민의 결의 및 자유 수호를 위한 헌신(충성), 필승의 공격정신, 책임완수, 군기엄수, 예절, 협동단결, 통일결속, 신도, 명예, 정의감 등으로 구별하고 볼 수 있다.

군의 정신교육 활동의 현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군에 목표하는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군의 정신교육 활동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냉엄한 우리 공군자체의 입장에서 고찰해 볼 때 여타 교육과는 달리 그 중요성에 비하여 많은 저해요소와 제도의 우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정신교육 실시는 공군규정50-3(1966.8.10)에 의거 지휘관, 정훈관, 군종장교, 군기보안관, 안전관, 법무관 및 기타 훈육관에 의하여 최소한 월 1회, 주당 연12회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대의 교육실시에 있어서 무시되고 있는 여러가지 저해 문제들과 그리고 교육 담당자들의 경력이 준비상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그 여러가지 활동에 비관적인 실정이다.

정신교육 강화에 있어서의 저해요소

"현재" 사회악 언경이 주는 저해요소
신미도의 납북사건을 비롯한 총기 탈취후 세던 인질, 군경과의 총격전 사건, 해신한 어선 월기 사건, 그리고 작품 재동사고 및 음주난행 등 일련의 사고와 탈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군인에 대한 관심과 비난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사고의 원인이 군대 내에서만 형성되어진 것이냐?하고 하는 책임 문제를 논하게 될 때 이는 당연히 일반 사회의 책임이 그 배경에 있어서 더 원동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각종 사고의 원인을 유발하는 변경적 인성이라는 것이 「아지레스(Aggressive)」의

「인간 행동」 조직 관리론에서 본 때 「인간에 의하여 조정되고 환경에 의하여 변화된다」는 원리에 적용해 보거 들더라도 상기한 각종 범죄와 불륜의 발생 사회 환경 속에서 변화 형성되어진 일상이 군의 일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각종 범죄의 주요 요인인 사회풍에 젖은 상태의 인간이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또한 군 그 책임을 면할 사회가 더 크게 느껴야만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제도상에 있어서의 저해 요소

현재 공군에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정신교육 강화의 한 결제 요에서 손 시켜지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즉, 저해 관 경연대회, 정훈교육, 인격지도교육, 군인교육, 군기 교양교육 그리고 각급 훈육관들의 정신훈화 등은 이 교육에 수반되어야 하는 인원, 장비, 교재, 예산 등의 여러면에 있어서 상호 유기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다. 교육자의 권위와 참여의식을 통한 올바른 도덕의식과 행위 능력을 요구하는 정이 결손 교육정을 생각할 때 계속적인 연구와만 문제나 시험하게 성과적은 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직활동 계획 등에 군의 정신교육으로서의 원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교육 방법상의 저해요소

군의 정신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피교육자들을 피동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강압적 주입식 방법, 시사성 없는 전시효과적 강습 교육을 통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각종 행사 후에 훈령 또는 설교으로 토론 생략하는 형식이다. 반공계조, 윤번대회, 강연회, 도덕당사, 종교집회 등의 중식으로 인한 정서적 방법 등이 있는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은 주로 주입식 일괄 방법을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교육은 여타 군사교육과는 달리 주입식 방법으로는 도저히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교육으로서 앞으로는 주로 능동적이며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담당자의 자질에 있어서의 저해요소

정신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요소는 교육 담당자의 자질문제인 것이다. 그 이유는 정신교육이 일시적인 도덕교육으로 교육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른 행동적인 행동을 결과로 하는 지도교육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자의 모범적인 언행과 솔선을 통한 그대로 인격을 중요시 하기 때문인 것이다. 술에 만취가 되어 있으면 무리로 사고만 일으키는데 무반성이 자기 부하들에게 음주난행에 대한 주의를 주는 교육을 한다든지 군대

문제를 유능하게나 습관적이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정신전력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조소거리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정신교육 담당자요원의 현실문제, 자격을 갖춘 교관이 필요한 것이다.

"구성적" 정신교육성과 측정에 대한 저해요소

정신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주는 대체적으로 관찰법, 질문지, 시험법, 보고서 분석, 평가, 검열, 질문 등이 있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측정방법들을 검토해 보면 관찰법은 정확성이 희박하고 질문법, 시험법, 보고서, 검열, 질문 등은 체계 형식에 치우치기 쉬운 것이다. 이런면에서 정신교육은 여타 교육에 비해 성과 측정이 장병의 정신면을 분석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교육의 성과 측정은 어느정도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이를 참고로 하여 다음의 정신교육강화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쇄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의 제도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데에서 정신교육 측정에 매우 중요한 점일 것이다.

정신교육강화에 있어서 저해요소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개선책

지금까지 정신교육 강화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저해요소들을 열거해 보았으나 문제는 이 저해 요소들을 시정케 제거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군인 정신을 지닌 바람직한 군인을 최단기간 내에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군의 정신교육 강화책이 될 것이다.

첫째, 사회와 관습이 주는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해결 방안으로는 사회에서 민간인으로서 군문에 입대하는 교육부대인 육군훈련소, 기술교육단 및 기술 교육학교, 육군행정학교의 기본교육 과정에서 사회악의 요소들은 능동적인 최선의 교육방법으로 제거하고 군인정신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신 구향대(기간)에 따라 입대해서 일 주일 간에 걸쳐 국토방위와 사명관 확립, 책임완수, 군대예절, 일동단련, 충성결백, 정직, 명예, 전우애, 사생관 확립 등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한 후 정식으로 입대시켜 군사훈련 및 기본 교육을 실시케 하는 것이 전반적인 군의 운영면에서 볼 때 효과적이며 능률적이라고 본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마지막으로 정신교육 성과 측정에 있어서의 저해요소 지적 해결 방안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관찰법, 면담법, 보고서 분석, 평가, 질문, 방문 등이 있다고 논할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이 측정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형식적인 면이 많으나 오늘의 과제를 해결키 위해서 엄격하게 측정하되,

(가) 각급 정신교육 담당관으로 구성된 기구를 통한 각 부대별 정신교육 위원회의 교육성과측정보고서(월도 작성 양식 예시)의 분석

(나) 각 부대 사고율 분석

(다) 교육방법별의 문제 해결방안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실행방법, 실시상태, 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요약해 본다면

급상 정신교육 위원회 분석……40%

각종 사고율……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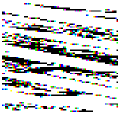
구체적인 실행방법 실시 상태……30%

등 백분율로 측정 분석 검토할 수 있으며 여기에 또 한가지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중앙 기구에서 도별 부대에 대한 시찰과 각 부대의 정신교육 위원회에서의 소속별 대부반별 계열별 제창을 철저히 실시하는 보충제도가 병행되는 것도 결코 도외시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상에서 군의 정신교육 강화책을 위한 그 필요성과 군인정신의 개념과 그 형성 요소들을 열거하고 현실에 있어서의 정신교육 활동의 병폐와 저해요소들을 열거한 후 이 저해요소들의 제거방안과 함께 정신교육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전략가들에 한결같이 지론으로 주장한 강군 육성을 위한 군의 정신교육강조는 이상과 같이 많은 문제점과 저해요소들에 내재되고 있는 요인이며, 이 난점들을 제거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군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신교육강조책은 바로 국가적인 문제이며 각급 지휘관과 모든 정신교육 담당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전 장병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 × ×



링 컨

—노예해방의 선구자—

오월의 태양은 눈부신 빛으로 뉴 오르리안스의 항구를 비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기들을 펄럭이며 정박한 크고 작은 증기선에 높고 낮은 기적을 울리면서 항구를 나가고는 들어 오는 것이였다. 조여들게 거세운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하여 항구의 상점들은 모두 너울을 내리고 서늘한 그늘 밑에 색색가지 풍부한 상품을 진열해 놓고 손님을 부르고 했다.

게다가 프랑스인이나 미국인 중 부자인 멕시코인이나 이탈리아의 신사들이 흥겨운 웃음소리를 내며 상점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또 상점 뒷골목에서는 떠들석한 거리들 축석임이 왔다 갔고 술집 여인은 들레이고 유랑자들이 목소리를 타고 흘러가는 뉴 오르리안스의 항구거리는 한편의 대만처럼 오색(五彩)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이 번성하고 화려한 거리를 걸으며 키가 큰 청년이 주위의 번화함에서 떨어져 있는 듯이 울울한 얼굴을 하고 고개를 숙으리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어도 좋을가! 살갗 색갈이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인간이 인간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소나 말처럼 부려먹는다. 백인이건 흑인이건 똑같은 인간이 아닌가,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용서될 수 있을가?

그 청년은 이렇게 독한 분노를 가슴 속에서 되풀이 하고 있었다.

이 청년은 바로 3~5일 전 미국 북부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로

부터 많은 화물을 배에 싣고 상가몽의 격류를 타고 일리노이강을 거쳐 미씨시피강을 계속 장쉬 천 수백 킬로의 하천여행을 계속하여 미국 남부의 어항구 뉴 오를리안즈에 도착한 것이었다. 미국의 거대한 미씨시피강을 화물을 만재한 배로 여행한다는 건 긴장된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이 청년은 훌륭히 그 책임을 완수해냈던 것이다. 일을 무사히 마친 다음 강에서 청년은 뉴 오를리안즈의 거리를 구경하러 나섰던 것인데 오늘 이 청년은 우연한 기회에 못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그것은 <노예 매매시장>이였다.

젊은 흑인이 쇠사슬에 매여져서 채초리 밑에서 한줄이 걸어가서 백인의 상인 앞에서 벌거벗은 체격을 보이고 있었다.

「이봐 이 흑놈 인삼은 건장한 사내가 넌 7백딸라, 자 누가 살 사람 없나?」

「7백 50딸라」

「8백딸라」

가격이 점차 올랐다.

「자 마지막으로 거덕된 물건이 남았어」

이렇게 말하고 노예상인은 한 사람의 흑인 녀자를 끌어 내었다.

「자아 잘 보세요. 흠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살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노예상인은 흑인 녀자의 옷을 홀랑 벗겨 버렸다. 흑인 녀자는 그런 꼴을 당하여도 무저항인 채로 발가벗고 대중 앞에 조개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눈을 돌리고 싶어지는 비참한 광경이였다.

청년은 이 노예시장을 보았던 것이다. 미시시피의 배타를 거친으로 해쳐온 용감하고 슬기로운 청년도 이 처참한 광경에는 온 몸이 오들오들 떨려 뉴 오를리안즈에 도착하였을 때의 즐거운 마음도 어느 사이엔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청년이 음울한 얼굴을 하고 걷고 있던 것도 그럴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그럴 어떤 에게 못할 이유가 있다 해도 말이다. 남부의 면화농업에 흑인노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illegible]

들에게 팔아 먹었던 것이다. 한 항해에 2,3백명의 흑인을 싣고 돌아오면 한번에 10만딸라 정도의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남부의 발전과 더불어 흑인 노예제도도 번창하여 갔다.

한편 미국의 북부는 토지가 좁고 농업에 적당치 않은 반면 일찍부터 상공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북부 사람들은 수레, 배, 운하, 기선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도입하여 대공업을 일으켜 값눅은 노동자를 사용하여 공업생산품의 제조에 힘을 기울였으며 청교도의 피를 물려받은 북부 인들은 어디까지나 인권을 존중하고 노동을 꺼리는 남측 땅에서의 노예노동의 사용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남부와 북부는 모든 점에서 대립하고 있었다.

링컨이 자라난 북부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미 일찍이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링컨이 노예시장의 비참한 광경을 보고 강렬한 충격을 받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때부터 북부도, 일부에서는 노예제도를 반대하여 불쌍한 흑인을 구제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링컨이 뉴 오르리언스의 노예시장에서 본 것과 같은 광경을 목격한 윌리엄·로이드·개리슨이라는 청년이 1831년 1월 1일 보스턴에서 <해방자>라는 주간잡지를 발행하여 노예해방의 최초의 봉화를 올렸다. 개리슨의 생각에 찬성하는 세력은 해마다 불어나서 노예제도 반대체가 속속 창립되어 회원은 20만에 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미국은 노예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남부와 북부의 대립은 점차 악화되어 갔다.

젊은 링컨이 공감한 개리슨의 사상에 동정한 것은 물론이었지만 미국의 켄터키도 숲속에서 빈곤한 나무꾼의 아들로 태어난 링컨은 우선 자신의 생활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뉴 오르리언스로부터 일리노이에 돌아가자 링컨은 다시 직업을 찾아야만 했다. 링컨은 생활을 위해서 투쟁하였다. 그 지방들의 길가에서 잡일노동을 하였다. 우편사무원도 하였다. 공부를 하여 측량기사의 자격증을 얻자 측량으로 돈을 벌었다. 그 사이에 생활의 고충은 필설로 다 할 수 없게 비참하였으나 링컨은 생활의 고투에 불

구하고 꾸준히 책을 사 읽었다. 그리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명랑하였으며 주위의 친구들에게 재미있었고 마음씨 곱을 보류하는 「고지식한 에이브」라는 별명을 얻었다.

점원, 뱃일꾼, 측량기사의 경험이 링컨에게 실지적인 지식을 준 것이나 링컨은 늘 새로운 학문의 구석구석까지 환히 알고 있었다.

1834년 링컨은 마을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주(州) 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링컨은 선거 연설에서 어려운 정치의 이상이나 이론보다는 언제나 실행할 수 없는 정책은 주장하지 않았다. 링컨은 구석구석까지 알고 있는 뉴 세일름 마을부근의 도로를 어떻게 하면 좋다, 개간의 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투표결과 링컨은 당선되었다. 이로부터 링컨의 정치운동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링컨의 정치활동의 꽃이 피는 1847년에 일리노이주 선출인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다. 이 때 링컨은 이미 일리노이주에서는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였다. 국회의원이 되어 워싱톤에 가기까지 1년간 링컨은 새국회 소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이 때 텍사스에 얽힌 문제로 분쟁되고 미국과 멕시코와의 소두 멕시코 전쟁이 발발하였다. 물론 전쟁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1848년, 멕시코는 텍사스의 관여들과 캘리포니아, 유타, 애리조나, 뉴 멕시코 지방을 미국에 할도하게 되었다. 링컨은 이 전쟁에 반대하였다. 그것은 미국이 멕시코의 약점에 편승하여 일방적인 침략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국회가 열리자 링컨은 당시의 대통령 포오크에게 대하여 공개적 화살을 던졌다.

「전쟁의 최초의 피를 흘린 곳이 미국 땅도 아니고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조금이라 하더라도 멕시코 영내에 침입한 병후에 전쟁의 불길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명백한 침략행위가 아닌가. 포오크 대통령이 앉은 의자에는 인제가 위험하게 앉아 있었다. 포오크 대통령은 그것을 생각하여 위험한 대답한 것처럼 말만을 하야 할 것이다.」

일리노이의 산골에서 선출된 몸집이 커다란 사내가 정단에 설서

행한 이 열렬한 연설은 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정의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나 당시 전쟁열에 들떠 있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반감을 갖게 하고 미움을 사게 되었다. 이것을 본 링컨의 친구 헤른은 링컨을 우려하여 그런 연설은 곧 중지하는게 좋다고 충고하였다. 그 때 링컨은,

「만일 대통령이 이웃 나라가 침입해 올 것 같다고 예상하고 이웃 나라를 침략한다면 그가 그렇게 생각할 때면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링컨은 이런 위기에서도 인류의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전사였다.

국회에 나가서 링컨이 하는 일은 또 하나 있었다. 깨끗한 가슴에의 양심 링컨의 가슴에 깊은 자국을 남긴 <노예매매 시장>의 광경을 보고 오래동안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던 노예제도 폐지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수도 워싱턴 주변에 있는 조그만 콜롬비아 구의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었다. 링컨은 이 작은 관청에서 구의 노예제도로부터 점차적으로 전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켜 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해에 얽힌 많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법안은 유명무실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링컨이 국회에서 얻은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이리하여 그는 홀로 외롭게 스프링필드로 돌아왔다. 링컨은 국회의원에 나간 것을 단념하였다. 그 후 링컨은 변호사업에 종사하고 일리노이 재판구의 황야를 누비며 마차를 타고 주로 순회변호사를 하면서 조용하게 살고 있었다. 6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링컨이 순회재판의 변호사를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노예문제를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가 전쟁을 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것은 노예문제에 대하여 남부와 북부가 1820년에 체결한 미조리 협정(協定)이라는 것이 다음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 의원 더글라스에 의해 폐지되려 하고 있었다. 미조리 협정이란 북위 36도 30분부터 북쪽에 신설하는 주는 모두 자유주가 되어야 한 것이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더글라스는 더 멀리 남부의 인기를 끌어 보려고

「캔사스와 네브래스카가 자유주가 되는가 노예주가 되는가는 30여년 전의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합중국의 과거 정신에 따라서 양주의 주민의 자유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국회에 제안되었다.

그 건국의 정신이 「자유와 평등과 독립」을 부르짖는 미합중국은 이권에 눈이 어두운 정치가가 아니고 진정으로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정치가가 출현할 것을 희구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나의 마음을 괴롭혀 온 문제, 노예제도 문제에 신음하는 몇 10만 아니 몇 백만의 죄없는 흑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미국의 건국정신인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이야 말로 투쟁해야 한다」 링컨의 가슴 속에는 노여운 피가 끓어 올랐다.

「모든 것은 다 잃어도 정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링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노예 해방을 위한 싸움에 뛰어 들어 갔다. 링컨의 앞길에는 남북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링컨을 노리는 흉탄도 기다리고 있었다.

연 보

1809년 2월 12일 링컨은 켄터키주의 호젠스프링이라는 숲 속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빈곤한 개척자이고 나무꾼이었다. 어릴 때부터 갖은 고생을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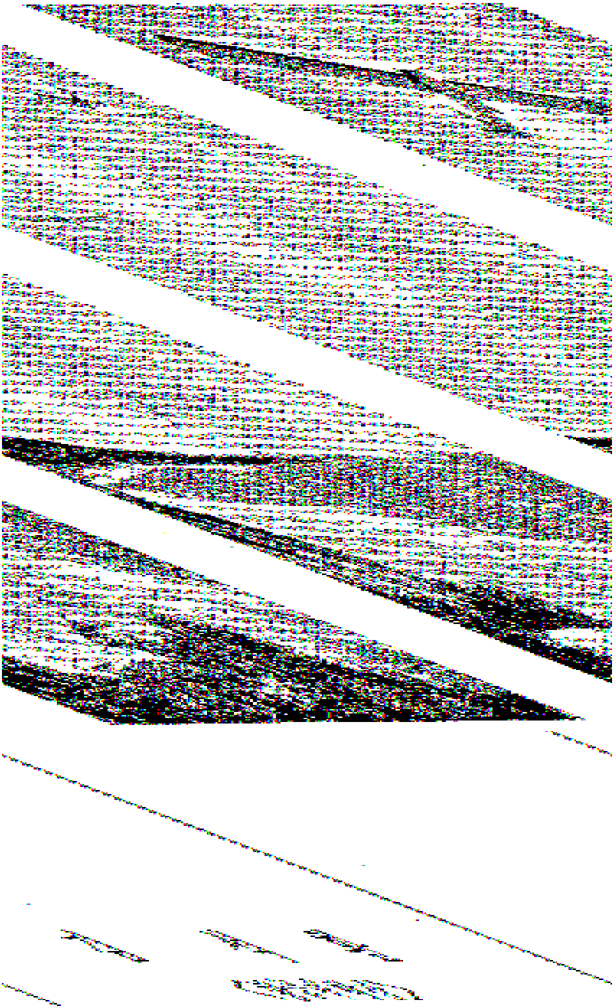
1834년 일리노이주의 주의회의원에 당선되다.

1847년 일리노이주 출신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다. 한 때 정계에서 물러나 변호사 생활을 한 적이 있으나 미즈리협정을 폐기하고 남부와 북부가 대립되자 다시 정계에 복귀하다.

1860년 노예해방을 전제로 대통령에 입후보하여 미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 선언」을 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1864년 대통령에 재선, 리치몬드를 순시한 후 워싱턴에 돌아와서 연극 관람 중 남부출신 흉한의 권총에 맞아 1865년 4월 15일에 숨을 거두었다.

과학하는 항공스포츠 진흥운동



1. 머리말
2. 항공 스포츠
3. 활공훈련의 기초적 가치
4. 과학하는 스포츠 Soaring운동
5. 활공기상
6. 제주도의 순적 상승기류 분석
7. 항공 설계계획의 문제점
   -1. Motor Glider의 도입 및

그러나 이 분야가 기술만으로써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끌어내는 것은 사람이며 이것을 더욱 성장시키고 육성시키는 것도 또한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새로운 기술로 꽃을 피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이것을 받쳐주는 사회적 배경과 합치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기술의 진보에는 반드시 계단이 있으며 단순히 연속되어 계승되는 것만이 역사는 아니다.

또 하나의 항공분야에 있어서 그의 발전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전쟁이며 전인류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전쟁은 항공력을 요구하였다.

전쟁은 비행기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큰 동기가 되었으며, 비행기의 발달이 또한 전쟁형태를 바꾸었으며 그의 지도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항공기는 전쟁의 도구만은 아니며 인류의 평화적 문명의 이기이다.

전쟁은 수 많은 명작 비행기를 만들어내게 하였으나 동시에 많은 명기의 시람을 뛰어내리게도 했고 일치같은 많은 기대와 새로운 인류의 운명을 걸고 하늘을 날으게도 하였으며 그 한때 한때가 비행의 역사와 얽혀졌다고 본다.

비행기는 타는 기체가 아름답다는 것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것도 아니며 그의 비행효과는 Speed감만이 그의 매력의 전부는 아니다.

비행기는 우리들을 동경하는 하늘로 이제의 넓은 세계로 날아주는 존재만은 아니며 이곳에는 인간의 지혜와 용기 남김없이 주입되었다.

비행기는 다른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한 진실성과 인간미를 더욱 느끼게 한다.

과학의 상징인 비행기와 대자연 공간의 조화시키며, 구름과 바람과 광선 속에서 자연상승풍을 이용하는 Soaring을 주체로 하는 과학하는 Sports는 항공계는 꼭 필수가 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시대라는 큰 피라밋을 세우려면 그의 기반이 되는 저변은 개편되어야 하며 그 높이를 높이려면 매우 견고하고 넓은 저변이 필요하다.

이 저변을 마련하는데 보다 중요한 것으로 과학적 항공Sports의 대중화 등을 수 있으며 특히 유망한 청소년의 지구적 참여 여부는 우리나라 우주항공 발전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문제제기, 탐구, 응용의 원활한 순환은 학계의 Academic한 활동과 비행하는 항공Sports활동을 확고한 기반위에 놓을 것이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무게조석의 항공기도 모든기관조조석의 항공기도 모두 Sports조석의 활공에서 투입된 것에 불과하다.

현대적 의미에서 무게 및 운수체공조조석의 항공기가 갖는 절대적 가치 파급에 Sports조석의 항공은 일반에게 종미를 일게 되었으며 일에이기기 쉽게 되었다.

그러나 항공기를 이익없이 타거보게 한 것은 Sports조석의 항공기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한없이 넓은 창공 속에서 글라이더를 타고 상승기류를 찾아 구름에 도전하고 탁월하나 한계점에서 바로에 날으는 솔개란 스릴이 가득한 활공의 산책은 다른 어느 스포츠와 비할 수 없는 상쾌한 항공스포츠로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항공·스포츠로써 글라이더를 탑승한다는 것은 활공훈련을 통한 신체의 한계와 체력을 양성하여 행동정신 및 책임감을 왕성케 한다.

나아가서 글라이더를 자신들이 직접 설계하며 제작 수리하여 스스로의 비행경험을 살려서 항공 지식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 다른 스포츠와 크게 다른 점이다.

대공을 동경하고 돌새의 아름다움에 현혹된 많은 청년의 대열이 대공을 정복하였다.

무엇인가 안전하고 무엇인가 정복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열의 타오르는 의지력이 기여되는 때가 있다.

항공Sports가 갖는 도덕적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고 또 항공이 국민의 안전한계 국가의 방위를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생각할 때 항공Sports는 Sports로서 Sports에 상위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에도 다음 세대를 짊어질 한국 청소년으로서 금후 항공 Sports를 보급시켜 항공의 경험을 갖게 하고 자라나는 세대이 한 명도 없이 한 번 쯤 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바 크다고 생각한다.

3. 항공훈련의 기초적 가치

항공훈련은 장차 조종사가 될 소질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게 예비 수단을 제공한다.

인간에 비행하여 절벽 새들의 날으는 모습을 보고 인간도 날을 수 있겠는가 하는 꿈을 실현게 위해 과학자나 교육자들이 많은 연구와 실험을 해 왔다.

이 것을 역사적으로 추구해 보면 수준의 요인이 게재되어 있다.

첫째, 인간에 새와 같이 날으고 싶다는 사고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

둘째,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후에 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한 요소를 결정짓는데는 정밀분석하지가 그 중에 같은 것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겠구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활공훈련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비교의 어떠한 방법에 있어서 보아도 실제적 특성이라고 하는 심리적 요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비행을 위한 정체를 발견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는 활공 경력은 이탈 14세경부터 벌써 시작할 수 있고 정식 조종사가 될 소원이 있는 사람은 비행하는 동기를 어려서 갖게 하고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궁극적인 책임을 수를 위해서 그만큼 잘 된다.

그를 훈련시키는 교관은 장시간에 걸쳐 관찰함으로써 성격적 개성이라고 하는 무형적 것에 관한 그의 잠재적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시기에서 한 훈련이 비행사로서의 적합 결정이 내렸을 때 만일 그는 스스로 활공으로서 계속하면 될 것임으로 생리학적으로도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의 작용을 받게 된다.

지난 1961년 화란의 모 비행훈련학교가 3년간의 실과정을 완료한 경제 학생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1. 훈련기간을 거의 한 자 — 글라이더 경험없는 조종사 18% 글라이더 조종사 없음
2. 고등훈련을 받도록 승인받은 자 — 글라이더 경험없는 조종사 27.9% 글라이더 조종사 76.9%
3. 훈련기간 중에 실격한 자 — 글라이더 경험 없는 조종사 13.3% 글라이더 조종사 없음.

훈련은 더욱 효과 시켜야만 되고 더욱 간편하고 어느때 보다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활공의 잠재력을 스스로 충분한 자격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활공기의 역사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는가를 살펴본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늘을 날아오르는 도구로서 생각하였으며, 실제에는 Sport로서 간주하였다.

제1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비행기 조종의 한 수단으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그 훈련 방식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의 제1의 이유로서 주로 경비면에 있다.

자신이 비행할 Deutsch에서는 조종훈련의 초보부터 고가의 비행기를 사용하고 유출된 Gasoline을 소모시키는 것은

[illegible]

항공기이므로 그의 조작과 운동은 전투기와 하등 다른 것이 없다.

사실상 활공훈련을 받은 청년은 실용비행기를 탈 때 전혀 처음 타는 사람보다 약 20% 빨리 단독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한 사람에 거의 5시간의 활공 기술습득이 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만큼 연료, 기재의 절약, 이에 따르는 모든 것에 절약되어 그 만큼 경제적 운영에 될 수 있다.

활공훈련은 단지 기술 문제만이 아니고 어느 면에 항공정신의 함양이다.

청년들에게 활공 내공(滑空)의 '맛을 가르고 하늘로의 진출해야는 것은 한 시간 빨리함에 청년에게 큰 실현을 주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1970년 현재의 국제 공인 활공기록

1. 직선 비행거리

단좌기(單座機) 1,231.525km
1964년 7월 31일 미국

복좌기(複座機) 921.9455km
1967년 6월 3일 소련

2. 절대고도

단좌기(單座機) 14,102m
1961년 2월 25일 미국

복좌기(複座機) 13,489m
1952년 3월 19일 미국

3. 삼각코스

단좌기(單座機) (300km코오스)
138.382km/hr 1957년 8월 4일 서독

복좌기(複座機) (100km코오스)
107.780km/hr 1959년 9월 2일 폴란드

항공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비행기의 우월을 증명된 뒤에서 활공기가 도움에 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기록이 세워졌다.

전쟁에서 벗어나고 활공을 계속해온 시대를 맞은 활공을 발전시켜 새로운 면에서 과학적 기술의 탐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한 프로펠러 후진에 음속돌파의 한계점으로 Jet engine의 출현 추진에 대치되어 추진력 향상으로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다.

안전도가 높아진 관계에서 누구라도 새로운 기술적 진전 발전은 활공계에도 있는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다.

4. 비약하는 스포츠
Soaring운동

인간의 참된 의지에 우리들의 선조는 여러가지 시도를 시험하였다.

더욱 고대 시대도 있었고 활공의 관찰기도 있었을 것이다.

중앙유럽(中央歐洲) 어떤 시대에서 보는 계획을 해왔던 것이다.

오늘같이 청년이 몸에 쾌감을 느끼는

[illegible]

력으로 활공훈련에 박차를 가했으며 나아가서 Motor glider를 정식으로 채용하여 전사회적 조종사 양성에 활력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항공국은 항공계에서 Motor glider에서 연습기로의 과정을 확립시켜서 활공기에서 비행기에게의 종래의 방식보다 매우 시간을 단축시켜 훈련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모든 청년들은 하늘을 애호하여 가소나마 비행의 체험을 하고 비행의 항공대원을 위하여 활약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할 수 있는 것은 Soaring활상(滑翔)에다.

활동기 없이 날으는 Soarer (滑翔機)의 묘미는 바람을 좇고서 친구들을 태우며 누비는 것이며, 이것은 청년에게는 굉장한 매혹될 것이다.

청년에게 대공을 날을 가져는 지금에 다. Soaring을 함으로써 청년층에 모든 사람은 항공으로의 출발이 가장 안전하고 손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Humanist인 HUMBOLDT가 말하였다 「너희들의 청년을 보여다고, 그러면 너희 나라를 알 수 있다.」

5. 활공기상

—머리말—

새와 같이 유유하게 하늘을 날으기 위하여 온갖 활공사들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활공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높게 멀게 그리고 자유롭게.

하늘을 마음껏 날으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상승기류의 탐구가 필요하였다.

유명한 기록비행을 이룩한 활공사들은 여러가지 상승기류 속에 돌입하고 구름과 폭풍우 속에도 날아 들어가서 탐색하였다.

불행하게도 몇 사람의 활공사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승기류의 지식은 이러한 귀중한 노력과 희생위에 구축된 것이다.

수직상승 기류의 개념

수직 상승기류는 대기의 순환체계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며 그 규모나 강도는 순환체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Soarer의 원동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상승기류는 그 강도가 커서 활공에 결정적인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또 지속시간에 지나치게 짧아도 안 된다.

큰 원형계에서의 비교적 지속적인 상승기류가 가장 적합한 동력원으로서 이용되게 된다.

상승기류를 크게 나누면

열력(熱力) 원인에 의한 것과 기계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류된다.

학문으로 나누면 열역학(熱力學)적 원인과 역학(力學)적 원인으로 대별 또는 결합하여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상승기류는 그 발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도 된다.

(1) 순열(純熱)적 상승기류

(2) 지형성 상승기류

(3) 기상성 상승기류

1) 기단성(氣團性) 상승기류

2) 수렴성 상승기류

(4) 복합성 상승기류

1) Hang Wind

2) 여행성 상승기류

3) Foehn 상승기류

위에서 수렴성 상승기류는 저기압과 전선 등의 중심부근에서 기류가 몰려서 집중되어 발생하는 상승기류인데 이것은 저기압과 전선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

곧 산의 사면이 V자형으로 벌어져 있는 지형에서 바다에서 불어들이는 기류가 좁은 곳을 통과하게 되면 이곳에 공기가 머무르게 되어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수렴성 상승기류는 지형 상승기류로 분리할 수 있다.

Hang Wind는 산곡풍(山谷風)이라고 하며 이것도 사면(斜面)에서 발생하는 기류에 열적원인이 작용하여 상승하강기류가 생기는 것으로 지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성(旅行性) 상승기류는 한랭기단(寒冷氣團)이 비교적 온난한 해면을 통과할 때 기단의 하부층이 더워져서 불안정 상태가 되어 발생하는 상승기류며 이것은 기단의 특성이 현저하므로 기단의 상승기류로서 분류할 수 있다.

Foehn 상승기류는 유명한 Moazagotl e구름이 발생한 곳의 상승기류며 이것은 기류가 산맥을 넘는 것이 제1조건이 되므로 지형성 상승기류라고도 분류할 수 있다.

실제로 상승기류를 조사해 보면 하나의 간단한 원인이나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가지 조건이 결합하여 서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논술한 점에도 복합성 상승기류라는 종류를 넣게 되었다.

요약하면 상승기류는 구름을 형성하거나 악천후의 원인이 되기 쉽다.

악천후일 때에는 반드시 상승기류가 발생하며 좋은 날씨에는 하강기류가 생기게 된다.

상승기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은 그의 존재를 알려준다.

따라서, 구름관찰이 중요성을 띄는데

된다.

상승기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1) 공기가 따뜻한 지면이나 해면에서 더워질 때

(2) 상공에 차가운 공기가 침입할 때

(3) 공기가 산을 넘어 흘러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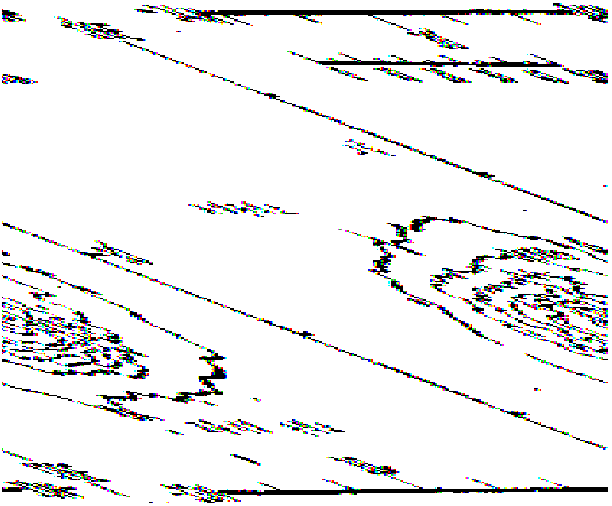
(4) 공기가 저기압 내부에 중심으로 침입할 때

6. 제주도의 수직 상승 기류분석

제주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 싸이고 중부에는 해발 1950m 높이의 한라산을 비롯한 700m이상에 달하는 여러 산들이 고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 고지대에서 동서해안과 남북해안으로 기울어진 경사면은 각각 그 기울기가 평균 1/30과 1/10이다.

이곳에서 형성되는 지형풍은 주로 해풍과 Foehn이다. 이 현상은 모슬포의 Rawin Sonde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지역의 경도풍(傾度風)은 겨울에는 주로 북서풍(北西風)이고 여름에는 남서풍(南西風)이다.

따라서 분석 내용은 생략하고 그 결과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6. 1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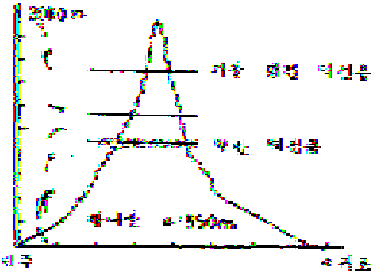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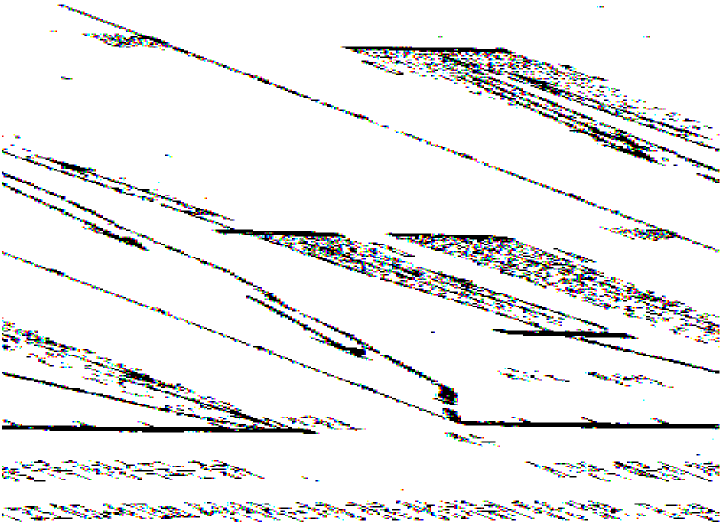


그림 6-2 제주도 단면도

NKW 이동에 수직 방향 TIROS로서 인공위성 TIROS로서 관측된 KARMAN 渦列 現象에 발생한 때의 형성층(습도70%이상)에 표시되었음.

시 : 1962. 3.5. GMT 5시.

그림 7. 한라산의 상승풍



C 동쪽 산정(한라산 1950m)하지는 상승풍이 있다.

D 과학·산정에서 강력한 하강기류가 있다.

제주도에서 Glider가 이용할 수 있는 수직기류에 흔들는 다음과 같다.

첫째 :

해풍에 실 때 종두 고지에 부근에는 상승기류가 항상 있다.

가장 속도가 강한 고도는 0.3Km~1Km이며 이 고도에서는 상승기류가 항상 존재한다.

이 고도는 해안선에 접근할수록 낮아지며 해안에서 고도 150m에서는 해풍이 강할수록 더 상승속도가 증가된다.

둘째 :

기상공속에 5m/Sec 이상이면 풍상측(風上側) 경사면과 산정 부근 사이에는 상승기류가 있다. 풍하측(風下側)에는 제한선까지 하강기류가 있다. 이 때 풍속도는 하한선에서 가장 약하고 고지대에 접근할수록 강해진다.

7. 항공기 설계 제작의 문제점

—국내실정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항공기의 설계제작이라 해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재료, 계기, 보기들을 모두 우리 국내생산품으로 충당시키려 한다면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Engine을 비롯하여 모든 보기재료(補機材料), 그리고 제작에 사용될 시설을 선진국에서 도입해서 사용한다면 항공기의 설계제작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들의 시험성적(試驗成績)을 따른다면 그들의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요구되는 항공역학적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구조상의 소요 안전도를 갖는 항공기의 설계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Engine, 보기재료, 시설 및 재료 등을 외국에 의존한다면 남은 일은 항공역학적 구조역학적 시험 및 계산이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옛날부터 알려진 항공기술 선진국이지만 다른 작은 나라들에서 제작된 비행기들이 성능 좋은 것을 생산하고 있다.

스웨덴,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작은 나라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제작하고 있다.

그들은 Rolls royce engine을 도입하여 연구 개발하고 있다. Engine 외에 다른 보기(補機) 그리고 계기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대부분이 외국에 의존했다 해도 항공역학적 구조역학적 설계와 시작(試作)의 실제작업은 자기 나라의 시설에서 자기 나라 기술진에 의했을 것이다. 재료는 국산도 좋고 외국산도 좋은 것이다.

다만 꼭 필요한 것은 그 재료가 규격화 되어 지정된 기계적 성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충분히 가능하고 편리 유익한 분야는 항공기의 부분적인 설계제작이며 또한 글라이더들의 도입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경량단좌 또는 Motor Glider의 설계제작은 가능하고 이 결과가 수준을 점점 넓히면 기술향상을 가져오게 되어 경공업화 항공기 제작사업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국가 정책을 세워서도 꼭 실천되어야 할 일이다.

7-1. MOTOR GLIDER의 목적 및 구비조건

목적

1. 자력으로 이륙하고 상승기류권에 도달하면 모우터를 정지하고 활공한다.
2. 아무 곳에 착륙하였을 경우라도 자력으로 이륙하여 기지에 돌아온다.

구비조건

1. 충분한 이륙상승의 힘을 가졌으며 이륙 활주거리도 짧다.
2. 공중에서 모우터의 시동, 정지가 용이해야.
3. 동력비행중이나 활공시에도 잘 조종되고 안정, 조종성이 좋다.
4. 모우터가 정지중에도 글라이더로서의 성능이 좋다.
6. 시작비, 유지비, 운반비가 적다.

7-2. MOTOR GLIDER의 구분

MOTOR GLIDER는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류 활공비 30이상의 고성능 Glider에 Motor를 장착한 것. 예: As-K14

제2류 제1류를 복좌로 한 것.

제3류 활공비 20정도의 연습기용 Glider에 Motor를 장착한 것. 예 : RF-4

제4류 제3류를 복좌로 한 것. 예 : RF-5

제5류 활공비 10정도의 Glider에 Motor를 장착한 것.

제6류 제5류를 복좌로 한 것.

7-3. 기체 구조의 새로운 개념

항공기의 경량화(輕量化)에 의해서는 Monocoque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다.

경비행기에서는 그 크기에 비해서 외피의 두께 비율이 극히 적으며 따라서 외판의 두께에는 자연히 제한을 받게 되며 Duralumin판은 최저 0.4mm이다.

Monocoque구조에서는 이러한 얇은 외판의 압축강도를 믿게 되므로 이것에는 우수한 Rib나 Stringer를 넣으므로 공수(工數)나 중량으로 보아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 약한 압축강도를 가는 Stringer에 가해지는 Semi-monocoque 구조도 현재에는 많이 사용된 것이나 이것을 경비행기에 적용시키는 데는 약간 의문이 있다.

그러나 초기에 많이 쓰이던 강관(鋼管)에 직포(織布)를 씌운 구조의 특징을 다시 살펴보면 이 방식에는 구조상으로 볼 때 힘을 받는 부재와 그렇지 않은 부재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 특점이 주목된다.

공학분야에서도 이런 개제로 조사해 본 결과 단으로는 결미할것이 없어서 Monocoque 구조와 Truss 구조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종합된 구조방식을 세우고 실제로 제작한 부품의 중량을 측정하고 충분한 설과 향상된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실지로 이 구조는 Volkswagen사의 Back bone식 구조와 비슷한 점이 있다.

부재를 많이 사용한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여 사용함으로써 재료의 강도 부재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의 사용하면 결과적으로는 경비절약도 이뤄지게 된다.

외형도 최소한 같은 것을 설계범위 안에서 쓸 수 있으며, 최근의 발포성 Plastics, FRP 또는 복합재료들을 응용해 구사하여 경비와 경량화를 기할 수 있다.

동체후부나 외부장식에는 반드시 Plastics을 이용해서 강성과 비강도(比强度)를 높이도록 배려하고 있다.

7-4. 설계의 기본방침

① 기종은 활상연습기로서 동력을 장착한다.

② 국내에서 일부 생산 및 조립공작으로서 자급케 한다.

③ 동체에는 고안을 도입하여 경량화 간이화한 구조로 한다.

④ 경제적 성능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안전을 기한다.

⑤ FRP를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도록 고안한다.

* 목형에다 조형 보완하여 종합적인 경량동체에다 동력활공기인 새 형태를 이루도록 방침을 설정한다.

7-5. 항공 기자재로서의 FRP 특징

경량화(輕量化)가 가장 요구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Al합금 보다 선팽창에 비강도가 크며 가공이 쉽고 전파투과성(電波透過性)을 갖고 있는 강화 Plastics은 일찍이 주목되었으며 기체 구조의 외부에 또는 2차재료로서 그 특성을 살려서 2차세계대전에 사용되었다.

FRP가 항공계 각 부분에 적용되는 특성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비강도(比强度)가 크다.

② 전파투과성(電波透過性)을 갖는다.

③ 가공이 용이하다.

④ ABLATION 냉각효과를 갖고 있다.

⑤ 내식성(耐蝕性) 내피로성(耐疲勞性)이 있다.

8. 새로운 행글라이딩 활동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에서 활공계

의 능률으로 보아 활공기의 생산으로 개인차 하기에는 값이 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활공스포츠 진흥을 기하려면 값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체 확보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의 해결방안에는 특수한 조직된 수요자와 생산자 간의 유대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업으로서 주문품을 구걸(求乞)에게서 받아서 생산하는 방법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이 Glider생산업계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 특수목적을 가진 공 생산과 훈련을 병행하는 Club활동으로서 Glider제작과 Glider동호자(同好者)의 회합으로서 단순한 생산업체로서가 아니고 동호자의 한 Group으로서 Glider 설계 및 제작을 주관하여 연구자(研究者)도 한 Group원으로서 Glider 동호자로서 설계 및 제작에 참여하고 Glider에 대한 노하고 이것을 접수하려는 각 대학의 항공부원과 협력하여 새로운 각계의 Test Idea의 한 기체를 개발하고 제작한다.

각 대학의 항공부원들은 자기들이 타고 있는 Glider는 자기의 손으로 제작한다는 새로운 개척하는 스포츠정신으로 기축(基軸)을 마련하여야 한다.

61년경 이후 특수계획에 의해 활공훈련을 각 대학생에게 실시한 일이 있었으나 그 때는 대학생들에 훈련을 받는다는 피동적인 입장에서 실시된 관계로서 더 이상 발전이 없었고 특히 기재(機材)확보에 있어 회사사용 및 그 값이 고가이므로 더 기술은 연수할 수 없어 보급이 되지 못하였다.

지금은 없으나 Glider가 필요한 대학 활공부원들과 연결은 어디든 날개 쉽게만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Glider를 개발하고 또는 이 Club 생산부원들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자율적인 기재수급 체제와 다하는 항공 sports 활동의 활성화에 요망된다.

3. 맺는말

항공스포츠를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논한 바를 다음 네 가지 방안으로 요약한다.

I. 항공스포츠의 진흥 방안

(1) 학생 항공연맹의 조직과 육성

(2) 항공 지도기관과 대학 항공부원의 합동 활동.

(3) 대학 CAP활동에 유대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전개 확충.

II. 항공기체의 설계 및 제작

(1) 자기가 타는 Soarer는 자기의 손으로 만들자는 운동의 전개

(2) 수요자와 생산자가 활동조직

운영하는 동호인(同好人) 그룹의 육성과 등급체제의 확립.

(3) 국민 체육진흥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

III. 자연동력원의 탐색과 배양

(1) 전국 중·고교생 동한 내 고장 자연 동력원의 조사 활동

(2) 소화하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사생조사 및 조형적 활동거류 탐색 활동.

(3) 국민교육과정으로서 자연동력원의 자연 관찰

(4) 자연동 동력원의 과학적 이용으로 경제적이면 효과적인 향동 스포츠 활동의 추진

이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실제 행동 계획은 별개의 계통적인 체로 전개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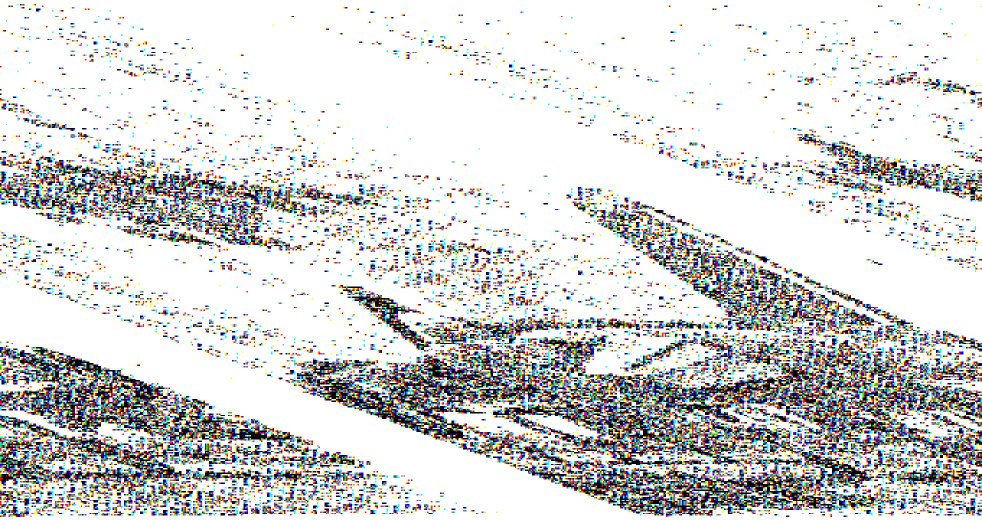
선행의 교훈

내가 할 일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겨라. <호라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 <솔로몬>

소용없는 물건은 한 푼이라도 비싼 것이다. <세네카>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소용없는 물건은 비싼 것이다. <촙스>



협할 수 없다는 것을 구라파의 항공관련자 자신들은 말하고 있다.

이 국제협력체제가 꼭 잘 진행되는 가운데서, 독불에 뒤진 서독의 진출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서　　　　독

서독은 전후 F-104의 생산을 하는 한편, VTOL기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VJ101, Do 31, VAK 191B 등의 기체를 시작하며, 미국과 영국과의 공동으로, 각종의 개발계획을 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기체에서 오늘날까지 생산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다.

때문에 MBB의 연구개발부문의 인원은 5,0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생산부문의 인원은 불과 13,000명일 뿐이다.

제아무리 항공공업이라고는 해도 개발만 비대한 체제는 불건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다음날의 항공기인 VTOL기의 연구를 일부 축소하여 현재와 내일의 비행기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금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104의 생산종료 후의 서독 정책은 군용기 일변도(一邊倒)에 대한 강한 반성이 된 것이며, 국제협동 개발을 통하여 민간관계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항공공업은 전후 수차례에 걸쳐 합병과 통합을 반복하였으며, 하인켈, 제켄, 볼커스 등의 낯익은 이름은 그의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이름의 메이커가 나타나고 했으나 그것도 통합 뒤에 와서, MBB와 VFW와 도르니에의 3개 사에 거의 집약되고 있다.

이들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력을 열거해 보면

MBB～에어버스 A300B, 포커 F28, 파나비아 200 MRCA 전투기.

VFW～(포커와 합병하고 있다) VFW 614 여객기, 포커 F-28, 에어버스 A300B.

「도르니에」～알파제트 훈련기

여기에도 현재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C 160 트란잘 수송기나 브레게·다쏘와 협력 공동개발체제가 있으며, 헬리콥터나 다른 사업의 부문에도 몇 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외에도 넓고, 크게 서독이 진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자신의 손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획도 VFW 614를 위시하여, Do 135 연구용이나 몇 년 전의 일련의 STOL기 등

속에 있는 것에 같다.

영　　국

속일에 대하여 영국은 약간 뒤진 감이 있는 것 같다.

영국도 독일과 같이 현재는 호카시드레(HSA)와 브리티슈·에어크래프트(BAC)로 재편되었으나 작업량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각 공장들은 아주 한가한 형편이다.

호카시드레는 현재 해리어계의 네므론트에 생산이 되고 있으나, 이 계획은 오히려 낡은 로케트 에어기의 조종에 불과하므로, 1963년 이래 호카시드레 사에서는 군용기의 개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맨체스터 부문에서는 8,500명이 네므론트에서 HS 748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것도 금년의 예정으로서는 20대에 끝맞이 오리라고 한다.

북로부분에서는 5,700명이 바카니어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것도 내년에는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그 후에는 A300B의 대형기체가공부품들의 생산 뿐일 것이다.

트라이던트 3B는 햇트필드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이것도 아직 높고·세계에 거는 하지만 베스트셀러라고는 할 수 없다.

기대되고 있는 A300B의 주익은 체스타 부문에서 생산이 시작되고 있다.

여기서는 대직 HS 125의 생산이 계속되고 있어, HSA로서 가장 기대되고 있는 부문이다.

호카시드레에 있어서 주목 기대되는 것은 VTOL기 해리어의 생산이다.

해리어는 현재 킹고스톤 부문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유럽스텝계도 그 배치계수는 곧 호카시드레기를 능가하고 있다.

BAC에 있어서도 사정은 아주 같은 것이며, BAC 211에 종지가 된 후의 상황에서는 별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콘코드 뿐이다.

현재 생산중의 BAC 111은 일단 1975년까지 생산을 종료할 것이다.

군용기 부문에서는 재가트날은 이미 생산을 종료하여, 재트푸로보스트 MK 5와 스트라이크 마스터의 생산만으로 되어 있다.

BAC에 있어서 최대로 힘이 되는 것은 국제협동개발의 재규어, MRCA이겠지만, 이제부터의 개발에 적절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각 공장의 작업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고 보면 23만이나 되는 종계 협구를 갖고 있는 영국의 항공공업에 는부실

새로운 개발이 전연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이대로 가면 영국은 구라파의 하청기업을 삼는 정도로 격하될 것이다.

영국에 이렇다 할 수 없는 현실은, 또 두 영국 노동당 내각에 떨어뜨린 가혹한지는 모르나, 신형기의 개발을 중지하고 하청과 라이센스 생산에 집중한 데는 밸런스체크는 유지가 될지 모르나 항공 관계자들의 의욕은 사라질 것이며, 어디까지도 고갈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은 비단 영국에 한한 것은 아니다.

화　　란

구라파 중에서 독자적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화란의 포커이다.

화란은 농업국이며, 인구 1,220만인 적은 면적의 나라로서,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결국 힐케에서 공장은 자그만 데에 있어서, 이 장소를 선택한 것도 국제협력을 고려한 때문이다.

공장의 전면에는 하로(河路)이 수십미터의 운하에 접하고 있고, 후면은 스키폴공항에 연결되어 있다.

고속도로와 연결 체계되어 있고 가깝다.

공장의 운하에서는 영국의 쇼트사에서 제작된 F-28의 주익이 바지선으로 운반되고, 동체는 VFW와 MBB에서, 그리고 F-27의 동체는 벨기에의 플레지에서, 각각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운반되고 있다.

공장 내에서는 F-27과 F-28이 각각 일동(一棟)에서 생산되고 있다.

F-27은 현재에도 월산 3기의 속도로서 생산되어, 현재의 계획상 570기를 넘고 있다.

F-28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차차 주문을 획득하고 있으며, 매년 주문을 받은 비행기만도 35기를 돌파하였으며, 전망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화란이라고 하면, 풍차와 운하와 나막신의 나라임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처럼 작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비행기가 활기를 띠우는 것은 경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포커 공장을 방문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느끼는 것은 매우 낡아 공장이 비좁도록 좁은 것이다.

특히 조립공장은 옛날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장의 건물에 별다른 것은 아니다. 공장은 1950년 전후 거의 변화가 없으며, 생산(生産)에서도 확장을 하게 않고, 그대로 수행되고 있다.

스키폴공항에 인접하여, 화란의 국립항공연구소 NLR가 있다.

그 구조는 1.2m×1.5m의 초음속풍

등은 웨지터널, 구조강도, 비행시험 등 일련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곳의 연구시설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로 설명이 있었으나, 특히 투자액은 한계가 없고, F-35의 개발에 있어서는 일체가 되어 연구시행이 행해졌다.

물론 단독으로서 독자의 기초연구나 외국으로부터의 위탁시험도 하고 있어, 콘코드나, VFW 614, 신동독형 FLDO의 개발에서는, 공동시험을 해온하여, 많은 위탁연구가 행해져 왔다.

하나의 연구소와 하나의 메이커가 각각 독립하여, 서로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메이커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체제로 받들고 있는 것이다.

불 란 서

구라파에 있어서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어니 해도 불란서의 항공공업계일 것이다.

불란서의 항공공업도 역시 철저히 재편되고, 전체적으로 국유(國有)와 민유(民有)의 두 계로 나누어져 있다.

항공기(국유) SNIAS(에어로스파샬)
(민유) 닷소·브레게

엔진(국유) SNECMA
(민유) 츄르보메카

미사일(국유) SNIAS
(민유) MATRA

과거10년간 닷소제가 새로운 영국을 능가하고, 콩코드를 개발해 온 것은 확실히 불란서측의 힘이며, 국가간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A300을 개발하면서, 한편에서 미주시장을 노리는 움직임은 미국에나, 소련을 제외하면, 불란서 외에는 없다.

이 수년간, 불란서 항공공업의 매상은 영국보다 약간은 뒤져있지만, 서독의 3배, 이탈리아의 5배에서 6배가 되었다.

특히 이 수출중에는 미라쥬 등의 민간기도 포함되어 있으나, 미라쥬 계통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불란서의 업계를 보면, 민유의 닷소·브레게 그룹에 군용기가 집중되고 있어 SNIAS측에는 군용계로서는 C 160, 트란잘 등의 수송기와 헬리콥터가 남아 있는데 불과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 용 기)

제조한 군용기

세계 최대의 규모와 전통을 자랑하는

파리 항공쇼는 71년 5월 27일에서 6월 6일까지, 파리의 북쪽에 있는 루블제 공항에서 개최되었다.

72년에는 미국의 워싱턴에서 항공쇼를 개최하게 될 것이다.

실제하게 개최되는 이 항공쇼의 제1의 목적은 비행기를 파는 것이다.

「비행기의 제전」이 아니고, 「비행기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돈이 될 수 없는 군용기가 저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진회의까지는 국위선양의 기분도 없지 않아 담에 있었으나, 이제 그것도 사라지고, 「상품위의 시장」이라는 제목 가운데였다.

전시된 군용기는 거의가 수출을 목적으로 한 「상품으로서의 군용기」이었으며, 시작기의 전시나 자료의 공개 등도, 현재의 유럽의 무기체계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올해도 전시된 군용기는 소련은 전무 했고 출품된 것이 없으며, 미국도 출품한 군용기는 A-7D 뿐.

게다가 미국, 서진의 F-5, B-57 이런데다, 이태리의 피아트 G91Y와 같이 국제 마케트에서는 기수가 충분한 기체는 열심히 전시되고 있다.

한편 주제지에 있던 블렌식는 밀라주 • 셀리즈를 들이대며 출품시키고 있으나, 놀날 것은 없다. 과거 5년 동안에 밀라주 • 셰리즈는 6개 나라에 합계 216기나 수출되고 있다.

결코, 주제지로서의 기체(機體)의 경기를 노린 것도 아니다.

파리에 제조했던 군용기 중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을 꼽아 보다 소개하기로 한다.

[밀 라 주]

71년도 출장(出場)은 이전의 군용기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도 VG 익의 밀라주 G8이었다. 1년에 원형 G1이 추락하였으나, SNECMA 아타 9K-50 (추력 7,200kg) 2발의 G8의 완성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쇼에서 G8이 회장에 나타난 것은 개최되던 5월 27일과 6월 1일, 5, 6일 뿐이었다.

더욱 초회 당일은 시험 중으로 비행하는 일은 없었으나, 5월 4일에 전시되었을 때에는 오로 오소에서 국기되는 상태에 있었다. 마치 비밀의 정각을 연상시켰다.

지금까지 시작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목적인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기체의 크기는 F-4팬텀 정도이었으나 익면적은 30% 정도 적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특이한 주목을 끈 불란서와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알파 제트 연습기였다.

추가 CM-170 마지스텔의 후계기로 돼 있으나 SNECMA 올보메카 · 라작구(추력 1,350kg)의 쌍발이므로 고성능이며, 외형은 마치 XT-2와 비슷한 고익형식으로 돼 있으나 오히려 성능이 우월 공군이 의뢰한 대지공격기의 요구에 더 쏠려 가는 감이 든다.

발주하기로 독일측 200기, 불란서측 200기, 계 400기의 생산이 예정되고 있다.

영국공군의 복좌연습기는, BAC는 HS사의 모형을 전시하고 있었으나 기체보다도 엔진에 주력을 두었다.

후보엔진은 터보메카사가 있는 아드어와 컴프레서를 개조하여, 터보트 또는 터보팬으로 하는 큰 변경을 하였으며, 새로운 명명을 하면, 더욱 이질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옛날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 두는 것은 역시 영국적임을 엿볼 수 있다.

대지공격과 COIN기

LTV. A-7 콜세아 · 휘아트 G91Y, 마키 MB 326K, 호커의 HS하리어 GR·1은 미묘하게 랜딩기어를 열어 놓고 저속으로 활주로 끝에서 상공으로 수직상승을 하는 등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의 우수한 비행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A-7과 G91Y는 서서 동급에 대작한 경쟁이 된다.

서독의 사브사는 드라켄, 비겐, 105XT, MFI 등을 갖추고 있었으나, 평면적 전시비행은 그다지 실시하지 않았다.

유고의 소코 · 야스트레브, 이기리스의 BAC 167 스트라이크마스터, 스페인의 HA 200사에타 등의 경제트기 COIN기에 속하며 BN 아이랜더나, 쇼트 스카이밴에 파이론을 달고, 폭탄이나 로케트 포탄을 단 기체가 COIN기로서 전시되었다.

「군용수송기」

군용기에는 새로운 것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은 물론 C-5A 갤럭시이었으나 이 747를 상회하는 대형기가 좁은 활주로서 이륙, 비행중 쟁공은 놀라울 뿐이며 오정, 엔진의 순간에 커지는 박수소리는 찬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거기에 비하여 휘아트 G-222는 초라해 적은 듯이었다.

기체가 특이 특징이 없는 기체이다. 기체가 소형이므로 엔진(T64) 두개가 되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CASA.C212는 매우 성능이

뿐만 아니라 스카이 밴드와 미그호텔 출력과 같은 것이 있다.

독·불 공동개발의 C-160 트란살르와 출격(出擊)되고 있지 않다.

독일군들은 이미 이 타입기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군용수송기라고 하는 기종은 유명하지 않았거나 설계자의 것이라도 의외로 어려운 기종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군용기 선진국에는 새로운 것은 없었다. 헬리콥터도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결론할 바도 없으나, 파리 항공쇼에 있어서의 군용기는 금후 더욱 더 저조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항공공업은 군용기면에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할 수 있으며, 중진국에 의한 불공의 금액을 배치하는 시대도 끝난 것 같다.

「민간 수송기」

세계 항공쇼의 주역이 민간수송기에 의하여 점유되었던 것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또한 소련민간기의 대량 참가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것도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군용기의 신개발이 경계되고 있는 것은 제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의 구미각국의 항공공업이 불황에 빠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만큼 70년도의 항공쇼에 변화를 보였다.

신형 군용기의 참가수가 적었던 것은 아니다. 주목할만한 기체도 많았으나 항상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있으며, 현재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파리 쇼에서 의의가 있었던 것은 기대하고 있었던 SST 소코리우 Tu-144의 불참이며, 그외 다른 IL-62, Tu-154, 야크-40, Tu-134 등 신흥 수송기가 대거 참가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소련은 독자의 기술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맹국의 배려나타나, 또는 서구권에서도 적극적인 매각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파리의 항공쇼가 단순한 기술의 결시장에서 보다 실리적인 상담(商談)에의 장소로 변질된 것은 사실이다.

「콘코드」와 「Tu-144」

화제는 무어니 해도 불란서·영국 공동개발의 콘코드와 소련의 소코리우 Tu-144의, 양 초음속 여객기 SST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콘코드는 파리 항공쇼에 두번째로

얼굴을 내미는 것으로서 서구세계에는 그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두 비행기가 서로 다른 점은 그다지 알 수 없으며, 콩코드의 개발이 다소 앞설 것으로 보였다.

여하튼 자신의 둘레에선 콩코드이건 폐기한 미국의 SST개발중지에도 만족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SST 본부의 운항이나 탑승공계중에 내린다면 공해는 편담편이다.

따라서 선전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관중들이 관심을 가진 것도 그 소음의 정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출간(出力)을 0.01게 하는 또한 관청 엔진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스토리도 Tu-144는 단 1회의 전세비행을 했을 뿐, 여객들도 신중하게 항주로의 취항 문제에서 사용하였으므로, 비록 이나, 경제의 순간에 거친 착륙들에 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기수는 내린 자세비행과, 게수를 올린 고속제기동 과정에서 실시되었다.

실물은 독특한 엔진기어의 수용방식이었다. 엔진기어는 동체 내에서가 아니고 수용날개의 속에 들어 있다.

관중들이 주목했던 것은 초음속 타보편. 연전 NK-144에 대하여 알려졌으나 해장한 트럼의 내전에 보이지 않았다.

단지 이 기체의 주축 엔진공계 위턴구의 특수 장치를 한 것이 눈에 띈다.

Tu-144는 이미 약 100회의 시험비행을 실시, 최대속도 음속 2.3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나, 현재 실험기는 1대 뿐이란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2기가 제작 중으로서 1970년 이의 시험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것은 1973년경, 취항은 1974년이 될 것이다.

◇ 의욕에 넘친 대형 수송기군 ◇

보잉 747은 이미 세계의 주요 항공로에 취항하고, 파리에도 비행중에 그 자태를 나타냈으므로, 79년도 파리 에어쇼에는 출현하지 않았다.

미국의 비행기를 대표한 것은 록히드의 군용형 C-5A이다. 특별히 수출에 대해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거체는 무·붕괴의 활주로에서 불과 111년에 이륙속도, 약 610m의 활주로로 거대한 몸체를 하늘에 띄워, 약 20도의 급각도로써 상승하는 비행을 보였다.

파록도 브레이키와 리버스 스러스트를 사용해서, 305m 정도의 활주로에서 정

개하였다.

특히 이 시위제에는 C-5의 총중량 211.5톤으로, 동계의 최대중량 330톤의 약 33%에 불과하였다고 하나, 여하튼 우수한 이착륙 특성에는 틀림이 없다.

록히드사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난관을 헤쳐 왔고, 초음속수송기의 경쟁에 진 L-500의 개발도 중지되는 등 ... 로서 애처롭던 이 C-5A도, 공군의 MAC(공수군단) 소속기로서, 세계적 중량그룹으로 개최한 것은, 록히드사가 ... 하여 움직인 결과이다. 여기에 당사가 현재 괴로운 입장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에어버스 L-1011은 자신에 넘치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비행했는 여기 트라이스타는 총중량 195톤이며, 약 1,500m의 활주거리로 이륙하여, 제 장관중을 한바퀴 돈 뒤에는 그대로 영국을 향하여, 로루스로이스사를 격려하면서, 사라졌다.

롤스로이스제 이 L-1011의 제 3호기에는, 모든 추력 18,450kg의, 시험기에 ... 추력 18,000kg의 고 ... RB 211을 장착하였다.

소음면에서도, 배기면에서도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 한 것 같다.

이 비행기의 상공 ... 을 받은 롤스로이스측에서는 "GOOD LUCK TELSTAR"의 ... 1,500명의 종업원이 동원하여 만들고 환영을 하였다.

한편 맥도넬 더글라스 DC-10쪽에서는 L-1011에 ... 한 기세로 등장하였다.

GE사제의 엔진 CF6-6D도, 이미 형식증명을 취득하여, 위장을 눈앞에 둔 참이었다. 록히드 L-1011이 ... 배하여, DC-10은 제 5호기이며, 자사(自社)의 시험을 ... 자신에 충만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DC-10도 총중량 150톤의 가벼운 상태에서 시위를 하였으나 이착륙 모두가 1,000m 이하의 활주로서, 이착륙시에는 ... 스포일러는 사용하지만 ... 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여유를 보였다.

최종상공 100m의 저공은 ... 25°, ... 130kt의 ... 를 하는 등 멋있는 비행이었으나 ... 소음이 ... 적은 것과 활주로에서 약 300m 정도 ...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며

물론 소음의 수준은 여러가지 조건으로 변하므로, 이 1회의 시위로서 확인하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초음속 수송기의 실현에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에 경우, 록히드 L-1011도 DC-10과 같은 정도로, 초음에 지하에는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서 어느 쪽이 최종적으로 패권을 장악하느냐는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DC-10의 조종실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적이었다는 것이 정직한 총평이다.

영국의, HS 748의 출장(出張) 등으로 리하였어 있는 정황에 비하여 맹렬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란서이다.

항공소 과학의 역량에는 초대형인 맞은·월큐 인기대응기(116~155석)가 서두는 상태인가 하면, 서독과 공동개발의 에어버스 A300B(251~285석)도, 이번회의 홍해의 완전 모형을 전시하여, 71년 8월에 예정되는 초비행의 계정기를 꾸꾸고 있다. 영국의 BAC 311에 실망을 뒤를 다, BEA항공의 발주도 획득하고 싶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자라벨 12사, 화란의 휘커-VFW F-28-2000 등, 스트레치형의 실례도 작지는 모이고, 서독의 단거리용 VFW-614도 초대형을 목전에 두고, 열띤 시험을 하고 있다.

◇ STOL기 경쟁시대 ◇

미·소·불 3국의 강력한 결전선에서 앞모르게 나타난 소형기 중에도 초음속을 둥더 주목을 끈 기종이 있다.

근중 수송기로서는 이태리의 피아트 G 222, 스페인의 CASA 212, 경수송기에서는 영국의 쇼트 하빌랜드 SC, BN 트라이랜더, 이스라엘의 IAI 알바, 체코의 L-410 터보렛트 등이 착실히 재 적신을 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가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새로운 개발의 경향으로서, 새로이 등장된 STOL 수송기라고 할 수 있다.

하비드·포미기 결정의 다음에는, 근거리용 STOL기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다.

미국의 투키드·포지어사의 기준에는 STOL 리플렉스가 출품되고 있었으며, 화란의 휘커-VFW사는 F-27을 4발화(4發化)한 F. 30계획의 자료를 보였다. 캐나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DHC-7 외에, 캐나다에서 개발해 본 가변추력(可變推力) 기술을 사용하여, CL-215 계획에 출품되고 있다.

그 중에도, 가장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영국의 BAC사가 제안하는 QSTOL 계획과, 불란서의 에어로스파시알(SNIAS)사가 계획중인 A.904STOL기이다. 두 기가 모두 롤스로이스·SNECMA의 M45S/TF410을 4기 사용하여, 조용한 터미널 STOL 수송기를 꾸미고 있

초음속시대에 있어서의

항공의학과 그 문제점

▲송 수 일▼

○ 항공의학의 정의

항공의학이라는 것은 항공의 의학적, 생리학적 문제를 연구하는 의학의 특수분야로서,

항공의학은 비행에 관련된 생리학적 문제에 대한 임상의학, 기초의학 및 관련 과학을 통합하여 응용하여 연구해 나가는 분야인 것이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1) 조종사의 선발, 능률 및 건강증진, 비행활동기간의 연장.

(2) 항공안전의 유지.

(3) 조종사, 정비사, 항공관제사 등 연관직업 종사자의 질병, 부상예방,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4) 고공생존의 요구한계를 이겨내기

[illegible]

(3) 미육군 소속

육군항공의학연구소

(4) 미연방항공국 FAA

민간항공의학 연구소

(5) 항공우주국 NASA

유인우주센터, 우주의학등

랑그레이연구소 생명유지계 해방부.

(6) 기타 존홉킨스대학, 캘리포니아대학, 에리노이대학, 오하이오대학 등 부속연구소 또는 연구시설이 있다.

(7) 캐나다 공군 항공의학 연구소.

2. 유 럽

(1) 불란서

항공의학 교육센터

공군 항공의학 연구소

(2) 영 국

공군 항공의학 연구소

(3) 서 독

항공의학 연구소

공군 항공의학 연구소

(4) 이탈리아

항공의학 연구센터

공군 항공생리 연구소

(5) 스 위 덴

「카로린스카」의학 연구소 에 항공 해군의학 연구 시설

「룬드」대학 의학구 항공의학 연구시설

(6) 노르웨이

항공의학 연구소

(7) 스 위 스

항공의학 연구소

(8) 스 페 인

「마드리드」대학 항공의학 연구소

(9) 소 련

공군 항공의학 연구소

3. 동 양

(1) 대한민국

공군 항공의료원 연구부

(2) 일 본

방위청 항공자위대 항공의학 실험대

나고야(名古屋)대학 환경의학 연구소 제 5부

자혜회의과대학 우주의학 연구실

상기한 바와 같이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항공 우주의학 연구소를 두고 그 연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C 초음속 여객기 시대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 의한 인류사상 최초의 동력비행이 성공을 거둔 이래 불과 60여년이 지난 오늘, 항공기술의 발달은 인종과 국경의 한계를 초월

하여 우주여객분야의 계획안건을 가져왔으며, 미래와의 안온히 생각되던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키 어려운 업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군용기가 음속의 장벽을 무너뜨린 이후 민간기의 발달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970년 드디어 보잉 747, 점보제트기가 나와 무려 500여명의 가객을 일시에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1973년에는 영·불 합작의 초음속기 SST 콩코드가 마하 2.2의 속도로 취항을 시작하리라 한다.

1975년에는 마하 3의 SST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소련도 마하 2.4의 TU-144를 개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더글러스 항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1985년 전에는 극초음속 여객기 HST가 실용화될 것으로 내다 보았으며, 소련도 10년 이내에 마하 8 내지 10배속의 극초음속기를 제작하여 한 번에 1,000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 나름대로 내다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1980년도 이후부터 SST나, HST다 등 코스미트 초레인기의 출현에 의하여 1958년 세계의 항공계가 제트기에 의하여 그 면모를 일신케 된 이상의 수송혁명을 일으킬 것이 확실하다.

현재 미국의 F-4 팬텀기나 콘베어 F-106, F-104 등은 마하 2를 넘고 있으며 소련의 MIG-21기 최근 공개된 MIG-23은 마하 3 이상의 속력을 갖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항공계는 마하 2, 즉 음속의 2배나 넘는 초음속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변동이란 문제에 따라 수반하여 초음속기와 항공의학과의 관련성이 계속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 초음속기의 의학적인 문제점

1. 기내 기압장치 고장 시의 대책

현재 장거리 제트기의 순항속도는 1만 미터 전후, 초음속기의 경우는 2만 미터 전후가 되겠는데 양자의 경우 이와 같은 고도에서는 생존으로는 체내의 대응력이 높아 진다.

따라서 이 고도 이상을 나는 제트기들은 꼭 가압(또는 여압)장치를 작동하여 기내 기압(또는 여압)장치 고장에 대비하고 있다.

만일 초음속기에 있어서는 가압장치 고장 시에 승객이 적응할 수 없는 상태

로 조종사가 조종능력을 급격히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문을 전투기에서 보다 간이한 기압곡의 기단 사용이 요구되며 기압복 혹은 보호장치 개발에 힘쓰리라고 본다.

만일 초음속기가 실용화됨에 따라 기내 기압은 고도 1,500메터 이하로 하고 현재의 아음속기의 기압유지보다 우수한 방법을 택하여 승객들의 귀질환과 감압증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그에 관한 연구 개발에 좀더 활발해야 할 것이다.

2. 충격파

초음속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는 마치 지상에서는 우뢰나 천둥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곧 소닉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생긴 충격음파는 지상에 도달하면 생물에게 큰 피해는 물론 건물을 진동시키고 벽을 파괴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아직 이점에 관한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으며, 연구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3. 우주선 각종 방사선 및 오존의 문제

초음속기의 비행고도에서는 오존의 농축에 의하여 기관지계적증상을 이르키기 쉽다.

또한 은하계로 부터의 우주선과 태양 우주선의 영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콩코드기의 경우 그 조종실에는 소시 각각 기록계에 의하여 이들이 기록되고 그 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경우는 고도를 낮추게 방사선의 강도를 내리고 있으며, 방사선에 관한 특수을 또는 예측 시에는 특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이 속도와 관련해서 생겨날 것은 때같은 의과상 지구적도의 주위를 지속 약 마하 1.4(1,700km)로 일주하고 있다.

마하 2의 초음속기로는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날며 주간을 유지하며, 태양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게 되고 시간은 정오에서 아침으로, 어제에서 오늘로 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승무원, 여객의 피로와 함께 큰 문제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끝으로 일본에 항공사고에 관한 연구실구축·그의 항공의학 개발현황을 말해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진 우리나라 학도들의 연구에 도움과 참고가 다소나마 될까 다행으로 생각한다.

일본 항공의학 실험대의 연구 대상을 간추리면,

(1) 항공사고의 인적요인

(2) 항공 건강관리

(3) 구명 장비품

(4) 항공 인간공학의 제부문이다.

○ 항공사고에 관한 연구

1965년 항공자위대 항공의학실험대가 창설이 되어 그간 20년간의 세계 주요 항공잡지 및 생리학적 잡지에서 발표된 항공사고의 문헌을 정독하였으며 연구항목은 항공사고 일반, 통계, 사고조사, 인공탈출, 항공사고 병리 및 손상, 비행착각, 구난 및 구명, 기타 장비품에 관한 것으로 수록 논문수는 2,139편.

(1) 항공 종사자(특히 조종사)의 의학, 심리학적 특성(스트레스, 피로, 착오, 행위심리) 사고적성, 경험에 따른 기능 변화.

(2) 항공안전에 관한 인간공학적 연구

조종사의 생리적 변화, 조종동작의 운동특성, 조종석 계기통제, 조종감, 이동서의 유효표시 방법.

(3) 항공 종사자(특히 조종사)의 적성검사 기준

(4) 비행안전상의 인간공학적인 체크리스트 작성.

(5) 조난시 혹은 긴급시(화재, 충격, 기내 가스발생) 피해를 최대로 감소시키게 하기 위한 의학적인 조사연구.

(6) 공해와 인간공학적 연구

조종석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 진동과 잡음의 피해, 배기가스와 조종사의 피로와의 관계, 음성통신의 착오 등의 중요 연구는 비행안전상 극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의학계의 주요과제로 남아 있다.

○ 건강보험에 따른 문제점

일본의 경우는 이미 각 기종별로 체크조사가 실시 완료되었다.

현재 과제 조사임무는 목적세계 특별조사의 방법으로, 정비관계 요원들에게도 실시 되었고 시설 및 급양분야의 체계에 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저압 저산소장치, 원심력 실험장치, 순환 산압생리의 변화와 일체 이상상황을 연구, 생리적 관계가 여러면에서 추진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의 결과는 항공심리훈련의 실무와 항공사고의 인적요인 분석에 도움될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환소중독, 고열에—더위에 의한 비행중의 생체현상,

일본 최초의 충격장치에 의한 생체충격실험, 공중방사능 물질의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타과의 연구와 함께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 인간항공의학

인간공학은 인간의 특성과 항공기적 특성을 결부시킨 기능면의 연구 학문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항공기의 조종석 구조, 조종방식, 계기 및 경고의 인간공학적 연구와 항공기의 비행항공조사 등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 연구되어 왔다.

또한 조종사의 작업자세별로 나는 동작분석, 조종간축각도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연구 대상으로는 항공음어(용어)의 오청과 명확성에 관한 연구, 관상면(소음환경)의 실험에 의하여 소음부하시 음성명료도 분석과 항공관제시 나온 「테이프」에 담긴 조종사의 음성으로부터 개인식별과 음성분석에 의한 불명음신의 해석 방법 등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

○ 구명 장비품

1962년 F-104 전투기 승무원들의 가압복 개량을 위해 일본인 조종사의 신체측정에 의한 기준치를 도출해 내었다.

구명장구에 대한 내수복의 개선, 소음보호구, 「헬멧」 조립관계부분의 개량, 가스 마스크의 개량 등을 보았다.

참고로 일본 항공의학대의 연구실적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고도 15,000미터, 계급 150미터의 거리에서 항공기로부터 신체정보(심전도, 맥박, 호흡, 체온 등) 계측.

(2)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측정적 뇌중 변화를 기록.

(3) 시계측정기의 개발과 조종사의 시계측정

(4) 시각의 전자측정과 전자계산기에 의한 운 자료 해석

(5) 온도감각장치, 중력실험장치, 공간식별 실험장치의 개발

○ 항공의학의 장래

현재 일본항공의학계가 보고 있는 주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위성에서의 공중충돌 방지
(2) 전공대기시의 생·심 반응
(3) 항공관제관의 정보전달능력
(4) 항공사고시 인적요인의 전자계산기에 의한 해석 분석
(5) 항공환경 시뮬레이터의 개발
(6) 조종사의 전자계산기 사용에 의한 자동건강관리
(7) 조종사의 전자동시설 피복측정
(8) 차종 구명구(여압복, 내중력복 등)의 개발
(9) 공간체험능력 실험(가감 운동 피험자 위치의식 상실 등)에 대한

연구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항공우주의학회가 1968년 「프로리다」, 1969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어 전세계의 항공우주의학자들의 열띤 토의를 벌였다.

이 학회에서의 주된 테마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환경(기압, 산소부족, 폐쇄된 환경, 무중력, 방사선, 고열, 장기생활)과 생체.
   우주에서의 생명유지계.
2) 초음속기의 환경제어.
3) 공중수송계획
4) 다채널 정단 컴퓨터에 의한 항공의학적 조사.
5) 항공중 및 우주운항시의 심장혈관의 생리.
6) 아폴로 유인비행의 생체정보측정, 심박 출량 및 호흡계의 온라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

○ 국방의학의 성격과 그 문제점

국방의학이라든가 방위의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첫째, 국방과 관련해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방분야에 있어서 국방의학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 볼 때, 먼저 국방 그 자체가 인적인 것으로 구성된다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부여되어 지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인적요원이 항시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여야만 최대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군국에 복무하는 의사는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상태를 항시 활동케 유지시켜 우수한 인적 전력을 기할 목표로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 국방의학은 평상 일반적인 의학과 그 처치상황에 다르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직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사라면 백사람의 환자가 있을 때 어느 일원이든 살펴 치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인권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국방의학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 사람의 생명이 고통을 초래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 예로 태평양 전쟁당시, 출격이 다급을 당해 미해군들의 수라장으로 변했을 때, 바로 비행기 부근에 두 병원이 있었다고 한다.

한 병원의 원장은 의학 교수를 그만두고 개업했고, 한 군의는 야전병원, 군무를 마친 때에의 군의관에 자원 병원이

될까 한다.

전자의 환자 취급 방법을 보면 환자는 다량 한 사람을 일일이 철저 수술한 것은 하고, 기타 응급처로를 보하면 이송했하고 릴리프 환자가 한 세량 죽은 때의 세 시를 무약을 계속하였다 한다. 그 뒤 릴 부러운 환자들로 계속 됐다고 한다.

후자의 병원의 경우는 그 원장은 우선 환자 취급에 있어서 치료해서 살 수 없는 환자와 살 수 없는 환자를 구분해서 관찰 가려내어, 바로 골라 치료했다고 한다.

환자분류에 의해 수 많은 사람의 생명 —를 단위의 치료시간에 뒤이어 죽어 가는 수 많은 환자.

더욱 통계의 환자를 치료한 시간에 뒤에는 회생자들의 수—을 구할 수 있는 올바른 의사의 인생 목표가 필요하다.

따로 이러한 「[illegible]」을 능률적으로 원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역의 예는 한 의사가 수술했기 때문에 수백 수천의 환자를 동분히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6·25 당시 미국은 전선 부상병들을 동서관의 수술을 거쳐 일본에 후송 처료 하였다.

이 때 수송시간을 견디고 살 수 있는 과 동안 책을 처리하였다고 한다.

이 경우 두 의사가 각각 전선에서 활동했는 셈이 된다.

이 두 의사가 평시 의학에서는 제일 필요할 것이다.

즉 다수의 사람을 순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로 비대한 능력의 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군진의학은 모든 것을 전력과 연관지어, 전력으로서 가동력인 것부터 우선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바로 조직체, 집단관념에 의한 사고방식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전체를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군대 내 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시켜 국가 비상시 경제체제를 다룰 경우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나오는 결론일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의학적인 모든 응용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 군의로 전시의 자원이 문제가 될 것이다.

재래인을 놓고 볼 때는 우수하나, 아직 올림픽 출전선수의 종합 정점에서 바라보는, 현재적인 수준이 오르지 않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무용의 것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군진의학

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에서 개인의 치료 위주의학에 집단치료의학을 합한 것과 같으며,

사무적인 면에 따르기까지 구급체계도의 기능을 요하고 있다.

가령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면 모종의 의사가 하는 것과 전체를 통괄하는 매니지멘트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데 과학적 조직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헌데 그러면 군진의학은 어떠한 연구를 하여 왔는가.

이 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필할 실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겠다. 여하튼 평시에 유사시에 대비한 실력을 비축해 두어야 될 것이다.

일단 전쟁이 터진 뒤 허둥지둥 임기응변구책 모든 행정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이는 평시의 연구분만 같지 못한 것으로, 평소부터 일관된 유기적인 실력을 기르는데 연구를 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는 자위대에서 하는 시험들이 있다.

또 미국같은 나라는 이러한 가상문제에 막대한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제2차 대전시 사용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도로폭, 교량의 내구성, 차량수, 인원의 현황.

이에 따라 교통장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가 등등은 제의 경로, 연구해야 되고 있다.

군진의학은 그 과제가 좋은 실험재료를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피행의 생활을 엄격한 형식속에서 영위하고 있는 군대라고 하는 데 집단을 갖고 있으며, 이 것이 기관의 기초적인 요소를 추출 연구함에 있어서 제1의 조건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 대비한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검토, 연구중인 것으로, 가까운 예로 일본 자위대의 항공의학실험대의 연구시설, 오포스파의 항공의학실험대 등의 시설과 연구활동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소견마저 있다.

즉, 만일 전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제1, 제3의 ...과 같은 방대한 기구가 계속 생길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지식은 친지제일, 매체마다 따르는 것이요, 이럴 경우 이를 유기적으로 개척,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바로 그 조직 그 자체일 수 밖에는 도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 각국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란 군대 밖에는 없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면 군진의학의 발달과 그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평시 우리서는 어디한 점을 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전시의 경우는 결정적인 접근방법에 필요하게 된다.

쉬운 예로 철모를 들어 보자.

예 철모는 일으로 전쟁 시만 하도 본정에 쓰여져 왔었던 것이다.

그러면 왜 이 전사자들을 살려온 결과 두부에 중상을 입어 절사한 사람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이러한 피해로부터 인명을 구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하고, 철모를 만들어 정면에서, 또는 측면에서 소총을 쏘아 그 관통정도, 재사율(결중률) 등을 연구케 되었다. 이러한 예는 전시의 조직적인 연구,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얼레 말기 페니실린이라는 항생물질이 축적이 있었다.

예 약이 생기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다시 말할 목적에 따랐던 대연합군은 어 중거리폭격엔 관계상 귀로에 들다가 조력도 다 말했는지고 추락하곤 하는 사태가 빈번하였다.

귀환에 돌아 올 때까지 생을 연 지제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 끝에 제공 재질 향상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본 바, 이러한 모든 활동에 큰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력 수개에 항공의학의 근본에 존재하는 것이라 해 했다.

보잉 737의 새 얼굴

콘코드에 관한 내일의 꿈

——80년대에는 지구상을 1일 생활권으로——

탄 생

콘코드 SST의 태동은 지금으로부터 10수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제1세대의 제트여객기」가 등장한 후 전투기가 마하 2 정도를 겨우 유지할 즈음이었다. 기술자들의 머리에는 어느듯 여객기를 초음속으로 수송하려는 생각이 싹텄던 것이다.

이 생각은 드디어 영·프 양국의 「공동개발협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결실하게 되었다.

그 이름조차도 콘코드(협조 : 協助)라

고 명명하여, 초음속여객기가 정식 계획으로서 발족한 것은 이 협정조인의 날, 1962년 11월 29일이다.

이에 의하여 기체의 설계와 제작은, 불란서측 슈드사(현재의 SNIAS사), 영국측은 BAC사가 담당하고, 엔진은 불란서측이 SNECMA사, 영국측은 부리스톨·시드레이(현재의 롤스로이스사 부리스톨사업부)가 담당하기로 되었다.

본래로 SST는 당시 그야말로 「대담한 야심적인」 계획이었다.

초음속비행이라는 점에서는 전투기에 관해서 있어 지금까지도 이미 취항해 있었다. 그러나 「초음속 여객기」는 기본적인 전면 새로움을 요하기에, 많은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었다.

예를 들어 같은 마하 2의 속도에도 군용기는 지속 시간이 짧다.

그러나 콘코드는 이 속도를 거의 5시간에 걸쳐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기체와 엔진은 고온을 가열이 계속되므로 내구에 견딜만한 구조와 재료가 아니면 안 된다.

비용 요소라는 데이르르는 전투기를 훨씬 상회한다.

또한 장시간의 항속 성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총중량은 마하 2의 전투기보다 훨씬 크다.

반대로 그만큼의 크기와 중량을 갖는 항공기에 음속의 2배라고 하는 속도를 가하는 것은 어려운 엔진이 필요한 주의 문제는 아주 새로운 기술분야를 개척하는 셈이다.

기대하던 최초의 비행

또 하나는 경제가능면에 있어서 절대로 뒤져서는 안 된다.

군용기와 달라서 SST의 구실에는 민간시장에서 팔아드려, 운항에는 다른 항공기나 교통기관과 경쟁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경제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비행 상황을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잘해 나갈 수 있는 기한이 필요하여야 한다.

콘코드의 경우에는 30,000비행 시간을 보증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확보하기에는 열기에 걸친 거대한 특별한 구조, 강도, 테스트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상용기로서는 가동률이 문제된다.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기에는 지상정비에 손이 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성에 관해서는 군용기보다도 훨씬 높은 보증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지의 요소가 다소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모든 계통, 모든 장치, 모든 부재에 대하여 1,000종의 신뢰성이 필요하다. 특정한 것은 2중, 3중의 페일세이프구조로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다 에어인테이크의 파격성이나 소음의 문제 등 콘코드 설계에 부과되는 어려움은 아주나 많다.

이 때문에 당초의 설계도 차례에 걸쳐 여러 번 변경했다.

원형기와 양산기(量産機)간에 상당한 차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현재의 양산형 사양이 최종적으로 굳어진 것은 1969년 7월이었다.

그동안 개발비도 당초의 계획보다는 훨씬 증가해졌다. 설계 변경에 따라 테스트 항목도 늘어 났으며, 인플레나 평가의 절하가 있었던 때문이다.

현단계에서는 원형기, 선행양산기, 지상테스트기를 각 2기씩과 올림퍼스 엔진 30기 이상을 제조하여, 지상테스트를 주로 풍동의 시험, 비행테스트 및 장비 등을 포함하여 총 개발비를 발표하였다.

이 개발 자본하는 영·불 양국이 균등으로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양 정부가 들인 경비 전부를 회수될 수 있을 것인가의 확실한 판단은 없다. 이것을 도외시한 계획은 그야말로 영국의 「국가의 위신」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광도 가치를 가지고,

콘코드의 설계 작업은 1964년의 설계사양에 따라 착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7년 말에 툴루즈측의 001이 출장되었으나 각종의 주행테스트와 지상에 시간이 걸려, 최초비행을 한 것은 1년 2개월 후의 일이었다.

비행 테스트

0단계의 기본테스트

콘코드의 원형기는 지금 001이 툴루즈(仏国) 스튜스에서, 002가 영국 남부의 페어포드에서 기본테스트의 최후의 순번에 바쁘다.

이 비행테스트가 시작된 것은 2년여 전 1969년 3월 2일에 001기 최초 비행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4월 9일에 002기가 비행한 것이다.

그후 10월 1일에는 001이 마하 1의 음속에 달하였으며, 또한 1970년 11월 4일에는 마하 2를 넘었다. 그리고 현재 원형 2기의 「기본 비행테스트」는 드디어 최종단계에 이르렀다.

이 기본테스트는 고층빌딩을 건조할 때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금후의 실용면에 주안을 둔 테스트는 우선 항공기로서의 특성과 안전성, SST로서의 성능확인이 그 주요한 목적이었다.

이제부터는 그 토대 위에 「초음속 여객기」라고 하는 빌딩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 2년여의 비행테스트는 5단계로 나누어져며 엄밀한 공정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제 1단계는 각 원형기의 비행특성의 테스트가 3개월로써 종료하였으며, 그 후 1개월여의 지상점검을 받았다. 제 2단계는 마하 0.95까지로, 아음속비행, 실제로 기체, 엔진이 다같이 양호했으므로 마하 1.05까지 기록되었다. 제 3단계는 천음속(遷音速) 테스트이다.

올림퍼스 593-4를 개량한 593-3A로 환장한 001의 처음의 초음속에서 말하여 최종적으로는 마하 1.56을 기록하였다. 이 단계에서 특히 주목된 것은 하중배수 12G 정도의 강체구조를 갖는 전투기와 달라, 2.5G의 정강탄성 구조를 갖는 콩코드의 플러터 특성이었다.

플러터 현상은 아음속에서 마하 1.5 까지의 속도 범위에서 일어난다고 되었으나 002는 이를 확인하여, 매우 양호한 운동을 보고하였다.

제 4단계는 마하 2까지의 초음속테스트. 이 단계에서도 테스트는 아주 호조이며, 작년 11월에는 양기 모두 어려움 없이 마하 2에 도달하였다.

테스트는 그 뒤로 제 5단계로 들어가 마하 2의 연속비행(약 1시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예정 3개월을 경과하는 조음 001에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71년 1월 26일 마하 2에 가속된 001의 엔진 공기 흡입구의 조절 도어가 파괴되어, 그 일부가 엔진 속으로 들어갔다.

기체는 날개끝에 놓아진 것처럼 요란한 진동을 일으키고, 제 4엔진의 이상을 알리는 경보램프가 점등됨으로써 1발이 정지되었다.

001은 남아지 3발만으로 무사고로 귀착하였으나, 그후 2개월여에 걸쳐 001~002의 흡입구의 보강공사등 하기에 이르렀다.

사고의 원인은, 이그다의 제어에 의하여 일어난 엔진의 서징이었으나 상세한데서는 여러가지 이상 수정을 일어나게 됐지만 해결되고 있다 한다.

또한 「이 사고는 엔진이 마하 2에서 흡입 도어가 열려서 작동을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조종실에는 하등의 곤란도 없음을 실증하였다」고도 한다. 수복된 001은 002와 같이 4월부터 비행을 재개하였다.

제 4단계의 테스트이다. 내용은 저속시와 고속시에 이상한 데에 있어서의 테스트이다. 예를들면 마하 2에서 날으면서 4기의 엔진을 갑자기 출력하는 실험적 테스트가 바로 그것이다.

즉「콘코드는 더하 2개의 수평꼬리날개 비행에 될 뿐 아니라, 급격한 조작도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시험기의 비행시간은 합계 약 450시간. 그중 110시간에 초음속이며 비행회수는 220회이었다.

시험기에 의한 테스트

데이터들은 기본테스트에 의하여, 3개의 설계치와 계측된 실측 비행데이터로 다음과 같다.

최고도∼17,600m
최대마하수∼2.105
최대체감속도∼275Kt
기수를 올린 속도 5도∼405Kt
12도∼233Kt
17.5도∼275Kt
회전속도∼18.3도
최대이륙중량∼152,500Kg
염하강각도∼16Kt
이착륙시의 CG범위∼51.5∼53.0%
비행중의 CG범위∼51.1∼53.5%

최고속도는 17,600m——노선비행중의 상승기도 때 루트에서 측정비행을 한 거로 되었다.

최대속도는 마하 2.025 최종적으로는 편단CG범위에서 항속력이 마하 2.35 까지의 테스트를 했다.

이륙중량은 최대 152,500Kg. 이륙속도는 현재 230Kt로 저감을 의하고 있다.

또한 착륙속도는 중량 104,300Kg에서 157∼160Kt, 착륙 조작은 결코 곤란하지는 않으나 익숙하지 않은 파일로트는 기수가 생각한 것보다 수초 빨리 접지할 수가 있다. 이는 눈의 위치가 활주로면에서 15m나 높았던 때문이다.

또한 기체가 지면에 가까워지면 강한 지면 효과가 느껴져 기수가 내려간다.

횡풍(橫風)착륙은 풍속 16Kt까지 행하여 졌다.

최종적인 형식증명에서는 30Kt의 횡풍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콘코드의 횡풍착륙도 조종기술상에서는 원타입의 아음속기와 하등 다른 점이 없다.

고속비행중의 엔진정지테스트는, 편측(片側) 2발을 세워도 문제는 없었다.

초음속에서 엔진이 고장나면 단지 추도계 떨어질 뿐 아니라 요잉(한쪽으로 흔들림)이 생겨서, 다의 엔진 흡기 취입구의 기류를 흔들게 하여, 그 엔진의 흡을 헤트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마저 있었다.

그러나 1발 정지하였을 때는 방향타도 주무린 정만으로 충분하며, 편측 2발의 경우는 5° 꾸무리면 되는 것이 명백해 졌다.

특히 원형기에는 방대한 자동 콘코드장치가 있어, 매회의 고정된 형질의 추력데이타를 입수하여, 방향대로 조절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에는 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마하 1.8에서 1만 및 2만의 경계 테스트를 한적도 있으며, 양산기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돼 왔다.

콘코드의 조종성은 극히 좋다.

BAC사의 주임 테스트 파일로트는, 지상 100m의 낮은 구름을 활주로 중심선에서 2.5km 정도의 곳에서 바라보았으나 그대로 S자형의 선회가 그 것을 볼 착륙을 할 수가 있었다.

연료이동에 의한 CG(重心位置)트림므의 조절도 좋다. 양산기에서는 이것이 자동화될 예정이다. 002의 경우, CG는 보통 53%의 위치에 조절해 왔으나, 상승중에는 57%로 이동된다.

초음속 비행에서는 57%와 59%에서 테스트가 행해졌다.

기체의 자세는 18.3도까지 테스트하였다. 이륙상승중의 각도는 최초의 1분간이 16~18도, 거기서 서서히 나려가 8~9도이다.

7기의 콘코드

콘코드 원형기에 의한 데이타들은 테스트는, 원형기의 비행특성에서 성능을 평가한 것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데이타를 기초로 하여 양산기의 성능을 추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산기와 원형기는 엔진이 다르며, 기체의 형상 및 크기가 다르다.

예를 들면 양산기의 페이로드/항속성능을 추정하는 경우 원형기가 달성한 구간을 넘으며 연료소비율을 조사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충분히 안정된 기류중에서 일정한 고도와 속도와 자세를 유지하면서 공력적인 항력, 엔진추력, 스로틀 일정시의 연료소비율 등 정확한 데이타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상의 레코드에 기록된 우수한 데이타는 콤퓨터로 체크되어, 안정한 비행에 의하여 얻어진 데이타만으로 확인한 후에 분석된다.

이 분석용 콤퓨터의 프로그램은 양산기의 기체형상이나 양산엔진의 추력연료소비율 등을 근본으로 하여 원형기의 실측치(측정치)에서 양산기의 성능을 알아낼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조건속에서 행하여진 원형기의 테스트에서 양산기의 모든 성능이 산출되었다.

실제에는 001과 002의 데이타간의 차이도 적으며, 측정의 결과는 거의 같도

(確度)가 높다고 한다.

이 결과는 최초 정규운항 표준의 생산형 3기에 의하여 보증된다.

SNIAS에서 제작중의 02기 1973년 봄에 취항한다. 02의 기체형상은 공력적으로 양산형과 아주 동일하며, 엔진도 최초의 TBA 노즐을 붙인 올림퍼스 602를 장비한다.

이 02를 사용하여 실험기에 의하여 측정된 양산기 성능의 대부분이 실제에 확인될 것이다.

동기(同機)는 또한 에어라인(항공회사)을 위해서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비행훈련)의 작성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최후에 1973년 말에서 74년 봄에 걸쳐서 3기의 양산형이 테스트에 참가한다.

이들의 양산기는 보증성능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실증하며, 형식증명을 받는다. 또한 약 1,500시간은 스케줄에 의하여 행하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노선비행테스트를 행하게 되어 있다.

또한 양산형 3기는 테스트 비행 후 최종 확인을 위한 공장으로 들어가, 각각 18, 19, 20호기로서 완성될 예정이다.

이 동안 지상테스트를 가진 실험기는 001에 거의 최대들의 테스트, 002가 엔진의 개발테스트와 속도시험을 한다.

이와 같이 하여서 7기의 콘코드에 의한 비행테스트는 금후 서로 3년 반에 걸쳐 행해지며, 총비행시간은 아래와 같다.

콘코드의 기체별 테스트 비행예정 시간

실험형	001 (불)	~560시간
	002 (영)	~526 〃
전양산형	01 (영)	~635 〃
	02 (불)	~415 〃
양산형	1 (불)	~240 〃
	2 (영)	~530 〃
	3 (불)	~1,050 〃
합계		3,956 〃

성 능

페이로드의 보증성능

콘코드 SST가 에어라인의 요구성능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최초의 문제점이었다.

특히 페이로드 25,000lb(11,340kg)을 싣고, 파리←→뉴욕간을 마하 2.2로 비행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페이로드는 지금 실험기의 보조한 비행테스트로서 이제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이르렀다.

BAC와 SNIAS의 제안하는 보증성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3년 가을 취항당시 콘코드는

파리←→뉴욕간을 최소한 22,200Lb (9,160kg)의 페이로드로서 개통이 될 탑승을 맞으면서 무착륙으로 비행된다. 그리고 1976년 후에, 엔진출력의 향상하는 올림푸스 593호기에서는 페이로드가 25,000Lb로 증가하리라고.

이 비행거리는 물론, 페이로드도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

페이로드는 컨코드가 돌아가는 항로 공중대기(고도 4500m, 속도 350kt), 착지경험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30분간을 계산하고 있으며, 속도가 빠른 카테고리 III의 자동착륙성능을 향한 콘코드의 경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또한 이들의 수치는 여기까지 해어라인 조작에 보증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성능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테스트의 결과데이터를 상회하는 성능이 추정되고 있다.

그것은 파리←→뉴욕간의 유효 항로의 페이로드가 24,000Lb (10,900kg)이 될 것이라고 한다.

즉, 조건하에의 성능을 예상하면서 기후대로의 충족에 는(돈키스, 마이너스 4,000Lb (1,800kg)에 해당하지만 된다고 해서, 최저 보증치를 20,000Lb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반대로 기상 조건이 좋은 경우는, 28,000Lb (12,700kg)의 페이로드로 좋게 운항하지는 않다.

정기적(定期的)의 21%는 더하기 2.2%

1976년의 보증페이로드가 5,000Lb (2,270kg) 증가한다는 것은 이것을 연료량 계량으로 계산하면, 항속거리가 250∼270km에 늘어나는 셈이다.

그렇다면 파리에서 워싱턴까지 날 수 있으며, 런던에서는 디트로이트나 토론토까지 날 수 있다.

그리고 뉴욕까지라면 루크셈부르크, 뮌헨,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코펜하겐 등의 구주각지에서 단숨에 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파리←→뉴욕간을 3시간 40분으로—

이와같은 성능을 갖는 콘코드방식기가, 파리에서 뉴욕으로 날을 경우를 생각하여 본다. 출구로의 경이는 현실면으로 특히 문제되는 점이 없다.

상승속도는 330kt, 소음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도 300m를 넘어선 곳에서 아프터버너를 끄고 속도 250kt로 매분 152m의 상승률을 유지한다.

고도가 914m가 되면 400kt로 가속, 또한 1,500m에서 엔진을 최대 연속출력으로 가속 상승으로 옮긴다. 이 사이의 기체의 상승률은 최대 3,000m/분, 음속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군종 코너

미지의 그날과 그때

<공동 유 희 용>

예지가 발달한다고 함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며. 한국에서만도 매년마다 수천명의 박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능계 지식의 세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말한다. 현대의 몇년간 행할한 계속된 혹은 과거 몇십년 몇백년에 해당할 정도 놀라운 발전이다.

인간의 지혜가 무궁 승하지 않고 끝에 가는 경지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아직도 인간에게 있어서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그날과 그 때이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 만이 아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인공위성을 조정하여 달나라에 가는 우주 조종사도 수백 수천 세의 부속품을 알고 조정하지만 자기 생명의 끝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죽음을 때문에 생겨나는 비극과 불행을 우리는 주변에서 본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비극이지만 그 죽음의 순간을 모른다고 하는 비밀 때문에 그 비극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그러므로 성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후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는 죽음에서 준비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또한 죽음의 그 때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이요 인생의 종결선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절실한 문제가 다르게 된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근종코너>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준 종교이다. 어느 때 어떤 순간에 찾아오더라도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세계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긴 승리자요 영생과 부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사는 자는 죽음이 결코 위기가 될 수 없다. 또한 진리와 자유와 사랑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행동하는 기독교인은 "그 때"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되므로 그 죽음의 순간이 어느때 오더라도 절망하는 심판이나 좌절하는 결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죽음의 위기를 준비하고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간의 문제"로 귀착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를 네가 믿느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에 문제의 열쇠가 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죽음은 극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죽음 앞에 그 삶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분명한 새 세계에 대한 희망 가운데서 충실하고 활동하는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있고 민족과 국가에도 있다.

한일합방, 6·25사변, 4·19의거, 5·16혁명 등은 민족과 국가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1970년대를 북괴와의 관계에서 위기로 내다보고 있으며 안으로는 경제 성장과 동시 발생된 빈부의 격차, 퇴폐풍조, 부정부패, 외국차관, 대일관계 등의 문제점을 위기의 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위기의 순간이 언제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공산 마수의 흉수가 언제 거동할지 모르는 이 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안의 부패가 언제 심장을 멈출지 모르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노력, 서정쇄신, 퇴폐풍조 일소화 운동 등이 모두 필요한 준비 작업이라는데서 의의를 찾아본다. 그러나 여기에도 진정한 해결의 열쇠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안에 있는 고질과는 달리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힘을 소유한 자

가 밟힐 수 있으며, 밖으로부터 오는 붉은 세력도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환난, 핍박, 기도, 위험, 같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 이 조국에 정한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될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기로 삼고, 그 안에서 만전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다.

도박

<군종신부 박 순 재>

도박이라면 본격적인 노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으나, 요새는 흔히 「도리짓고 땡」 정도를 연상하게 마련이다.

관습상 트럼프는 어린이들에게도 허락되었었지만, 얼마 전만 해도 화투는 어른들만의, 또 특수층의 놀이로 취급된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서민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대중오락화 했고, 더욱이 군인들의 오락은 거의가 화투가 아닐런지. 화투에 「꽃놀이」, 「삼수공부」 등의 애칭이 있는 것이 이 때문이지만, 특히 여기에 도박성이 개재될 때 스릴과 전매가 있다. 「내기골프, 고스톱」에 그리고 또 「섯다」가 그러하다.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에 주당의 기분을 알 리 없고, 금연자는 애연(愛煙)하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으로, 「섯다」의 묘미란 방울 모락 주는 끗수의 판돈이 바로 알 것임에 틀림 없다.

신앙의 문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종교의 내용과 그 본질이 논리적으로 설명되겠나, 신앙이란 역시 일상생활의 체험을 통해 터득하는 인간형성에서 실감될 것이다.

물론 인간의 본질적 면을 다루는 종교와 또 생활의 수단으로서의 오락이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섯다」의 실태가 이들에 끼친 경향을 전제하여 그 신앙에 지식 이전의 순수한 체험의 교정이 바로 연결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하는 말이다.

소설 「데미안」의 경우처럼, 선악의 최고 대극적인 요소 결합인 「아브락사스」의 거한 가람당(伽藍堂) 속에서 초월적 신을 추정하여 인간의 지(知)를 전제로 함으로써 종교의 매력인 궁극적 의문

<군종코너>

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얼마 전 영화「스잔나」「아빠의 청춘」, 소설「러브 스토리」등은 의사의 진단 결과 죽음의 시작을 알고 맞는 비극의 소재들이었다.

죽음은 항상 슬픔을 안겨주게 되며 그 나머지 생애를 허탈하리만큼 값지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왜 비극적일까!

이기적 자기중심의 생활이었지만 한 푼이라도 잃을 수 없는 그토록 귀중한 시간이면서 그 소녀가 왜 남을 위해 헌신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

너무나 순수한 사랑이었고 철부지한 가정은 무섭게 져버린 죽음의 무덤 앞에서 그것이 자연 영속적 행복이며 희망이 되었을까?

확실히 인간의 생애는 투기이며 도박이다.

소극적 의미로 죽음을 직면한 순간은 순수하고 엄연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illegible]인 것이냐 또는 인간중심이냐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죽음을 통한 미래의 세계가 계속되느냐 또는 현실로써 끝나느냐의 문제이다.

파스칼은 종교적 신앙을 갖는 것을 도박이라 하였다.

천국의 구원으로써의 삶 선택과 [illegible] 리가 현세로서 끝나는 것이며, 끝 없는 멸망으로서의 사탄의 왕국이 현생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결의가. 인간의 행위는 절대적 자체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간적 행위는 절대성으로의 전진이라면, 이것은 최종적 통일인 초월적 신에게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적 이다.

하루놀이자 군인의 여가의 불가분적 것이라면 종교는 인간의 성숙과 완성적 길인 것이며, 하나 해이 도덕적 존엄을 맛보는 신앙인도 없이 그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신앙을 갖는 것은 도박에 비유될 수 없겠지만, 신앙이란 지식이나 설득에선의 결여할 고백이며 내면적 반응인 것이다.

군의 정신무장과 군목활동

<군목 최 혜 진>

서 론

군대의 생활은 일반적인 생활과는 다

은 정치 않다. 그 생활의 방식이 다르고 또 지향하는 목적과 지닌 사명이 다른 것이다. 그 사명은 국가의 평화나 행복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최일선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볼 때 정신무장 강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력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바울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자다가 깰 때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어두움에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다. 특히 여기 갑옷이란 말은 정신무장 혹은 영적무장(Spiritual armament)을 뜻한다. 그런데 현대의 정신주의 운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과거엔 주의와 운동이 있었거니와 단순한 이론이나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생명의 힘 또는 원리로서 지금까지의 모순된 역사의 조류를 뒤바꿔놓고 다같이 강력한 정신무장을 해야만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과 그리운 마음으로 굳게 다져가 보아야 하겠다.

세계 기독교 국가 사람들은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봉사를 해야 만족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진실하신 예수님의 희생, 봉사의 정신을 배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진실한 친절하고 온순한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세웠고 남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 하였다. 그들은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배웠다. 그래서 오늘의 영국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 이행을 한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한 공기 속에서 그러한 공기를 호흡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피어수양은 그 진면을 도장하게 되었다. 불과 수주일동안에 백여만명이나 지원했 와 나중에는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이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것이며 오늘날 그들이 세계를 주재하게 된 것에 의무를 실천에 옮기는 국민정신으로 된 것이다.

예컨대 한 부흥 전도에서 찰스·그레이(Charles Gray)라는 이 공군소령을 만났는데 그는 항공사로서 밤낮 비행하기에 바쁘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그는 자신의 업무를 모두 끝내고 나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했다. 그가 나에게 부탁하기를 "인천주교고아원의 창문 유리들이 깨어졌는데 추운겨울이 오기 전에 인천라고아원의 유리를 끼워주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시면 같이 유리상인에게 가서 비용이 얼마나 들런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하는 것이다. 그는 모범적인 장교요 교인이다.

<군종코너>

나는 그에게서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남는 시간은 봉사하고 일하는 정신이 곧 그리스도적 정신이라는 것을 배웠다.

오늘날 군대에 정신무장에 있어서의 군종활동은 사례업무는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종교행사, 인격지도교육, 상담활동, 방문 그리고 개인의 신상파악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정신무장을 하는 일들에 있으나 필자는 그중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신무장강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1. 적군 생활화로 정신무장

우리가 미국에 가보면 청교도(Puritan)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영국에서 살면서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신앙을 지켜가려는 정신무장을 할 여건에 미국으로 건너 갔다. 이들이 현재의 미국인들의 조상인 셈이다. 그러므로 미국전국의 정신적인 기초는 청교들의 정신으로 그것이다.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 자기의 고국을 떠나 그 멀리 미국의 원시림 속에 들어가서 그곳을 피와 땀과 노력으로써 개척했다. 그들은 먼저 교회를 세우고 모든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에 두었다. 정치, 경제, 교육,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 땅을 개척하고 부강을 세우며 모든 문화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도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를 지도하는 자리에까지 이른 나라는 세계 역사상 매우 보기드문 일이다. 그것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통한 정신적 강력 무장의 불꽃이 오늘 미국의 문화와 생활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세우고, 부흥을 일으키고 승공을 해야 할 수 있다.

미국 덴버(Denver)시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음)는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관광도시이다. 하늘은 우리 한국 가을같이 항상 푸르고 높다. 소낙비도 한시간 이상 오지않고 겨울에는 눈이 한국과 같이 많이 온다. 여름에도 높은 산상에는 눈이 사계절 덮고 있다. 록키(Rocky)산맥에는 많은 곧은 나무들이 하늘높이 솟았고 굵은 나무들이 무리져 땅에 그늘로 덮고 있으나 누구하나 꺾어 가지 않는다. 주일 소개지만 덴버시에는 인구가 100만명인데 미국에서 21번째 큰 도시라 하는데 교회는 400개나 된다. 주일이 되면 모두 정장에다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각기 자기 교회로 간다. 교회로 가는 것이 문화생활인줄로 알고 있다. 교회에 안 가는 사람은 좀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네면 교회마다 두자매 후

은 세차례 예배를 보는데 교회마다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성대한 예배를 드린다. 필자는 미국 와서 전에는 미국교회는 모레가 앉는 교회인줄 알았는데 많이 모이고, 헌금하고, 사랑하고, 열성적 일하는 교회였다. 브라이언 윌슨(Bryan Wilson)이 쓴 종교의 사회(Religious Society)란 저서를 보면 미국사람들은 주일이면 전 인구의 45%가 교회예배에 참석한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의 예배인 동시에 국민의 교육, 문화, 도덕, 정신무장운동이며 애국운동이요 국민의 정신적 원천인 것이다. 우리가 산에서 절을 발견하듯이 그들의 신앙에서 애국애족과 우방국들을 위한 교회가 많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민간교회에도 어느교회나 미국 성조기와 국기가 비치되어 있다. 나라와 종교, 국민과 종교는 두터운 관계에 있다.

그런데 덴버에서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콜로라도·스프링(Colorado Spring)이 70마일 인데 10여년 전 에 마침 시찰하고 교회에 들려 보았다. 지금은 우리 한국 공군생도 외, 김 두 생도가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공군사관학교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이다. 방문객마다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건물(건축에 500만불)을 보고 감탄하곤 한다.

그야말로 사관생도들의 영적, 정신적 무장 센터요 안식처이다. 1층은 모두 기독교 생크츄어리(Sanctuary)로 사용하고 아래층은 천주교와 유대교가 생크츄어리로 사용하는데 전 생도가 이 예배시간에 출석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교회는 정신적 센터요 원동력이다. 그리고 군목의 수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그야말로 완전무결함을 느꼈다. 과연 미국군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종교를 통해서 영적 정신무장으로 강군을 이루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도 육군 모 부대 사령관께서는 기독교 신자로서 예배를 인솔하여 보다 더 정신력으로 강한 군대를 이룩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따라서 전군 신자화로 강력한 최강 최대의 정신무장을 함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다.

1970년도 미국에서 할로윈에 시위 대학생들은 월남전쟁의 데모를 했으나 열렬한 교계지도자 맥킨·타이어 목사 같은 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Trust God)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공산주의와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유가 안 된다"고 대대적으로 시위 운동을 하였다. 그 당시 모 신문을 보니 전 국민의 90%가 이 공산 정권을 저지한다는 기사를 읽고 마음에

든든하였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점은 이 강한 단공주의자들은 성경의 근본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다.

2. 종교행사를 통하여 정신무장

예배순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모두가 정신무장, 인격함양, 인간개조, 생활무장, 보다 더 장병들에게 유익한 정신무장의 도장으로 알고 서로 권장하며 계속 노력해야 하겠다.

(1) 찬 송

찬송은 감사, 적극, 기도, 간증, 고백, 소원, 확신, 충성, 승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 예로서 찬송가 「풍우대작 할 때와 (Jesus, Lover of My Soul(388장))」는 평안하고 엄스러운 시련에서 우러나온 찬송인데 종교인만 아니라 모든 국가, 군인, 정치인, 학생, 사회의 모든 단체가 위기에 처해 있던 18세기의 영국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되었으며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사람을 위기에서 부축하여주는 완벽한 노래가 되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자기 자신은 물론 듣는 이에게 성자 향의 큰 감명을 주는 것이다. 크롬웰(Cromwell)의 군대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게 되도록 찬가를 부르며 진군하였다.

특히 우리는 찬송가 선택을 잘 해야 할 것이다.

(2) 성경봉독

성경은 세계에 있는 다른 모든 책들의 효능력을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큰 공헌을 인류에게 하여 왔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은 계정된 운명의 선구자 노릇을 하였다. 최악으로 변하여 암흑에 처했던 인류에게 찬란 지식의 서광을 고했던 것은 성경이었다. 수억만 노예의 멍에와 족쇄를 풀어준 것은 성경이었다. 위대한 자선가들과 박애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업에 일생을 바치게 한 것도 성경이요, 많은 병원들과 자선기관들이 성경의 교훈을 받들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군인들에게 많은 용기와 결심무장을 통하여 승리를 가질 것이 성경이다.

(3) 설 교

설교는 일상생활의 관계가 깊고 범을 만한 실제문제, 즉 정결, 경건, 신비, 축복, 천명, 직업, 의구, 봉사, 희생, 권위, 증명, 예수, 사랑, 자활방지, 순결, 정신, 신앙, 용기, 복무, 군대와 문제, 종교, 공산주의의 검사, 전력, 행복, 죄, 속죄, 휴게, 중생 구원, 자유 등을 대하여 철두철미한 기독교 인생관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갈린 과제를 확립

하고 경건예식의 정신을 함양함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5) 기 도

세계 제二차 대전시 영국의 가장 유명한 옥스포드대학에서는 1천名 현상을 걸고 기도에 대한 논문을 세계적으로 모집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또 2차세계대전중에도 영국은 1940년 5월 26일, 9월 15일, 1941년 3월 23일, 1942년 9월 3일, 1943년 9월 3일을 기도일로 선포해서 기도하였으며, 조지 · 워싱톤, 링컨, 맥아더 장군 등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에서 기도함으로 절망들에 힘을 얻어 승리하였다. 기도는 그 어떠한 원자탄보다도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결 론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에서 종말을 고한 직후 어느날 저는 점령지구에서 미·소 장군의 행사가 보도를 했다. 서로에 다리를 두고 한 연회중 미군병사가 "우리 나라에서는 그다음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말하는데 당신네 나라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련병사는 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들은 위대한 동무 스탈린에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탈린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요?" 에 관심이 초조한 대화 속에서 하늘과 땅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신 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요 스탈린은 물의적 한계의 생명이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너는 커서 무엇이 되겠니?"하고 물으면 "가톨릭 박사이거나 이웃 고생하는 사람을 돕는 책 고치는 사람이 되겠어요" 혹은 "불쌍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어요"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대통령, 장군, 국무총리 모두 높은 사람만 되겠다고 한다. 노력은 하지 않고 생각만은 커다란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다.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께서도 섬기러 왔노라 말한다는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가 신실한 신자로서 공훈의 신앙을 신념으로 무장할 때 개인은 어려움 같은 사람에다 고의 경건과 생활은 아주 새롭게 변화되며 자기를 헌신한 새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더욱 나라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심이 우리나라를 정비로 새로운 신앙과 확신을 실천에 옮기게 될 것이다.

× × ×

<항 공 실 화>

동체비상착륙수기

조엘·스토커 작

김 영 천 역

「자랑새 편대!」

「브라우닝」중위는 학생들에게 외쳤다.

「고공으로 상승하며 대기하라! 연료소모량을 최소로 줄이면서 순항을 계속하라」

그는 그들의 편대가 그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충분히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라우닝」중위는 급속히 「머레치」두 위쪽의 비행간격을 좁혔다.

「너어케」대위의 뒤를 쫓고 있는 그의 비행기 속도계는 시속 600마일을 조금 넘어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뒤따르던 그 고장난 비행기를 거느리며 간풍 제각한 속도로 날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급히 속도를 줄이고, 「데이비」대위와 나란히 날게 하였다. 그의 왼쪽 날개에서 20피이트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잡고 비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고도를 유지하라』

「크라우딩」중위는 소리쳤다.

『알았다』

「데이비」대위의 음성은 침착으로 넘치고 있어 보였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너의 비행 속도는 얼마쯤인가?』

『300』

『속도를 줄여라!』

『알았다.』

『속도를 줄이겠다.

어느 정도로 줄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줄이겠다.』

── < > ──

1955년 5월.

계절은 초여름 마침 넘어섰다

「마리조나」주 「투우크」공군기지에서 배우는 한 조종학생은 조종간에 달린 기관총 「코렌」을 눌렀다.

그의 F-86 「세이버 제트」전투기의 몸으로부터 한 기수로부터 「칼리버」50 기관총탄이 무서운 울음과 함께 발사되었다.

그는 남부 「마리조나」의 광장한 사막 12000피이트」상공에서 비행기가 달고 가는 표적물을 조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표적을 맞추는데 실패하였다.

그 기의 동체를 정통으로 뚫고 총탄은 지나갔다.

그 제트기는 조종학생의 눈에 띄지 않는 편향 후부로부터 막 선회해서 사격라인에 들어섰던 것이었다.

후에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것은 돌발적인 사고로서, 극히 보기드문 일이었다.

제트 조종사가 오기에 발포한다는 것은 오직 전시에만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는 발생하였던 것이다.

제트 전투기는 결국 파괴되어서 제트기를 탈출해 낸 만큼의 모험적인 것 이상인 것이다.

이러한 모험적인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제트 조종사는 떨어질 수 없는 최소한도의 모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 바로 훈련의 뜻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특수한 사고는 그 자체의

전쟁과 공포의 12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만 넘겨 버리면 그대로 넘어 버려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한 사람은 불멸의 용기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초인적인 희생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공적은 결코 아닌 것처럼 이 때 공군에 있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위대한 공적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30여세에 접어 들었지만 소년티가 채 가시지 않는 충실한 조종사 「리차드 머어커」대위는 그날 아침 일찍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날 첫 비행훈련조의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의 아내 「버나」와 귀여운 세 자녀를 거느리고 「루우크」 공군기지에서 그 30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글렌 데일」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행복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었다.

여섯 시에 그는 친한 식구들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집을 나오자, 얼른 세면 무대에 오락 그 날의 비행에 관한 브리핑 순서에 들어 갔다.

그는 비단 조종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에 있어서도 노력한 솜씨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공군단에 있은 그의 비행시간은 2천 4백 시간을 넘고 있었다.

이날의 그의 임무는 공중사격「공격 훈련」 교관으로서 비행하는 것이었다.

이 팀의 조종학생과 편대장인 자기 자신으로 구성된 그의 대형은 F-84 전투기는 「루우크」기지 서남방 70마일 상공에서 기총 사격을 연습하고 되어 있었다.

그들은 시속 600마일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동 표적에 대해서 규정된 회수의 사격 패스를 한 다음 귀환토록 되어 있었다.

「머어커」대위의 공중사격의 교관으로는 일과이었다.

그는 열렬한 평화주의자였고 그의 전대원들은 열렬히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이날 이 조종학생들에게 출격할 「머어커」대위는 초면이었다.

그와 함께 비행하면서 교육을 받은 적이라곤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이날 이 조종학생들은 모두 상호방위원조계획의 일환으로 와서 「루우크」기지에 파견되어 있는 외국인들이었다.

이 계획이란 두 말할 것 없이 미국정부가 우방제국을 원조하기 위해 그들의 비행사들을 조종 각 기지에 분속, 훈련시키는 계획인 것이다.

오전 7시 40분.

「디어키」 대위의 탄 기는 우렁찬 폭음과 함께 배기를 박차고 은빛의 날개를 번득이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잠시 후 또 다른 F-84 전폭기 그 뒤를 이어 요란한 폭음을 뒤로 「솔우즈」 기지를 이륙해 갔다.

이 편대 역시 1명의 노련한 교관과 미국인 조종학생 1명으로 짜여져 있었다.

편대장인 이 노련한 조종교관은 「브라우닝」 중위였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호남형인 그는 전형적인 텍사스 남아였다.

50년대 초에 공군에 발을 들여논 그는 이미 「케서린」과 두 자녀를 거느리고 기지 근처 관사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 가고 있었다.

「브라우닝」 중위와 「디어키」 대위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그러나 「브라우닝」 중위는 「디어키」 대위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당시 출군한 바 있는 실전 경험을 누구보다 많은 비행 기록을 갖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가 할 일은 그의 편대를 이끌고 서교도 대지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광막한 사막에는 허술한 덤불처럼 놓인 모의 탱크, 트럭 및 기타 병기들이 널려 있었다.

「브라우닝」 중위의 호출부호는 블루 버드「파랑새」였다.

오전 7시 50분

「디어키」 대위의 편대는 표적물을 단 비행권에서 아주 가까이 되었다.

눈 부신 광막한 사막의 상공은 구름 한 점 없이 햇볕이 따거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고도를 점점 낮추어가며 내려다 보이는 사막은 초코렛물을 칠하여 놓은 듯한 것 모양의 암갈색 바다와도 같았다.

여기 저기 솟아 있는 바위로 덮인 붉은 산들은 마치 초코렛크림 거품처럼 보였다.

한 여름 열로 이글대는 단 하나의 인공도 존재하지 않고, 만약 비행 선수도 엔진이 그 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를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냉엄한 금단지역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디어키」 대위는 표적물을 단 비행기와 통화를 시작했다.

「옐로우원」은 매장으로부터 포격 권한 기해지.

사격준비 됐오!

곧 규격 관인계의 소총수로부터 응답이 왔다.

「라이저, 준비됐오!」

「디어키」 대위는 표현물로부터 1마일

좌측으로 1마일 거리를 벌려서 고도를 높여 자리에서 결군을 시도하였다.

제트 전투조종사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는 공대공 사격연습도 그렇지만 모든 비행훈련에 있어서 보다 한층 사고방지를 위해 극도의 세밀하고 정확한 훈련체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타겟기가 끌고 가는 표적은 몇 곳에서 보아도 전후 좌우로 흔들리며 끌려가고 있어 공대공 사격은 극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동작은 세밀히 계획된 것이었다.

타겟기와 비행기 사이의 간격은 일정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고 각 비행기의 위치는 일초의 여유나 착오가 없이 정확히 규정되어져 있었다.

기술상의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안전성의 문제는 특히 공군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모든 제일의 기본 것이 되어 있다.

이날 비행사들 상호 연락은 다음과 같이 조절하게도 되었다.

조종사가 목표를 향해서 정정된 속도로 급강하를 시작할 때,

「일화인」 편대장 진입한다.

〈제각 보기는 2.3.4.번기로〉 각각 말하게도 하고,

기총사격을 가한 다음 목표물을 단히 빠른 길으로 돈살같이 지나칠 때,

"「일화인」 편대장 이탈한다"라고 말하게로 되어 있었다.

목표 비행기 밑을 사격 후 지나치지 않으면 안 될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비행기들은 다른 세 대의 비행기들을 명념해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터어키」 대위가 부그에 의하여 탔던 제1 패스는 실탄을 발사하지 않은 채로의 패스였다.

「터어키」 대위는 3번기가 귀하에 닥아오는 것을 목격했으나 그다지 위험하다고는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의 편대원들에게 주어진 패스를 따라 하여 그 패스에도 3번기가 간격을 맞추지 않으면 그 때야 주의를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제1회 사격 패스를 시작하였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들은 다시 제2 패스로 들어갔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은 제3 패스에서 생겼다.

「터어키」 대위에 접근해서 오던 3번기가 그의 기수 앞에서 옆으로 비켜 나가 편대장기를 시계에서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목표를 향해서 급강하 하면서 기관총 조준을 이루어지고 있던 그는 그의 열여

서 목표로부터 이탈하면서 해거전을 향해서 급상승하고 있는 비행기를 보았다.

그는 그것이 「테이커」 비행인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테이커」 의원 앞에 나간 3번기였다.

그는 「테이커」 대원가 이탈한대로 말한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4번기가 말한 것이였다.

그리하여 목표가 눈 앞에 다가오자 3번기는 탄아리를 떨궜다.

총탄은 무서운 불을 내뿜으며 기총을 여나 발사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테이커」 대원의 비행기가 3번기에 서쪽 칼연 마르 점탐하무로부터 쳐 올라 왔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도 모르고 속에서 독같한 매로 그 한생은 보턴을 누르고 있던 손을 즉시 떼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지났었다.

총탄은 발사되어 그 중 5발은 「테이케」 대원의 비행기 엔진, 그 중 3발이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던 것이다.

한 발은 「콕핏트」(조종석) 앞에 맞아 산소 라인을 절단하고, 그로 인한 폭발과 순식간의 화재는 비할속도계를 못쓰게 만들었다.

또 한 발은 「콕핏트」에 맞아 캐노피 사출장치를 작동케 하였다.

캐노피는 동체으로 뒤어 올라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그 다음 그 보턴은 조종사의 오른쪽 다리를 쏘고 지나 갔다.

조종사의 아랫다리 살이 한 두 파운드 떨어져 나갔으며, 근육과 신경을 찢기고 길이 12인치 넓이 3인치, 깊이 1인치라는 끔찍한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그는 좌석에서 앞에 앉으로 고지를 숙였기 때문에 혹심한 추위와 공기의 흐름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왼손으로 비행기를 조작할 수 밖에 없었다.

오른 손으로는 혁대를 따라 붙이고 터진 다리를 묶게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비행할 수 있었다.

그는 생각하였다.

설혹 내가 낙하산으로 뛰어 내린다 할지라도 나를 구출해서 위해서 기지로부터 헬리콥터가 날아 오기 전에 나는 바다에서 출혈 때문에 죽고 말 것이다.

공중에서 나를 발견한다 해도 그것은 30분 혹은 한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만일 아무도 나를 발견치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라디오의 송신 보턴을 눌렀다.

『여기는 「엔자인」 편대장,

메이 데이!』

그는 힘껏 외쳤다.

<동해 비상착륙 수기>

『여기는 「엘파쏘」 관제장.

메이 데이! 메이 데이! 메이 데이!』

그것은 떨어져 죽지 않는 모든 비행사들의 공동의 신호였다.

그 다음 목표물을 단 「비행기」 조종사에게 타전했다.

「엘파쏘」 관제장으로부터 동료를 건넨 거에게,

『내가 보이나요?』

비꼬고 말이 왔다.

관제기로부터 「엘파쏘」 관제실에게,

『라이자, 보인다.』

『나는 총탄에 맞았다.

나를 놓지지 않도록 감시하라』

조작은 관제기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알 도리가 없었다.

그는 그 순간에 실려나는 오직 한가지의 충고를 하였다.

『「엘파쏘」 관제장.

「크라코」를 돌려서 「질라 밴드」와 연락하라!』

「질라 밴드」는 「츄우크」지역에서 세운 약 40마일 떨어져 있는 비상착륙 기지였다.

그 지역 구획 내에서의 모든 행동은 「질라 밴드」에서 통제하고 있었다.

그 구역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조종사는 「질라 밴드」와 연락하도록 되어 있었다.

「질라 밴드」의 「콜 싸인」은 「크라코」였다.

『라이자, 계속해서 나를 잘 감시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머슈케」 대위는 말하였다.

그러나 그 시각 조작물을 단 비행사의 세계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목표물을 단 비행기의 조종사는 이렇게 외쳤다.

「머슈케」 대위는 공중에서 홀로 되고 말았다.

그는 「크라코」로 전기오의 스위치를 돌렸다.

『「질라 밴드」

여기는 「엘파쏘」 관제장.

긴급하다.

……나는 총탄에 맞았다.

출혈이 심하다. 「츄우크」지로 돌아갈 수 없다.

출혈로 죽게 되었다.

그곳의 활주로에 불시 착륙하려 한다.』

극히 짧은 순간에마다 그는 매우 똑똑히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눈을 뜨지 않는 대로서는 조종석의 어떤 계기판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크레이크 없이는 계산에서 비행기를 조작할 수 없을 것이다.

매라가 착륙을 한다면 아쉐를 남은 채 동체로 착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길라 밴드」에게 물었다.

『그곳에는 어떤 의료시설이 있는가?』

그 비행장은 바다로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길라 밴드」의 대답은 굉장히 가냘프게 들려왔다.

『「헬리콥」 한 대와, 여기는 「길라 밴드」 해군에는 「앰블런스」 한 대와 위생병 한 명이 있다.』

「헬리콥」 한대장으로부터 「길라 밴드」에게 『군의관은 없는가?』

「길라 밴드」로부터 「헬리콥」편대장에게 『군의관은 없다.』

비록 라디오를 통한 대화였으나 「길라 밴드」는 「더이커」 대위의 음성에서 긴 세력의 느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쿠우크」기지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해야 해 보겠다. 나에게는 군의관이 필요하다.』

그로부터 그는 점점 혼란해지기 시작했다.

충격과 출혈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몇차례나 「길라 밴드」에게 군의관이 있느냐고 물었다.

『군의관은 없다.』

매번 대답은 꼭 같았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묻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군의관이 필요하다. 군의관이 없는가?』

「더이커」 대위보다 2, 3분 전에 「쿠우크」기지를 이륙하였던 「브라우닝」 중위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듣고 비로소 부근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브라우닝」 중위와 그의 편대원은 「더이커」 대위가 위치하는 곳에서 동쪽으로 약 10마일 밖으로 15,000피이트 떨어져 있는 구역에서 지상목표에 대하여 최후의 사격 「패스」를 하고 있었다.

기체를 기우뚱 돌리면서 「브라우닝」중위는 「길라 밴드」를 불러 연락을 하기 위해서 「브라보」로 스위치를 돌렸었다.

그때 그는 「더이커」 대위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실명하고 있다……. 「쿠우크」기지로 돌아가 보겠다.』

그 다음에 그는 군의관에 관한 이상한 얘기를 물었다.

「브라우닝」 중위에게는 즉시 그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조종사들은 다른 조종사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는 한 함부로 도움의 손을 뻗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브라우닝」 중위는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 군의관을 찾는 것일까 그라는 「두우크」기지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는데 왜 그는 처음부터 「두우크」기지로 향하게 했을까?

그때 「브라우닝」 중위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부상당한 조종사는 혼자 몸이다. 그가 누구이든 또 어떻게 해서 부상을 입게 되었든 문제가 아니다.

그는 홀몸이고 곤경에 빠져있다.

구해지는 도움이 필요하다.

「브라우닝」 중위는 급히 물렀다.

「「펠리인」 편대장 여기는 「블루버드」 편대장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더어키」 대위에게 마치 종소리와도 같이 작용을 하였다.

그 수초 전만 하더라도 의식이 몽롱해 짐에 따라서 그의 음성은 새져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음성은 똑똑히 날카롭게 그리고 침착하게 울려왔다.

「물론이다 나는 몹시 피를 흘리고 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나의 날개 가까이에 와서 나의 비행속도를 알려줄 수 없겠나?」

이미 심한 출혈은 「더어키」 대위의 시력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겨우 계기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속도계가 고장이 나서 바늘이 제로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다만 계기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일 비행기를 착륙시키려면 모든 단계에서 그의 비행속도를 알아야만 언제 속도를 늦추고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브라우닝」 중위는 말해줬다.

「「펠리인」 편대장. 귀관의 위치와 고도를 알려라.」

「나는 「빌리 힐즈」 서남방 15마일에 있다. 「두우크」기지를 향하고 있다. 고도는 1만 5,000」

「더어키」 대위의 비행은 정신적인 것이었다. 엄청난 시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시력은 몽롱해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속도를 잦아서 마치 배운기모양 똑바로 귀환코오스를 취하고 있었다.

다년간의 비행에서 체득한 모든 경험과 훈련과 규율은 그를 인간계로 만들었던 것이다.

의식이 약화되었을 때 이 계기는 본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더어키」 대위의 「제트」기를 조종한 것은 바로 이 본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의 실수를 범하고

것이었다. 그는 비행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교대로 세번에 비행하고 있었다.

최저속도에 기체는 한층 너무 저속으로 나르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계속해서 속력을 냈다.

그리고 동속에 기체는 고속도로 날으고 있을 때에는 맹렬한 공기의 흐름으로 「텔레」이 날아갈 것을 두려워 하였고 혼란된 정신 속에서도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연료 문제인 것이었다. 「더에크」대위는 무의식중에 계수를 확인 속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계기로 그와 지상과의 귀중한 공간을 좁히고 있었다. 그는 지상 100미터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다.

로꾸엔 나는 천천히 먼저가 알게했을 지나갔을 때 비로소 그는 조종간을 뒤로 힘차게 잡아당겼다.

그곳도 역시 울퉁불퉁한 작품이었다. 「더에크」대위가 위험을 감지할 것은 의식이 아니였다.

그것은 참전의식이었다.

그때 「브라우닝」중위가 그의 교도를 들이민 것이다.

피어린 눈으로 교도계를 연결중할 듯 어따 보고 있던 「더에크」대위는 13,000으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1,300이었던 것이다.

「브라우닝」중위는 「더에크」대위가 아직도 고공에 있는줄 알고 착생들에게 빠져오라고 신호하면서 그를 뒤거 뒤에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착생들에게 그와 「더에크」대위와의 채화를 들을 수 있도록 「브라보」로 스위치를 돌려도록 명령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에크」두 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의 오른쪽 다리에는 세 군 그 명이 붙어 있다. ……들에 착륙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지 않더라도 공중에는 부상당한 조종사가 있고 그들은 그 사람의 탈식을 드무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명예는 헛수고였다.

그들은 「더에크」대위가 측면의 어느 곳에 있는줄로 믿고 있었으나 그가 약 300 길 옆에 있다는 것은 알도리가 없었다.

「브라우닝」중위는 다시 한번 「더에크」대위의 위치를 물어보았다.

그는 대답하였다.

「나는 「헐크아이」상공에 있다.」

「헐크아이」는 「킬리인드」의 「콩루크」

거리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이었다.

그 2,3초 후에 「테어커」 대위는 그의 말을 계속하였다.

『아니다. 나는 「베코아이」 상공에 있지 않다. 나는 제6「특경리어리」 상공에 있다! 그것은 사각 위에 있는 버섯형 봉우리에 「유유크」기지에 조종사들이 귀환에 이용하고 있는 한 목표(目標)였다.

「브라우닝」 중위는 미친듯이 좌우로 살피면서 위와 뒤를 내려다 보았다.

그러나 비행기는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넓었다.

샅샅이 훑어 보기에는 너무도 넓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야 한다. 지금 곧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브라우닝」 중위는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탁생 중의 한 사람이 「테어커」 대위를 발견하였다.

『블루버드』 편대장!』

하고 그는 외쳤다.

『그는 11시 방향에 있다. 고도는 아주 낮다.』

「브라우닝」 중위는 속이 찢어지는듯한 소리를 내면서 급강하를 했다.

이제 그는 자기보다 훨씬 앞에서 그리고 훨씬 밑에서 사막 위를 아슬아슬하게 저공으로 날아가는 은빛 물체를 볼수 있었다.

그리고 「테어커」 대위를 본 「브라우닝」 중위는 흥분했다.

그를 따라서 비행하는 방향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비로소 「브라우닝」 중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었다.

「테어커」 대위는 그가 고도 13,000피트를 날으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13,000을 잘못 읽은 것이 분명하다.

거의 실험상태에 빠지려고 하는 부상입은 조종사가 순간으로 혼란한 비행장에 동체착륙을 감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테어커」 대위의 비행기를 힐끗 쳐다본 「브라우닝」 중위는 「쉬노커」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절대로 그것을 몰랐던 것이다.

『다이브·토메』를 생각하곤 어쩔거나』 하고 「브라우닝」 중위는 말하였다.

그것은 동정스런 명령이 아니라 경험있는 조종사의 체면을 온순적으로 깊이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므로서 「테어커」 대위는 그의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살아서 그 속에서 빠져 나오는데 필요한 거리를 얻게 될 것이다.

「테어커」 대위는 「라이저」라고 말하고 조속 그 비행기를 받아드렸다.

「브라우닝」중위는 비행기의 동체로부터 두꺼운 철제「레일」가 연결한 공기의 흐름 속에 떠받쳐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항력을 발생시켜 비행기의 속력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였다.

공손하고 사려깊은 처의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문연「터어커」대위는 그 낮은 고도를 옮겨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의 비행기는 아슬아슬하게 앞에 보이는 나무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었다.

『당겨라! 당겨!』

하고「브라우닝」중위는 외쳤다.

그때「터어커」대위는 조종간을 당겼다. 비행기는 불과 몇「피이트」를 남기고 나무 위를 지나갔다.

이제 그들은「류우크」기지에서 10마일 정도의 거리에 도달하였다.

「터어커」대위는 코오스를 이탈했고 그때마다「브라우닝」중위는 그를 올바른 코오스로 인도하는 것이였다.

『바로 2도 이동하라!』

『라아져』

그리고 또—

『우로 2도 이동하라!』

『라아져』

그들은「풀루우더어드」편대장으로부터「알타인」비행장에서와 같은 형세적인 상에는 오래 전부터 쓰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광고구락부에서 비행물을 사이에 놓고 말들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있었다.

「터어커」대위는 적당한 고도와 속도를 유지하고 올바른 코오스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에는 아무런 지시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브라우닝」중위는 여전히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였다.

그는「터어커」대위에게 자기가 바로 옆에서 감시해 주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유지하여야 했다.

『잘 한다.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 이상은 염려없다.』

이렇게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터어커」대위는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아침에 느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 뒤 편에 동체착륙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잊고 있었다.

『「풀루우더어드」편대장』하고 그는 초조한 듯이 말하였다.

『나의 엔진·계어는 어떠한가?』

배는 더욱 침착하게 묻고 싶지 않았다. 「엔진·기어」로 착륙할 도리는 없을까!

『무슨소리야! 동체착륙해!』

<돌체 비상착륙 수기>

그러나 착륙문제는 「브라우닝」 중위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었다.

「루우크」기지에 있는 두 개의 활주로는 남서쪽으로부터 북동쪽으로 뻗어 있었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방향도 그와 같은 방향이었다.

그러나 비행계획 이착륙은 그 반대방향으로부터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올바르게 착륙을 하려면 그들은 기지상공을 선회하여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데이커」 대위가 그들이 날라온 사막을 향해서 기수를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착륙하는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브라우닝」 중위는 「데이커」 대위를 그대로 착륙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 부상을 입은 조종사를 일초라도 더 오래 공중에 날게 둔다는 것은 아주 큰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브라우닝」 중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커」 대위는 언제고 또다시 의식을 잃고 추락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때의 「데이커」 대위는 의식이 몽롱하였다.

『이 이상 더 정신을 차릴 수 없군』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들은 기지에 접근하고 있었다.

「브라우닝」 중위는 「모빌·콘트롤」을 불렀다. 「모빌·콘트롤」이란 비행장 끝에서 약 2,3초 가다 있는 「제트」기의 빈번한 이착륙을 조정하고 있는 「라디오」를 장비한 트레일러였다.

『모빌·콘트롤』하고 「브라우닝」 중위는 말하였다.

『「일제인」 편대장이 왔다. 추에는 활주로 반대방향으로부터 착륙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통제탑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는 「러닝트」 안에서 훈련도 죽을 지경이라 할 실전중에 만났다.

이어서 「모빌·콘트롤」은 소리쳤다.

『모든 비행기에게 경고한다. 이착륙을 금지한다! 활주로는 폐쇄되었다! 소방차와 「앰뷸런스」는 출동하라?』

「브라우닝」 중위는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눈앞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 속에 그려볼 수 있었다.

「제트」전투기 기지의 큰 규모 경계가 아연 활발해졌다.

경험들은 즉시 같은 비상부서로 달려가고 「트럭」들은 활주로를 향해서 달려갔다.

착륙하게 위하여 기계 주위를 선회하고 있던 비행기들은 급히 반대방향으로

편차하여 넓은 지역으로 날아갔다.

그는 라디오는 파장을 맞추어 그 변조 다이얼를 청취하고 있었다.

이제 「브라우닝」 중위는 될이헬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데이커」 대위도 하여금 「모라토」로 부터 「모빌·콘트롤」에 사용하고 있는 「에코오」로 라디오 스위치를 끄도록 하게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브라우닝」중위의 말을 「모빌·콘트롤」과 「데이커」 대위가 동시에 들을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 없어. 그러나 그 조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다. 「브라우닝」 중위와 「데이커」 대위는 그들을 연결하고 있는 라디오의 스위치를 끄지 않으면 안 되며 실신상태에 빠지려 하고 있는 「데이커」 대위는 「브라우닝」 중위가 기다리고 있을 「에코오」를 찾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두 사람을 연결하는 통신의 생명선은 영원히 단절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모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델라웨어」 관제탑, 「에코오」로 전환하라」 하고 「브라우닝」 중위는 억지로 태연스럽게 말하였다.

「라져」

「데이커」 대위의 음성은 약하였다.

「브라우닝」 중위는 「에코오」로 스위치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델라웨어」 관제탑, 잘 들리는가?」

하고 그는 말하였다.

1,2초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때서 「데이커」 대위의 음성이 들려왔다.

「잘 들린다.」

그의 음성은 거의 쾌활하게 들려왔다

「브라우닝」 중위는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음에 「모빌·콘트롤」을 불렀다.

「「모빌·콘트롤」은 잘 들리는가?」

「잘 들린다」

그리고 「모빌·콘트롤」은 계속해서 말하였다.

「30초마다 신호탄을 발사하겠다.」

그것은 만일 「라디오」통신이 통하지 않을 때 비행기에게 신호를 하는데 사용하는 적색과 녹색의 신호탄이다.

「브라우닝」 중위는 앞에 신호탄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와 「데이커」 대위가 올바른 「코오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행장 자체를 보기에는 너무도 고도가 높았다.

그렇다고 해서 「브라우닝」 중위는 결코 「데이커」 대위를 상승시킬 수는 없었다.

「데이커」 대위는 안정되어 있었다.

<동계 비상착륙 수기>

그는 계속해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브라우닝」 대위는 분당 100피이트 비율로 상승하며 바로 앞에 활주로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그의 「머어피」 대위는 손에 땀이 배어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는 비행기에 대하여 중얼거리고 있었다.

「저렇게 있으면 있으면 좋겠는데 저 활주로가 있어야 하겠는데」

이제 그들은 1마일 이하의 거리에 접근하고 있었다.

마치 한눈도 팔리지는 것 같이 보인 만큼 가까이 접근해 있는 두 줄의 활주로가 번쩍이고 있었다.

「비행장이 보인다!」

「머어피」 대위가 큰 소리쳤다.

「활주로도 보인다! 그러나 내가 보는 활주로가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브라우닝」 중위가 말하였다.

「브라우닝」 중위는 1,200피트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으나 실은 그것은 옳은 활주로가 아니었다.

좌측 활주로를 향하고 있어야 할 「머어피」 대위는 우측 활주로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 우측 활주로는 수리하기 위해서 폐쇄되어 있었다.

그 변두리에는 「트럭」이 산재되어 있었다.

「브라우닝」 중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직감적으로 파악했다.

그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만일 최후의 순간에 「머어피」 대위가 활주로를 변경하여 된다면 그는 불안정한 균형을 잃고 추락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비상착륙을 하려는 조종사에게는 제2의 활주로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도 「브라우닝」 중위는 트럭과 노동자들이 거점을 쌓아 아스팔트 부분을 덮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활주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몰랐지만 모험을 해볼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활주로 밑에 있는 평원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다.

앞을 활짝 펴다본 「브라우닝」 중위는 소방차, 앰뷸런스 그리고 「머어피」 대위가 그의 비행기를 돌아올 때 「퍼킨스」 부부, 그를 구출하기 위한 「크레인」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활주로가 시작되는 곳에는 방책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C-119」형으로부터 투하는 제트기가 활주로를 너무 지나칠 때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쇠사슬과 케이블론장이었다.

그것은 보충이 되는 것이었으나 「브

역에서 나온 사람들은 「데이커」 대위가 바른 활주로에 착륙하려는줄 생각하고 그 위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어 놓았다.

『우로 25도 선회하라!』

「브라우닝」 중위가 말했다.

「데이커」 대위는 이행하였다.

『조금 속력을 줄여라!』

「데이커」 대위는 속력을 줄였다. 그리고 그는 『「다이브·도어」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브라우닝」 중위는 안심하였다.

「데이커」 대위의 어성은 아직도 침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이브·도어」를 놓이면 비행기가 물 위를 더 잘 미끄러져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치 모욕의 순간에 억척같이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그들은 불과 5,000피트의 고도에서 해변 위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들은 시속 150마일 때로 날으고 있었다. F-84는 시속 약 140마일에서 착륙하는 것이다.

「브라우닝」 중위는 속도계 눈금으로 위험하게 비행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 공중에서 떠 있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감히 「데이커」 대위 옆에서 착륙할 수도 없었다.

『엔진을 꺼라!』하고 그는 외쳤다.

『끄고 있는 중이다.』하고 「데이커」 대위가 말하였다. 그는 엔진을 완전히 끄고 있었다.

그때 「브라우닝」 중위는 공포에 숨이 막혀버렸다. 「데이커」 대위는 너무 빨리 착륙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활주로가 미치지 않은 해변을 치고 방책을 통해서 동체착륙할지도 모른다.

『더 기다려서 방책을 넘어라!』

「브라우닝」 중위는 긴장된 고민 속에서도 「데이커」 대위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억지로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다음 그는 주시하였다.

그리고 「데이커」 대위의 비행기가 바다 거리를 활주하여 한 끝에 가까운 자갈과 몇 인치를 남기고 방책 위를 아슬하게 넘어가 아스팔트를 향해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D. K』

하고 「브라우닝」 중위는 소리쳤다.

『활주로 끝에 도달하였다! 성공하였다 굿·럭!』

그리고 그는 속력을 냈다.

그는 활주로의 절반을 스쳐 지나가서 다시 창공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데이커」 대위의 비행기는 아직도 「스키아크로」와 구름같은 연기와 먼지를 내면서 통째로 활주로 위를 미끄러져 내달아

저 가고 있었다.

곧 10여명이나 비틀어져 간 다음에 비로소 비행기는 멈추었으며 비행기의 동체는 부서지고 찌그러졌다.

「머어키」 대위가 충돌해 맞은지 12초가 지났다.

트럭과 차량들이 그 파손된 제트기에 재로 달려왔다. 소방대원들은 주위에 흘려진 연료에 불이 붙지 않도록 잡히 주위의 아스팔트와 비행기 밑에 물을 뿌렸다.

키가 크고 체중이 200여 파운드나 되는 「짐·노크타」라고 하는 소방대원은 현관 「락 벨트」로 단련된 한 사람이었다.

『비행기에서 나오시오!』

하고 「노크타」는 소리쳤다. 비행기는 연기에 휩싸여 모를 뿐이었다.

『난 움직일 수 없다.』

좌석의 벨트를 풀면서 「머어키」 대위는 외쳤다.

「노크타」는 「락키트」옆에 있는 날개 쉐도 위에 올라 갔다.

그리고 175파운드도 되는 「머어키」 대위를 조종석에서 들어올려 준비되어 있는 들것 체로 올려 놓았다.

『비행기가 폭발할 때 비행기가 날아 갔다.』하고 「머어키」 대위는 중얼거렸다.

그를 들것에 눕힐 때 한 여자가 급히 자기 머리에서 머리띠를 풀어내어 「머어키」 대위의 머리에 감아줬다. 바람에 「머어키」 대위는 지혈기를 얻은 것이다.

「노크타」의 말에 의하면 「머어키」 대위는 들것에 눕혀지자마자 의식을 잃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나 「머어키」 대위는 그래도 자기는 비교적 의식이 깊었다고 말하고 있었고 「앰블런스」가 수키벌을 향해서 급히 달리고 있을 때에도 『군의관님 다리를 잘라지는 말아주시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병원에서 「머어키」 대위는 즉시 수혈을 받았고 항공군의관 「C·E 코코란」 대위가 상처를 응급처치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머어키」 대위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 「베티」는 옆에 앉아 있었다.

『별 일 없어』하고 그는 말하고 또 다시 의식을 잃었다.

「쿠우크」기지에는 특수한 치료 시설이 없었다.

따라서 그날 오후에 「머어키」 대위는 비행기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 동쪽에 있는 「파악스」 공군기지 병원으로 수송되었다.

그 곳에서 그 이튿날 새벽 그는 자기

과 폭발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날라온 총탄에 맞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부주의로 「더어키」 대위에게 부상을 가한 그 학생의 엄정과 극적은 공경되지 않고 했다.

공군에서는 그로하여금 훈련을 끝마치도록 허용하였고 그 후에 그는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한편 「브라우닝」 중위는 그의 학생들을 인솔하고 서쪽에 있는 비상활주로에 착륙하였다.

그 활주로는 2,3분 전에 「더어키」 대위의 학생들이 착륙한 바로 그 활주로였다. 후에 기지로 귀환해서 비로소 「브라우닝」 중위는 「룸우크」 공군기지에서 두 명중이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 중의 하나는 「더·더어키」 대위였고 또 하나는 「하워어드·브라우닝」 중위였다.

「브라우닝」 중위와 「더어키」 대위는 6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상면하였다.

그러 「브라우닝」 중위는 하리도 「더어키」 대위가 입원중이었는 「후막스」 공군기지까지 특수한 임무로 비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더어키」 대위는 그의 다리를 잃지 않았다.

다리에는 숱폭하게 들어간 큰 총대가 있고 중요한 신경과 근육이 절단되었기 때문에 발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비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제트기를 조종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직도 「룸우크」 기지에 있는 「브라우닝」 중위는 「더어키」 대위의 다리가 상처를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에게 다시 조종할 것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자는 다리 잃은 자였어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을게다』 이렇게 「브라우닝」 중위는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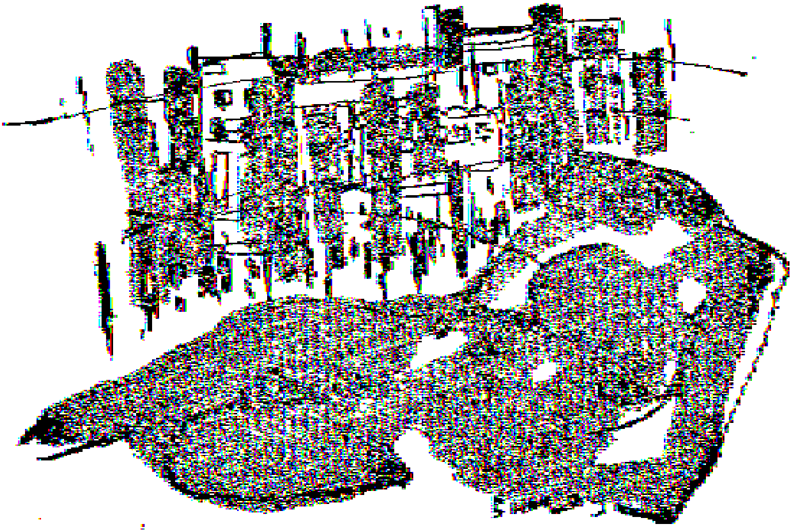
공군에서는 「더어키」 대위에게 평화시에는 극히 드문 항공수훈장(D·F·C)을 수여하였다.

한편 「브라우닝」 중위에게는 수훈 공패가 수여되었다.

그들의 사령관 「T·C라이케스」 준장은 그들의 공적을 『우리 공군조종사들의 탁월한 조종능력과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난관을 극복하는 그들의 능력을 여실히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분명 동 사건을 관여식으로 평가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더어키」 대위를 비방하고 그 후에 의외적으로 제멸되어 민간생활로 돌아간 전 공군의 「토요지」 씨는 그와는 약간 다른 결론을 이야기 하고 있다.

『나는 공군에 3년동안 있었다. 그동안 나는 어리석은 짓, 괴부린 짓, 벌거에 것을 보았고 또한 훌륭한 근신정신을 보았다.』



뒤늦게야 문을 걸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도 생겼으면, 생각하며 연구실 안을 서성대는데 마침 전화 벨이 울렸다.

오래간만에 가슴께 뜨끔해 침을 삼키며 수화기를 드니 뜻밖에도 군대 동기인 엽(葉)사장 한테서였다.

내가 약간 놀란 어투로 웬일이냐니깐 그는 그저 저녁에라도 같이 한잔해서 그런다 천연스레 말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얼른 확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나에게 엽 사장은 그럼 그런줄 알고 기다리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난 혼자 괜한 어색한 제스추어를 짓다 말고 수화기를 놓았다.

아무도 내 얼굴을 안봤지만 꽃 버릴 자격은 애초 없었다. 차라리 이놈말로 "좋다!"해 할 수 있을 만큼 배짱 편은 못되었다. 다만 엽 사장이 평소에 쉽그러다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소일 하느라 두손 불순한 저의라도 있어 보이지 않나 해서 약간 께림칙한 뿐이었다. 그렇다. 께림칙했다.

께림칙 정도만 가지고 초대를 물릴 순 없었다. 그야 새로 전화를 걸어서 타당한 핑계를 내세우고 뒷거둠질 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물리는 방법보다 내 걸음이 더 끌리게되었다.

집에 일찍 들어가면 난 그만큼 더 시간을 아내에게 시달려야 했다. 두둑한 돈뭉치라도 들고 들어가지 않는 한 요즘에 아내의 악담은 거의 매일밤이 예외 없었다.

아내는 날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도저히 한 가정을 이끌고 나갈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날 내쫓기려 두질 않았다. 무능한 사람은 밤낮 볶거나 쥐어 박아도 좀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녀는 나에게 계속 여유를 주잖고 극성스레 볶고 쪼고 했다.

이런 아내의 입을 틀어막나마 고치는 방법은 돈을 쥐여 주는 것 뿐인데,

[illegible]

[illegible]

정 사장과는 군대 동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가 못 되었다. 군에 있을 적에도 서로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군복을 벗고 넓은 동경두메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지금, 둘의 사이가 더 서먹해진건 당연한 추이였다.

물론 제대 후에도 둘은 몇 차례 만난 일은 있었다. 그러나 번번이 질거워서 우울해졌다.

만나면 둘은 곧잘 다방에 들어가곤 했다. 동기생끼리인데, 길거리에서 손이라 잡아 흔들고 그냥 헤어지기가 뭣해서 비용 적게 드는 다방에라도 들리는 것이었다.

다방에선 차를 마시며 이야기 하게 되는데 주로 정 사장이 했다.

정 사장은 말이 많은편으로 능변이었다. 누구에게도 그렇지만 그는 나와 마주 앉기가 무섭게 오른손으로 연신 흘러 내려진 앞 머리칼을 쓰다듬어 올리며 얄팍한 입술을 능란하게 놀리기 시작하곤 했다.

화제는 각기 사실 이야기가 주였는데, 남에게서라면 싱거운 정도로 평범할 이야기가 그의 입을 통하면 재미있고 구수하게 변했다. 그래서 난 뒤돌아볼 그의 이야기에 잡혀서 꽤 많은 시간을 그와 소비하곤 했다.

그는 이야기 할적에마다 시종 자기를 내려 깎고 남을 대단스레 추키는 표현을 하는데 결론에 가서 보면 결국같이 반대의 효과가 되어 버리곤 했다. 그런데도 얄미울거가 않고 귀가 기울여지는 것은 전혀 그의 능란한 화술 때문이었다.

그의 말의 참 사실로는 거짓말로 한다는 술수 없다고 그를 아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알아서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것에 끌려 돌아가게 되는 데는 역시 그의 말에 마력의 작용이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은근한 미소와 호탕스런 웃음이 범벅이 된 그의 화술은, 기동술에 번역

이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육중한 체구를 흔들거려 피우는 제스츄어와 조화되어 듣고 보는 사람의 혼을 빼기에 족하였다. 이런 임 사장의 화술 덕에 난 젠키리에서 만났다가 대합에 들어가는 일을 애써 피하지 않았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그를 진정으로 좋아한건 아니었다.

이런 우리들의 사이를 생각하면 난 너무 엉뚱하고 계획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사장실 문을 노크하고 안에 들어갔을 적에 그는 <아, 와줬구나!> 하고 갑작스레 외치며 몇걸음 나왔다. 그리고 커텐네 지하듯 내 오른손을 두손으로 잡아 쥐어 흔들며 소파쪽으로 끌었다. 그러다가 내 젖은 오우트를 벗겨 걸어 주기도 했다.

「야, 와줘서 정말 고맙다 야―」

임 사장은 날 소파에 앉히고 담배를 권하면서 한번 더 귀뿐에 젖은 음성으로 말했다.

「너 왜 이러지?」

난 그가 권해 주는 자스민이 피울린 담배를 문채 뿜으며 이렇게 의아스레 물었다.

「너야말로 왜 이러지? 오랜만에 둘이서 만났는데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임 사장은 장사군들에 곧잘 보이는 흘깃눈을 하면서 능청스레 대꾸했다.

「알만해도 엉뚱해서 그런다.」

「얻은 그렇게 했지. 그동안 내가 사업에 쫓기느라 넌 한번도 저녁에 초대하지 못했으니까 말야. 그런 내가 늘상 넌 초청하니까 오히려 놀라더란 모양인데……모두 내 잘못야. 내 잘못!」

임 사장은 제기 특유의 너털웃음을 웃어 제꼈다.

「그 점에선 나도 같이 사과할 일일 거지만……」

「암튼 장삿 속에선 넘 우물쩐 아니냐 망놓고 어서 재벽에나 하러 가자구……」

그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너 여적 차 없니?」

책사를 나오면서 난 쉴 새없이 넌지시 물었다.

「차가 다 뭐야.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저두 역시 술배꾼이구나. 무조건 잃는 걸 보니……」

「아냐, 소원에야. 이젠 좀 가릴 형편이 못돼.」

회사 앞에서 우린 잠깐 먹쇠 일마궁 쉴 참이를 벌였다. 난 반쉬를 깨하며 어디 오붓한 대폿집에라도 가자고 했다. 거기 정종에 불고기나 몇 대 뜯고 헤어지자 작정했다. 하지만 그는 반대였다. 고궁요정을 들먹였다. 거창한데 큰걸 한방에서 눈알을 놓고 홈벽 마시자 하였다. 난 그런 낭비라며 질문만 했다. 불고기집엘 가자 했다. 그는 동의했다. 역시 젊게 많은 시작이라 하며 저들것을 먹되 몽뚱은 한참 건너보니 한 입 사장의 요무르고 추출게 갔었다. 대수롭잖아 뵈는 원체 철저 그렇지가 않았다.

둘이 들어간 집은 프로판가스를 쓰지 않고 숯을 쓰는 불고기집이라 하여 사람이 많았다. 헬 사장의 안면이 아니면 그냥 돌아섰어야 할 정도로 가진 붐비고 있었다.

우리에게 배당된 방은 종업원들의 침실이었다. 그 집 권위가 그렇게 컸지만 그 방은 유달리 형편없었다. 누어진 종이 저렇 누릇누릇 얼룩진 천장에서 벽지가 말린 천정은 울룩불룩 터져 튀어나오고 아주 석이 빠진 벽지가 붙은 벽은 가운데 있었다. 방 구석께에 쌓인 먼지가 흐르는 이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 방바닥도 배지고 저지고 해서 반반한 곳

[illegible]

없이 내게에게 고린 엔으며 식구을 게걸다. 그런 는 그의 얼굴에 어느새 수기(猜疑)가 덮혔다. 언제나 심기가 틀린 그의 얼굴에 말이다.

「바로 봤어. 마누란지 여편넨지 하고 한 배를 탔지. 바로 이게 돼……」

그는 다시 발을 옮고 젊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 부터 그는 저소법칼게 차운이 지런붊은 이로도 과거 가정에서는 밖에 나갔다.

그래 아내는 그가 사장이 되면서 한결 더 그를 시중하기 시작했다. 물론 전에도 아내에게 그런 버릇이 있은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무 때까지는 조금 얼렁뚱땅 해서 돈 문제를 안겨 주곤 했기 때문에 그녀의 모질에 그래 엔히게가 많았었다. 근데 사장이 되면서 그는 그녀에게 용처돈을 가져다 줄 수가 없게 되었다. 전무 때까지는 봉급 안고 남의 밑에서 일한 때이니까 이럭저럭 사장의 눈을 속여 용처돈을 만들 수가 있었지만, 회사가 자기 손에 들어온 뒤부터는 그런 수가 없었다. 한 푼이라도 더 회사에 투자해야 할 형편인데 어떻게 용처돈을 가져갈 수가 있겠는가. 그게 아내로 하여금 투정을 금케 했다.

아내를 화나게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사장이 되면서 그는 세 동생을 모조리 회사에 들여 넣었다. 바로 밑에 동생을 전무 자리에 놓고, 나머지 둘도 요소에 앉혔다. 남은 믿어서는 안 된다를 자기가 남의 밑에 있을 때에 톡톡히 체험한 그는 자기가 사장이 되면서 자기가 맡았던 전무 자리는 말할 나위도 없고, 딴 중요한 자리도 남을 해고하면서까지 동생들을 앉혔던 것이다.

아내는 그걸 싫어했다. 형제가 남보다 못한 세상이라며 그랬다. 더구나 못살게 되었을 때에 남이라면 떼어낼 수도 있지만 형제간에 그럴 수도 없고, 결국간 난처하게 된다 하였다.

그는 아내의 이론이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기 동생들은 남

과 다르다고 생각했었다. 해방 후 고향 평양서 만날 적엔 기계든 붙어 입고 손을 잡고 온 형. 그리고 6·25때에 목사인 아버지가 빨갱군에게 학살당한 뒤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계를 떠맡고 일하고 공부시켰던 그런 형이가 눈에 넣고 키워서 이만큼 힘을 아끼지 않은 형인데 왜 그들이 재결 배반하였는가 생각했었다.

군데 온데는 아내의 기운이 많이 돌아왔다. 그들은 어쩌면 세고 형의 눈을 속이고 날름날름 부정한 것을 했다. 게서 저번 어린애들이 사재하는데 보태줬다. 그걸 아내가 눈치챘다.

아내는 눈이 쌍심지를 세우고 시동생들의 부정을 캐내었다. 그들의 부하들을 매수해서 자질한 증거가 될만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공개하며 책을 했다. 당장 그들을 몰아내라고 떼를 썼다.

형 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매원(?)가 미웠지만 다 자란 동생들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다. 또 그렇게 다뤄지지도 않을 놈들이었다. 내 쫓는다면 더욱 못 할 일이었다. 그렇다고 아내를 설득할 수는 더욱 없었다. 요새 형제끼리 서로 불러 지내자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저 혼자만 끙끙앓고 있었다. 아내는 그를 조르다 안 되니까 낭비를 시작했다. 본래 낭비벽이 있는 그녀는 일을 가려서 돈을 주려고 시작했다. 반항의식에서 이기려는 그 횟수는 심했다. 그가 돈을 안 주면 빚까지 얻어서 야단을 부리는 것이었다.

형 사장은 부득불 아내를 달래려 들었다. 안 그러면 두손 빈이 날것만 같아서 방관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의 바라던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눈치 받드 물리지 못하게 시비를 걸쳐왔다. 묻는 말에 가는 눈치로 나날이 심해졌다. 그는 벌으기도 했다. 정 그럴 바엔 이혼이라도 불사하겠다 했다. 허지만 그녀는 콧방귀로 맞서는 것이었다.

참다 못해 그는 온 말을 했다. 엄청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것도 시작은 그가 하게 된 결혼은 전적이 아내쪽이 주도했다. 한데 애리지가 무섭게 그녀는 그에게 말끝마다 대답하며 금고 찰지며 죽여라! 를 외쳐댔다. 외 동리가 떠나갈 듯이 발악을 해서 구경꾼을 모으고 중인(衆人) 주시리(注視裡)에 남편을 몰아넣었다.

열전에 끝나면 이어서 냉전이 벌어졌다. 남편에 대한 일체의 수발을 끊고 무심히 남편의 자존을 부비에는 동시만 겨웃는 것이었다. 오만도 못해 고 나가는 남편의 등 뒤에서 독살스런 말을 퉁퉁 튕겨서 뒤꼭지에 했다. 이런 날은 종일 재수가 옴팡이어서 그는 장사에 허탕을 치는 수가 많았다.

「그럼 요사이도 냉전기간이겠구먼?」

나는 그에게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렇지. 오늘 아침도 내가 출근한다고 현관에서 신을 신는데 뒤에서 그 년이 뭐라 씨부린지 알아? <그놈의 회사, 뭐에나 폭 망해버리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회사!> 이러는 거야.」

「그래도 가만 있었어?」

「가만 안 있으면 어떡거나? ――이왕 결혼한 셈 돌아서서 년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바닥을 한쪽 콘크리트 바닥에다 곤두박여 주고 싶었지만 그래 봤자 뭣하냔 말야……」

그는 또 깊은 한숨을 뿜었다.

물고기가 파랗게 다렌에 연기를 뒤뿜고 있었다.

「자, 어서 고기 먹고 술 마시게……」

난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면서 그의 잔에 술을 부었다. 이렇게 해서 술이 몇 순배 돈 뒤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무섭게 엄격한 몰라도 너한테 고런 사례스레 이야길 들었더니만 오늘도

[illegible]

어쩌면 좀 쉽는데 달라 미지야!」

민 사장은 정말 심각했다. 옆에 난 그의 애소를 가볍게 다룰 수가 없었다. 한참 침묵했다. 생각 끝에 할 수 없단 결론을 얻었다.

「그건 안돼. 아무리 아주머니가 작가에게 호감을 준다고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 남의 부부싸움을 들먹일 순 없는 거 아니겠어?」

「처음 만나긴 에이? 동거생의 마누라를 그게 어디나 말야. 그런 걱정일랑 말고 꼭 좀 데려가겠어. 가서 이야기 좀 잘해줘야겠어. 내 한 마디 더 당부 할께. ……네 어느 작품엔가 이런 얘기 했지? 여자의 얼굴 고운은 얼굴에 있지 않고 마음에 무거를 숨겼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단 말야. 넌 그 글에서 여자의 무거를 멀다 같은 애증의 명관에 이랬지. 찬란하고 세계적 요리를 끼어 문엔 앞에 하나 가득해 짧음이 지지 뒤뒤 맛없은 수밖에 없는데 그걸 소금통에 넣어 끓이다가 제대로 안될 노리지한 난 같이 뒤에서 입맛을 돋군다 했지. 그리고 그 소금은 예술일 수도 종교일 수도 철학일 수도 있다 했지. 또 어떤 심각한 자극일 수도 있다고 했지. 암튼 오늘밤 우리집에 가서 마누라에게 네가 그 소금을 좀 쳐 줘야 겠어」.

우린 얼마동안 술도 고기도 싫고 그대 못간다고 실랑을 벌였다. 난 속으로 역시 공처술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면 계속 그의 집에 갈 수 없다고 우겼다. 그도 좀처럼 곳을 굽히지 않고 미미해졌는데 결국은 나에게 지고 말았다. 난 절대로 갈 수 없단 전제를 마음에 두고 머뭇거렸기 때에 대질 수 밖에 없었다.

「좋아. 정 그렇담 다음 기회에 가도록 하고 오늘만은 기왕 나선 김에 명(明) 교주한테나 같이 가지?」

「명 교주?」

「음. 전에 한번 말하잖았어. 명 계원 말야. 동거생 말 매우!」

「야, 교가 멍 매워 별아?」

「그래 그래.」

「그건 평등론에 있다 하잖았어?」

「그렇지. 근데 최만 전에 명동으로 이사 왔어. 겜 교주가 자리한 곳은 아무데도 평등이어야 한다면서……」

「멍재가 같다 하거라! 자식, 재미 있군!」

「요놈 재미있는 친구가 아냐. 예배 녀드 게 가면 제대 앞에 목울리 할 거라. 또 먹는 것도 몇를 거고……특히 은쉰의 소개같은 거……」

「어째, 그런소리 마. 넌 교주란 자식 새가 그런 체험의 손에서 운좋 알린 세번째 나쫓고 말게다. 그 성곡에 가는 있었어?」

「하긴 그런은 한번 해서 봉극한게 됐었지.」

「그저도 않은 좋이 될세지?」

「하하하, 너도 그놈의 그 쌍두'를 잊지 않고 있구나?」

「음. 그놈을 떨어버린 곧톡 그 말이 재 오르는군……」

난 뭔 사람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집에 돌아가기엔 너무 이른 세간이었고, 뭔 사정도 분명히 나와 같은 입장에서 일대로 새러 하는 모양인데 동병상련하는 의미에서도 그냥 헤어질 수가 없었다.

우린 술고기집을 나왔다. 밤엔 날씨가 아직 내린고 했었는데, 우린 빗속을 걸동하지 걷기로 했다. 우산장수 아이들이 계제 설쳤지만 우린 아랑곳 않고 비를 맞으며 그냥 걸었다.

<빗속을 그대와 함께 걸으며……>

빗속을 걷는 동안 마음이 훈훈해지며 입 사상은 불쑥 이렇게 유행가를 흥얼대며 내 팔짱을 꼈다. 나도 마다 않고 그가 부는대로 걸음 옮기고 따라 걸었다. 속에생각은 서로 딴판이면서도 우린 순 뭡에 걸으로 비롯게 다정

할 수 있었다.

명 교수의 문명연구소는 연구 F빌딩 삼층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자단 바탕에 흰 글씨가 쓰여진 장방형같은 간판이 보으로 붙은 두툼한 문을 림 사장이 노크했을 때에 안에서 들어오란 억눌린 소리가 울렸다. 림 사장이 명 교수의 대답이라고 나에게 말하고 외문을 열었다. 순간 림 사장은 멍했다. 방안에 명 교수 외의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석유난로 언저리에 둘러앉아서 한창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서 들어와. 세계의 재계여!」

문쪽에 귀를 세우고 앉았던 명 교수가 약한된 소릴 질렀다.

「들어오라면서 왜 욕이지?」

림 사장이 킬륵킬륵 웃으로 돌에주며 명 교수 못잖게 약받친 소릴 질렀다. 난 엉거주춤해 림 사장을 따라 방안으로 들어섰다.

「오늘은 결딴내기까지 마시고 있구나. 배미리 자세지!」

명 교수가 날 눈여겨 보지도 않고 면거럭을 겉잡로 꺼적벽거리며 재촉했다.

「결딴내기 좋아하네! 세계교수 나리가 나타났는데도 결딴내게야?」

림 사장이 빈정댔다.

「뭐, 세계교수?」

명 교수가 처음 고개를 들며 비로소 날 봤다. 순간 그는 눈이 휘둥그래져서 이게 누구냐, 림 형도 아니냐? 하고 소릴 질렀다. 그리고 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다. 난 그의 손을 잡아 흔들며 '거참 가냘픈 손이구나' 생각했다. 축축히 습기가 도는 손이 꼭 주면 아서질 정도로 가냘펐다.

나중에 생각한 일이지만 명 교수가 주선해준 우리 둘은 차겁고 딱딱한 철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니파티에 한몫 끼어든 셈이었다.

「잘하러 왔어. 데리러 가세지!」

우리 옆에 서먹서먹했던 좌석이 다시 거리감없는 속에 명 교수가 다 풀린 눈을 치켜뜨며 맞게게 물었다.

「원숭이 같은 명 교수놈의 거동 보러 왔다.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잘못된 거 있어. 임마.」

옆 사장이 명 교수보다 더 큰 소리로 응수했다. 미리 앉았던 하수족에 뵈는 청중들이 괴벽한 체 했었다.

「그리고 소설가 계셔야지!」

명 교수가 이번엔 느닷없이 날 노려보며 소리쳤다. 난 가슴이 철렁했다. 방금껏 나에겐 임 사장에게와는 달리 제법 정중히 구는 것 같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복병이 나서 당황해졌다.

「……헌 원고러 왔어? 혹 소설 소재 얻으러 온거 아냐? 그렇담 용서않는다? 그저 삶은 돌이지만……」

명 교수는 눈에 주스런 빛을 띠고 손은 술잔 쥐어 흔들었다.

난 진짜의 말솜씨다 했었다.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말했다. 우연 더 사장이 명 교수를 데리러 왔을 때 구태여 소설의 소재에 관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는데 겉으론 그렇게 대답(?)했다.

「좋았어. 그럼담 용앉에! 어서 이 술잔이나 받으라구. 소설가 계셔서!」

나의 대담한 답변이 있자 명 교수는 대번에 얼굴빛을 밝히며 나에게 술잔을 건네었다.

「그 계신께 소리 좀 할 수 있을까?」

난 술사발은 들고 술을 받으며 술 따르는 명 교수에게 시비조로 물었다.

「안 되지. 그런 내가 지금 애용하는 말이나야 할 되지. 그 소리 듣기싫거들랑 이 방에서 나가야 하는 거야.」

명 교주는 딱 잘라 말했다. 난 하는 그렇다 싶어서 더 말을 안했다.

「아, 이쪽 분은 서로 인사라도 나눠야지?」

임 사장께 부치고 난 술자리를 벌으던 생소한 사람에게 전번 적 명 교주에게 말했다.

「참, 그렇군! 근데 이 교주가 손수 나서서 수고할 수는 없고 자자 적당히 인사하도록 하지……」

곧 인사가 교환되었다. 난 명 교주와 임 사장은 빼고 나머지 생겨달 인살 나눴다. 그러니까 선(立) 재벌으로 통하는 육군 예비역 대령과 교(敎) 사장으로 통하는 명 교주와 국민학교 동창인 저는 출판사 외판원과 그리고 명 교주의 대세계된 겸군 이렇게 셋이였다.

근데 주어진 셋은 그들 셋이 한결같이 정수리한 차림새로 군식거를 풍긴 대 사원이였다.

순서가 명 교주는 이런 허질구레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자체에서 덕심히 포교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그들 셋은 명 교주의 신도들인 것 같았다. 조금 전까지도 명 교주는 이런 구난한 청중을 상대로 자기의 설교제리를 통일해 가며 열심히 포교하고 있었던 눈체였다. 그런 판국에 우리가 들이닥친 모양새였다.

「자, 어서 막걸리를 마시지? 손님가가 왜 이렇게 서먹한가? 술이 덜 돼서 그런거다. 어서들 마시, 마셔! 참, 빈대떡이 별로군 자구나, 임 사장 거기서 심부름 좀 할래? 요 옆에 있는 〈한강〉이는 데 포석 안가? 거게 가서 이 명 교주가 말해다면 된다!」

명 교주가 지지미 딱 대고 분부했다.

「또 가겠다. 이 채새끼야!」

임 사장이 펜하고 이마에 핏대를 올리면 소이렸다.

「교수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김 군이 벌쭉 일어나서 말했다.

「좋았어. 자네가 갔다 와. 미리미리 게시판 별명에 먹지 마!」

비명과 소리 질러놓곤 명 교수는 큰소리 내어 웃었다. 그제도 불만 몸을 뒤로 재켰다. 말으로 굴렀다 해 가며 요란스레 웃는다. 재물 쉬는데 그게 문시 어색했다.

「야, 재수 없다. 옥세가 함께 준데 다는 걸 정말 못피우겠다!」

임 사장이 빼빈히 실룩스레 씨포했다.

「아하, 자네 왜 이래 심통스럽지? 옥세의 아들일 좀 생각은 때가 있어 이제…….」

명 교수의 주사와 마음이란 말에 실 다섯과 고 수강이 해진 눈에 포성을 하고 임 사장은 칙다졌다.

「목사 소리 들었는가 같이. 목석하고 나하고 뭐는 상처야?」

임사장도 제는 당혹히 하며 이렇게 소릴 질렀다.

민세력이 오전에 과식은 다시 먹고 다시는 떼에 환기를 띠기 시작했다. 엔간히들 취했고, 따들고 불렸을 터며 뜨끈거리는 언다극에 물컥시원지 다식도 먹고 마시는 데에 환기가 있었다.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을 계기 된 사정은 선 대령에게 고사장, 그리고 김군과 이야길 나눴다. 근데 이상한 것은 어물 생도 집에 붙어 있기 싫어하는 축들이었다. 싫어한다기 보다 붙어 있을 수 없게시리 각경에 되어 있었다.

선 대령은 6·25때의 학전의 용사였다. 늠름한 몸에 어울리게 호탕하고 호인스러운 중객이 엿보였다. 비록 지금은 그것뿐의 에우러져서 퇴근하다리만큼 줄독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 천성을 아주 지우진 못하고

있었다.

그는 실직자였다. 제대 때에 받은 일시금을 미리 계획한 게 친우들에게 홀딱 사기당한 뒤부터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허탈해져 버렸다. 취직할 생각도 않고 막연히 놀기만 했다. 하는 수 없이 아내가 도붓장수를 시작했는데 그 십년동안을 아내의 앙궁고패리에 기대 살고 있다. 셋방에 살고 있는데, 밤시 울린다고 집 주인이 늘 떼우라 성화를 부리지만 나가면 방 얻기 힘든 것같이 버티고 있는 중이라 했다. 집주인에 어떻게 눈총을 보이는지 정세 대출기가 죽기 다음가리만큼 싫었다. 그래서 문데하고 동창인 명 교수한테 와서 신세지게 됐다. 그 사정은 책 한권 다니다가 명 교수에게 절린 모양이었다. 돈벌이 시원찮아서 필렌세는데다 아내가 폐병으로 소제 수위일에서 그는 집을 공동묘지만큼이나 싫어한다 하였다.

김군은 또 정부 고관의 아들인데, 어머니 돌아간 뒤에 새로 들어온 서모가 보기 싫어서 우체 집을 뛰쳐 나왔다 하였다. 다년 대학도 중에 때두고 지금은 명 교수에게 사사하며 문명 연구를 하고 있다 하였다.

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전 서울. 고 서장은 나이 사십이 넘은 헌칠이 빠진 것같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데에서 넉두리도 해봤지만 새파랗게 젊은 김군은 이런 데에 두기 아깝단 생각이 들었다. 마치 흐르는 물에서 싱싱히 헤엄치며 노니는 고기를 떼어가는 물탕물 속에 잡아 넣은 느낌이었다.

「나한테는 가정행전 문없나, 마마리 제제에!」

임 사장이 명 교수한테는 하마터도 문없고 저나내며 명 교수는 이렇게 소리 질렀다.

「설한데 문전 될 줄에?」

「될한거 좋아하네? 빈없는 말이, 빈털이!」

이렇게 전해해 놓고 명 교수는 변한 자기 가정형편을 말했다. 얼마 전에

「돈을 먹다 이거지?」

「그래.」

「재미 있다. 어서 말해라.」

「허어 참. 말하고 돈 버는 법 대주겠다……하지만 어림없다 얼간이. 이건 아무나 하는 사업이 아냐.」

「좋게 꼬르긴 하지만 네가 하는 사업이 뭔 나도 조금 있다. 교파 사기꾼이야?」

「사람고기로 통조림 만들어서 아프리카 식인종들에게 수출하는 사업을 할 자신이 있단 이거지?」

「뭐? 사람고기 통조림? 그따위 허망한 소리 작작 하라구!」

이 세상에 못할거라곤 없다. 그래서 명 교주는 지금까지의 농담거를 찾고 전개하지 마련이었다.

「허망하다고? 그런소리 하는 사람이야말로 허망한 놈이다. 임마! 이 세상에 뭐 허망해 좋? 세계 각국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외화를 벌어 들이는 것이 허망해?」

염 사장은 메뚱 그 자원이 뭐냐고 다졌다. 명 교주는 서슴없이 줄기 내 갔다. 각국에 있는 별종인간들을 이용해서 절러, 사기꾼, 깡패, 부정을 일삼는 부패한 관리, 위선적인 종교인, 돈만 아는 교육자, 정치인, 군인, 제 손을 축이는 장사꾼, 유해식품 만드는 악덕 기업가, 순엔장보, 어린이 유괴범 등을 단숨에 줄줄 꿰어 나갔다.

「사기꾼 속엔 너같은 종교장이도 끼어있는 거지? 예수쟁이 팔아서 돈 뜯는 악질 사기꾼들 말야!」

염 사장이 악질이라고 액센트를 올렸지만 명 교주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날 사기꾼이라고? 천만의 말씀! 난 미미하나마 이백이 넘는 신도를 가진 종교의 교주란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단 사

받혔다 하였다. ××리가 도쿄에 떠나기전 어느 잡지에서 계간으로 나오는 PR지인데 거기에다 그는 <무형 향수1 열(無形鄕愁熱)>이란 제목의 글을 썼다 하였다. 꼭 한 편 있은 일이었겠만 자리 그걸로 문필가가 된 셈 만나 하였다. 임 사장은 <이런, 이 미친 사기군아!> 하며 배를 안고 웃음을 곱씹아 했다. 그리고 나더러 이놈의 수작을 봉탁해 달란 눈짓을 했다. 그러나 난 거게 개입하고 싶지가 않았다.

임 사장과 명 교주는 동료변사임과 함께, 문필가에 관해서 더 많은 논쟁을 했다. 나를 포함한 딴 사람들은 날것에 관전을 하면서 술과 안대먹단 축내고 있었다. 결국에 몇 차례 더 밤엘 내려가서 술이랑 안대먹을 날라왔다. 모두들 술에 흐느적이게 되어 가고 있었다.

「자, 인제 그만하고 가자!」

임 사장과 다투던 명 교주가 갑자기 큰 소릴 질렀다.

「시간이 얼 됐시다. 가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안골길으로 가는거야. 선 배딸 알지?」

선 배딸에 소치럼 색 웃으며 안다는 표정을 했다. 명 교주가 손 위에 손을 걷쳐 치올리고 세신을 제대 불며 이런 게 하려 가자 했다. 그는 쟁쟁 처성하지 울었다.

「재수없다. 오 꼬마사기군아!」

임 사장의 손바닥으로 허리를 쓰고 치성을 올리는 명 교주의 마빡을 때렸다.

「싫음 그만둬, 연마리 새새끼!」

명 교주가 동작을 멈추며 악을 썼다.

「싫긴 왜 싫어? 공짜면 양잿물도 삼킨다는데!」

「좋았어. 술깨해서 좋았어!」

명 교주가 소리 지르며 일어나자 모두들 우 일어났다.

「철군, 대각 치우고 뒤따라 와! 알겠? 전번 갔던 데 말야.」

「네, 압니다.」

일행은 비트적거리며 가파스로 계단을 내려왔다. 골목에 나서니까 이국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다. 명 교주를 선두로 일행이 골목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같이 가, 이 친구!」

내가 멈칫거려서 머뭇거리자 뒤돌아 온 엄 사장이 내 팔을 잡아 끄며 재촉하였다.

「아니야, 난 집에 가야 해!」

난 엄 사장에게 붙잡힌 팔을 떨쳐 내며 겸연스레 말했다.

「정말야?」

엄 사장이 주춤하면서 물었다.

「너도 참해 잘해 가!」

엄 사장은 바디리며 뒤돌아 명 교주 일행을 좇아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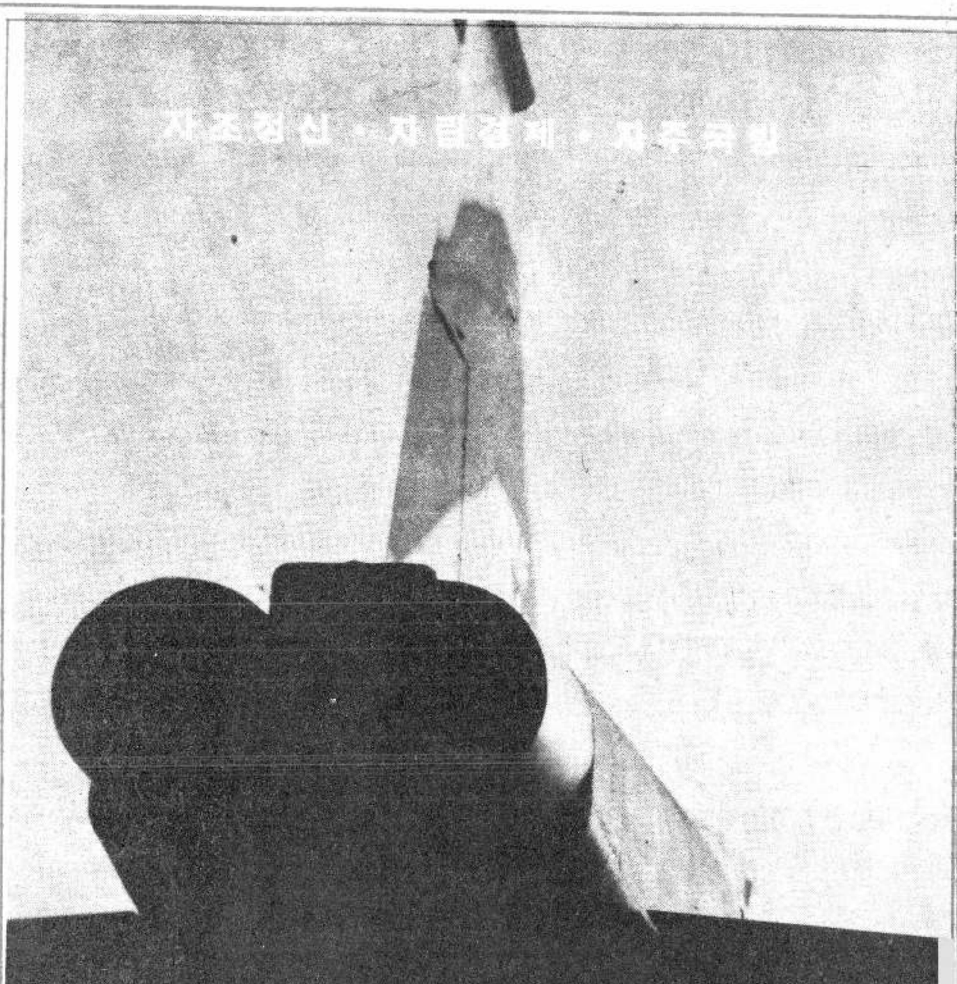
난 거게 우뚝 서 있었다. 서서 골목 외등들에 비치는 비트적거리며 걷는 명 교주 일행을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내 머리엔 <실향자(失鄕者)>, <탈궤자(脫軌者)>, <무중력 환자(無重力患者)>, <좌표(座標) 분실자> 등의 낱말에 어지러이 붐비였다. 그러나 무조건 그들을 나무랄 수 만은 없을 것 같았다.

명 교주 일행과 뒤좇던 엄 사장이 골목을 돌아 자취를 감췄을 적에 비로소 난 발 뗐었다.

난 집에로의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빗매가 손등에 젖었다.

상 : 신, 구 군사정전위원회 한국측 수석대표가 1월 20일 신·구임 인사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환담을 나누었다.

하 : 주한 외국무관단이 신년하례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정예공군 되자